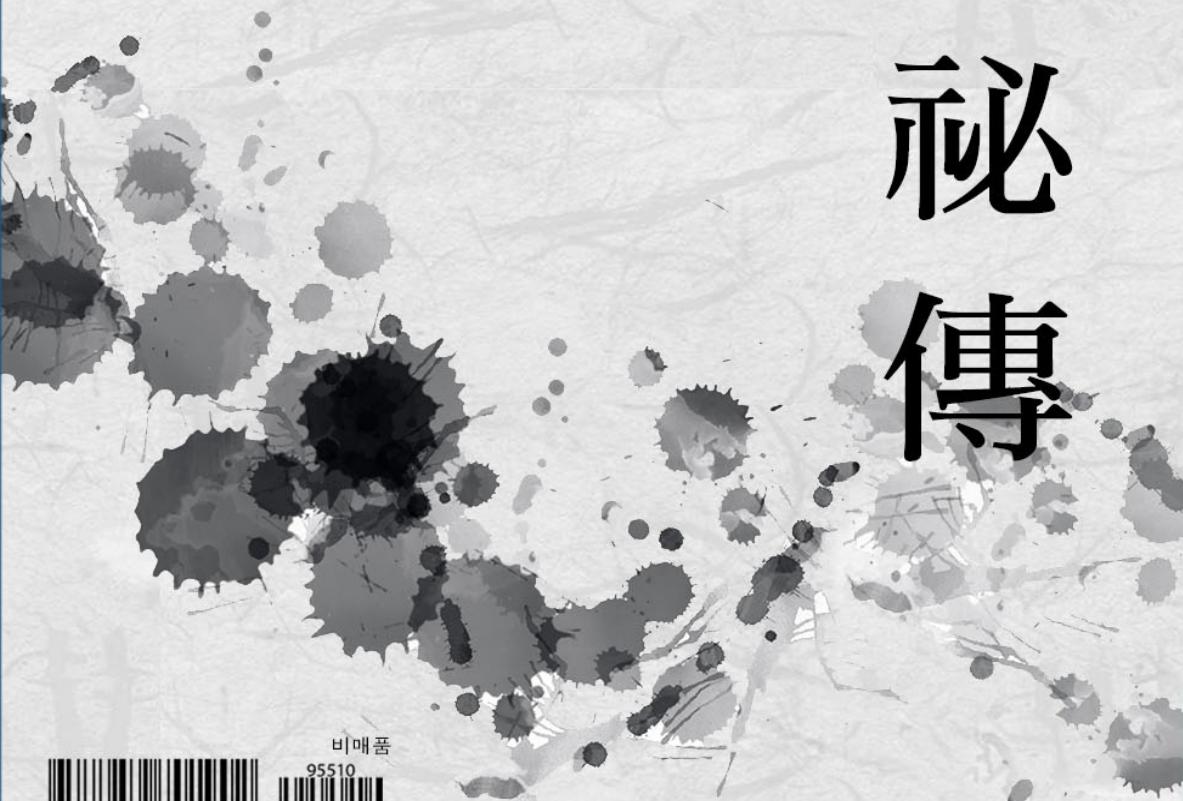


국
역

鍼灸極祕傳

원저자 김덕방
국역/해제 박상영, 오준호



비매품

95510



9 788959 701902 (EPUB)
9 788959 701919 (MOBI)
9 788959 701872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침구극비전 鍼灸極秘傳	1.1
서문 序文	1.1.1
자서 自序	1.1.1.1
서 叙	1.1.1.2
서 叙	1.1.1.3
침치대의 鍼治大意	1.1.2
총론 總論	1.1.3
먼저 명심해야할 금기사항 先禁忌ヲ心得ヘキ事	1.1.3.1
침을 잘못 놓았을 때 다시 침을 놓아야 하는 경우 鍼シテ誤シ時、刺直スヘキ事	1.1.3.2
보사영수(補瀉迎隨)와 직란(直亂)에 대하여 補瀉迎隨直亂ノ事	
별전 別傳	1.1.3.4 1.1.3.3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가르침 不食ヲ治スル傳	1.1.3.5
아시 문답의 혈에 대하여 阿是問答ノ穴ト云事	1.1.3.6
중완은 묘혈(妙穴)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中腕ハ妙穴タルヲ心得ヘキ事	1.1.3.7
비전의 조목들(1) 秘傳之條條(1)	1.1.4

비전의 조목들(2)수혈해 秘傳之條條(2)俞穴解	1.1.5
수혈도해략 俞穴圖解畧	1.1.6
장문 경문 章門 京門	1.1.6.1
환도 還跳	1.1.6.2
기죽마 騎竹馬	1.1.6.3
고황 膏肓	1.1.6.4
천돌 天突	1.1.6.5
기문 期門	1.1.6.6
후정-풍문 後頂-風門	1.1.6.7
풍부-뇌호 風府-腦戶	1.1.6.8
풍지 風池	1.1.6.9
동자료 瞳子竅	1.1.6.10
협거 頰車	1.1.6.11
인도 印道	1.1.6.12
구미 鳩尾	1.1.6.13
염천 廉泉	1.1.6.14
천주 아문 天柱 瘋門	1.1.6.15
사죽공 絲竹空	1.1.6.16
어미 魚尾	1.1.6.17
풍부 風府	1.1.6.18
신정 상성 神庭	1.1.6.19
남아사차도 男兒斜差圖	1.1.6.20
수양명대장경 手陽明大腸經	1.1.6.21

수궐음심포경 手厥陰心包經	1.1.6.22
수양명소장경 手大陽小腸經	1.1.6.23
수소양삼초경 手小陽三焦經	1.1.6.24
수태음폐경 手太陰肺經	1.1.6.25
수소음심경 手小陰心經	1.1.6.26
소장경의 소해 小腸經ノ小海	1.1.6.27
심경의 소해 心經ノ少海	1.1.6.28
견우 肩髃	1.1.6.29
이간 삼간 상양 二間 三間 商陽	1.1.6.30
전곡 후계 소택 前谷 後谿 少澤	1.1.6.31
완골 양곡 양로 腕骨 陽谷 養老	1.1.6.32
천정 天井	1.1.6.33
노궁 勞宮	1.1.6.34
상양 합곡 商陽 合谷	1.1.6.35
관충 關衝	1.1.6.36
소충 소부 신문 少衝 少府 神門	1.1.6.37
귀곡 鬼哭	1.1.6.38
귀당 鬼當	1.1.6.39
척택 尺澤	1.1.6.40
신문 神門	1.1.6.41
소상 少商	1.1.6.42
소해 少海	1.1.6.43
소부 少府	1.1.6.44

양계 陽谿	1.1.6.45
상양 商陽	1.1.6.46
열결 列缺	1.1.6.47
대릉 내관 간사 大陵 內關 間使	1.1.6.48
양지 지구 陽池 支溝	1.1.6.49
곡지 曲池	1.1.6.50
족소음신경 足少陰腎經	1.1.6.51
족궐음간경 足厥陰肝經	1.1.6.52
족소양담경 足小陽膽經	1.1.6.53
족대양방광경 足大陽膀胱經	1.1.6.54
족양명위경 足陽明胃經	1.1.6.55
족태음비경 足太陰脾經	1.1.6.56
승산 承山	1.1.6.57
위중 승부 委中 承扶	1.1.6.58
양릉천 陽陵泉	1.1.6.59
태계 大谿	1.1.6.60
지음 해곡 至陰 解谷	1.1.6.61
대돈 大敦	1.1.6.62
임읍 臨泣	1.1.6.63
현종 懸鐘	1.1.6.64
삼음교 三陰交	1.1.6.65
여구 중도 鑿溝 中都	1.1.6.66
태충 大衝	1.1.6.67

계곡 鮑谷	1.1.6.68
음릉천 陰陵泉	1.1.6.69
용천 연곡 湧泉 然谷	1.1.6.70
은백에서 시작하는 5혈 隱白ヨリ五穴	1.1.6.71
음곡 곡천 陰谷 曲泉	1.1.6.72
족삼리에서 시작하는 3혈 足三里ヨリ三穴	1.1.6.73
충양 衝陽	1.1.6.74
내정 内庭	1.1.6.75
상구 商丘	1.1.6.76
지음에서 시작하는 8혈 至陰ヨリ八穴	1.1.6.77
천생족 泉生足	1.1.6.78
풍시 음시 風市 陰市	1.1.6.79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鍼灸極秘傳 침구극비전

甲斐德本翁傳書

갑비국(甲斐國) 덕본옹전서

木邨太仲先生撰次

목총태종 선생 찬차

浪花書林

낭화서림

三書堂合梓

삼서당합재

序文 서문

自序 자서

斯一卷ハ昔慶長年間甲斐ノ國ノ良醫長田德本ト云人(《梅花無盡藏》ノ作者也)、朝鮮國ノ醫官金德邦ト云人ヨリ授リシ術ナリ。其後田中知新ニサツケテヨリ傳來リテ其家々ニ秘シテ、傳ルニ口受ヲ以テシ、或ハ其門ニ入ルトイヘ ~~レ~~ 切紙ヲ以テ授テ、全備スル人稀ナリ。吾京師遊學ノ頃、術ヲ大坂ノ原泰庵先生ニ學ヒテ兩端ヲ叩ク。其後毎々試ニ、寔ニ死ヲ活スコシハシハ也。予思フニ、金モ山ニ藏シ珠モ淵ニ沈メ置ハ何ノ益カアラン。矧ヤ医術ハ天下ノ民命ニカヽルモノナリ。是ヲ家ニ朽サン久、醫ヲ業トスル者ノ道ニ非スト。此故ニ傳受口訣ノ條タ一事モ遺サス書アラハシテ世ニ公ニスル者ナリ。能此書ニ心ヲヒソメハ、簡ニシテ得ル處大ナルヘシ。世ノ術ニ志ス人々、此法ヲ以テ弘ク世ニ施サハ、予カ本懷ナリ。

이 한 권의 책은 옛날 경장 연간(慶長年間, 1596-1615) 갑비국(甲斐國)의 명의인 장전덕본(長田德本)이라는 사람(《매화무진장》의 작가이다)이 조선의 의관 김덕방(金德邦)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침술이다. 그 후 전중지신(田中知新)에게 전수된 이후에는 그 집안에서 대대로 비전(秘傳)되어 전수될 때에는 구술에 의하거나 혹은 그 문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점만을 메모로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 침술의 전체를 갖춘 사람이 드물었다. 나는 경사(京師)에서 유학할 때에 이 침술을 대판(大坂)의 원태암(原泰庵) 선생에게 배워 의심을 모두 해소하였다. 그 후 매번 시험할 때마다 진정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여러 번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금덩이가 산에 숨겨져 있다거나 진주가 연못에 가라앉아 있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물며 의술이란 것은 천하 백성들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을 집안에서 썩히는 것은 의술을 업으로 삼는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전수받은 구결(口訣)의 각 조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서 세상에 공간(公刊)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에

푹 빠질 줄 안다면, 간명하면서도 얻는 것은 몹시 클 것이다. 의술에 뜻을 둔 세상 사람들이 이 침법을 널리 세상에 베풀게 하는 것이 내가 속으로 바라는 바이다.

陸奧福島 木邨太仲元貞 書.

육오(陸奧)의 복도(福島)에서 목촌태종 원정(木邨太仲元貞) 쓰다.

叙 서

凡物博則多才以宜, 而及其臨機事煩, 而或約則精一必中, 而至其應變技窮受敗, 物無兼美. 誰昔然博而能約是其難哉!

내용이 많으면 다양하게 적용할 만 하지만 목숨이 오갈 때에는 그 일이 너무 번거롭고, 간약하다면 정일(精一)하여 들어맞겠지만 변화에 응하기에는 기술이 모자라서 실패하게 되니 세상에는 다 좋은 것을 갖출 수는 없는 법이다. 옛날부터 박학하면서 간약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구나!

余鄉木子慎覃精於鍼灸, 嘗試術於平安數年, 所經驗亦多, 異本有所傳之出. 今修次其書, 緣飾以己意, 錄爲一小冊公之, 世病症莫不輸穴明備. 便於懷袖, 易於檢閱, 可謂約而不貴博異. 若夫所受授最爲可珍寶, 詳於台州先生序中藏, 不復贅專.

내 고향의 목자(木子, 목촌태종木邨太仲)는 삼가고 사려가 깊어 침과뜸에 정미로우며 일찍이 평안(平安, 경도·쿄토의 옛 이름)에서 여러 해 동안 그 기술을 시험하여 경험한 바가 많았는데, 전수 받은 기이한 책이 있었다. 지금 그 책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으로 꾸미고 기록하여 작은 책자 하나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니, 세상의 병증에 대한 수혈이 모두 밝게 구비되어 있었다. 품거나 소지하기에 좋고 찾아보기 간편하니, 간약하여 다양하거나 기이한 내용은 없다고 할 만하다. 담겨진 가르침이 매우 귀한 보물로 여길 만하지만, 대주(台州) 선생의 서문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 더 덧붙이지 않기로 한다.

安永戊戌, 題於平安.

안영 무술에 평안에서 쓰다

東奧 藤晃明

동오 등황명

叙 서

河賢治者爲余言：“我聞之故老，德本之治病，不待制齊，刺輸取絡而濟，恒居多也。”

余讀《梅花方》，而可異專，齊和脈診以至灸灼，諄諄說之，無理言以淺乎鍼也。

하현치(河賢治)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내가 어르신께 들으니 덕본(德本) 선생¹이 병을 치료할 때는 약을 조제할 것도 없이 수혈(輸穴)에 자침하고 낙맥(絡脈)에서 취혈(取血)하여 낫게 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하였으나, 내가 《매화방(梅花方)》을 읽어보니 완전히 달랐으니, 탕약과 맥진부터 뜸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되어 있었지만 침보다 하찮게 여겼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後遇木太仲負芨詢業於余，觀其所爲，鍼術之巧，屢見奇效。因叩其所傳，乃探其囊中，取一小冊。視之則德本鍼家書也。

훗날 목촌태중(木邨太仲)이 책보를 지고 나에게 의학을 배우러 왔는데, 그가 행하는 것을 보니 침술이 교묘하여 누차 기묘한 효험을 보이는 것이었다. 내가 그것이 전해져 내려온 바를 묻자 그는 주머니 속을 더듬더니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었다. 살펴보니 덕본 선생의 침술에 관한 책이었다.

讀之，取病之法，輸撮其樞要，刺審其淺深，區病證，著緊數，至于運手之妙，氣息之應，悉不遺其秘蘊。其言簡而易記，約而易理。《經》言‘知其要者，一言而終’，苟非實驗乎，安能拔粹猶法之精在耶？

책을 읽어보니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서 수혈은 그 긴요함 불들었고 자침은 그 깊이를 자세히 하였으며, 병증이 구분되고 맥상이 드러났으며, 손놀림의 오묘함과 호흡에 응하는 방법까지 상세하여 숨김이 없었다. 그 말은 간략하여 기억하기 쉬웠으며 요약되어 이해하기 쉬웠다. 《내경》에 '그 요체를 알면 한마디 말로 끝난다.' 하였으니, 진정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발췌를 하여 이렇게 침법의 정수만을 남겼겠는가?

翁之於鍼術, 河生之言果不誣也, 《梅花方》之不言及專, 瞭然冰釋異. 然此書累傳之久, 錯置魚豕, 紛巵不一. 太仲隨是正之, 旁纂其餘緒, 猶之披雲霧觀青天也, 何其愉快哉! 今欲上木而與同好共之, 取正於余, 書其略而歸之. 太仲名元貞, 陸奧人也, 河賢治, 信濃人, 翁之外戚之裔也.

덕본 선생의 침술에 대한 하현치(河賢治)의 말이 과연 틀림이 없었으니 《매화방》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명확해져 의심하던 것들이 눈 놓듯 풀렸다. 하지만 이 책은 누차 전해진 것이 오래되어 내용이 뒤섞이고 글자에 오류가 생기고, 혼란스럽고 가지런하지 않았다. 태중(太仲)이 그때그때 이것을 고치고 아울러 그 나머지를 모으니, 마치 구름과 안개를 걷어내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니, 어찌 유쾌하지 않겠는가! 지금 목판으로 간행하여 그것을 함께 즐기고 공유하려고 나에게 질정을 구하기에 그 대략을 써서 돌려보낸다. 태중(太仲)은 이름이 원정(元貞)이고 육오(陸奧) 사람이며, 하현치(河賢治)는 신농(信濃) 사람으로 덕본 선생의 외가 쪽의 후예이다.

安永戊戌 春 台州源元凱 識.

안영(安永) 무술(1788) 봄에 대주(台州) 원원개(源元凱) 쓰다.

¹. 덕본(德本) 선생 : 일본의 전설적 명의 영전덕본(永田德本)을 가리킨다. 富士川游著, 朴冕、李相權 共譯, 《日本醫學史》, 法人文化社, pp.252-257 ↩

鍼治大意 침치대의

竊ニ惟フニ、針ハ急ヲ弛メ、鬱ヲ散シ、實ヲ瀉シ、血滯ヲ通シ、湯液ニ交施シ
テイヨイヨ其效ヲ奏スル者ナリ。然レハ未熟ニシテ施サハ人ヲ傷ルノ薬ヨリモ亦
甚シ。又針ニテ血ヲ取フアリ。甚：其速效アルノナリ。然レハ近世ノ民俗、身ヨリ
血ヲ出フヲ忌テ恐ルモノアリ。貴人ハイヨイヨ忌憚ルナリ。夫レ人ハ血ト氣トノ
有余不足ニヨリテ病ヲナスヲ辨ヌカ故ナリ。血實血滯ノ病ヲナスモノ、其血ヲ
取り捨テ平身ニスルノ、何カヲソルニ足ンヤ。醫モ亦コレヲスマシキトシテ
俗ノ迷ヲ助ル人多シ。内經ヲヨク讀サル故ナラン夫。

가만히 생각해보면, 침이란 것은 급(急)한 것을 이완시켜주고, 막힌 것을 흘려
주고, 실(實)한 것을 사해주고 막힌 혈(血滯)을 소통시키니, 탕액과 함께 시술
하면 더욱 그 효험을 거둘 수 있다. 그렇지만 미숙하게 시술하게 되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약보다도 훨씬 심하다. 또 침으로 피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
는데 그 효험이 몹시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민간에서는 몸에서 피를
뽑아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며, 귀한 사람은 더욱 그것을 꺼린다.
그것은 사람이 혈과 기의 유여부족(有餘不足)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혈실(血實)、혈체(血滯)의 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
를 뽑아내어야 안정되니, 무엇을 꺼릴 것인가? 의사들도 이것을 잘 알지 못하
고서 세속의 미혹을 조장하는 자가 많다. 이것은 《내경》을 열심히 읽지 않은
까닭이 아니겠는가?

一.病ニヨリテ血ヲ出スヲ忌ム症モアリ。氣血兩虛ノ人ト冷症ト妊娠或產後長病
ノ後等也。意ヲ以テ察スヘシ。尤其症ヲ察シ得サル醫人ハ識者ニユツリテ人ヲ毀フ
ナカレ。

- 병에 따라서는 피를 내서는 안되는 증상이 있다. 기와 혈이 모두 허한 사람과 임신을 했거나 혹은 산후에 오랫동안 병을 앓은 뒤인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펴야 한다. 더욱이 그 증상을 살필 수 없는 의사는 아는 사람에게 일임하여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一.鍼スヘキ症ト血ヲ取ルヘキ症ハ相似タリ.灸スヘキ症ト針スヘキ症、血ヲ取ルヘキ症トハ雲壤ノ隔ナリ.其相反スルコト知ヘシ.大槻虛者ニハ灸シ、實ニハ鍼シ、亦血ヲ取ト心得ヘシ.通評虛實論ニ曰經虛シ絡滿者灸陰(即經也)刺陽(即絡也).經滿絡虛則刺陰灸陽.是灸ト鍼トノ違アルコト知ヘシ.然ルヲ今ノ人ミタリニ鍼灸シテ病ヲマス者アリ.暫ハ其害シレサレ 毛日ヲヘテ病重リ、或元氣消スルコト、醫トシテ是ヲ不辨シテ人ヲアヤマツハ甚罪ナリ.能虛實ヲ考テ、儲灸スヘキハ灸シ、鍼スヘキハ針スヘシ.必我カ子弟ニ他ノ子弟ヲ比シテ恕センコトワスルハコナカレ.

- 침을 써야 하는 증상과 피를 내야 하는 증상은 서로 비슷하다. 뜸을 떠야 하는 증상은 침을 쓰거나 피를 내야 하는 증상과는 천양지차가 난다. 그 상반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개 허한 사람에게는 뜸을 뜨고 실한 사람에게는 침을 쓰거나 피를 내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통평허실론(通評虛實論)》에 말하였다. "경(經)이 허하고 낙(絡)이 만(滿)한 경우에는 음(곧 경을 의미한다)에 뜸을 뜨고 양(곧 낙을 의미한다)을 찌르며, 경이 만하고 낙이 허한 경우에는 음을 찌르고 양에 뜸을 뜯다."¹ 이렇듯 뜸과 침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데도 요즘 사람들은 함부로 침을 놓거나 뜸을 떠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잠시 동안은 그 폐해를 알지 못하더라도 시일을 경과하면 병이 위중해지거나 원기가 소진 되니, 의사로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서 잘못 시술하면 커다란 죄이다.. 허와 실을 잘 살펴서 뜸을 떠야 할 경우에는 뜸을 뜨고 침을 놓아야 할 경우에는 침을 놓아야 한다. 반드시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구분하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임일 잊지 말아야 한다.

木邨太仲元貞述.

목총태종 원정(木邨太仲元貞) 쓰다.

1. "경(經)이 허하고 낙(絡)이 만(滿)한 경우에는 음(곧 경을 의미한다)에 뜸을 뜨고 양(곧 낙을 의미한다)을 찌르며, 경이 만하고 낙이 허한 경우에는 음을 찌르고 양에 뜸을 뜯다." : "絡滿經虛, 灸陰刺陽, 經滿絡虛, 刺陰灸陽." 《黃帝內經素問、通評虛實論篇》↔

總論 총론

先禁忌ヲ心得ヘキ事 먼저 명심해야할 금기사항

一. 食後ニ刺ヘカラス.

-.. 식후에는 침을 놓지 말아야 한다.

一. 吐シテ後、中腕ト章門ヲ不可刺.

-.. 토한 후에는 중완、장문에 침을 놓지 말아야 한다.

一. 孕女ハ合谷、三陰交、石門ヲサスヘカラス.

-.. 임부에게는 합곡、삼음교、석문에 침을 놓지 말아야 한다.

一. 飽食ノ上ト飢タル時ト遠行キシタル時、不可刺.

-.. 배불리 먹은 뒤, 굶주린 뒤, 그리고 먼 길을 갈 때에는 침을 놓지 말아야 한다.

一. 汗出ルヲ甚シキ人ト總身ノ動脈ドコモカモ甚シキ人ハ不可刺.

-.. 땀이 심하게 나는 사람과 온몸의 맥이 모두 심하게 뛰는 사람은 침을 놓지 말아야 한다.

一. 大風、大雨、地震ノ時、刺ヘカラス.

-.. 큰 바람이 불 때와 큰 비가 내릴 때와 지진이 났을 때에는 침을 놓지 말아야 한다.

一. 甚怒リタル時ト大ナル憂ニ逢タル時、不可刺.

-.. 몹시 화가 났을 때와 큰 근심이 있을 때는 침을 놓지 말아야 한다.

右常ニ心ニ藏テ慎テ刺ヘカラス.

이상의 사항을 늘 명심하고 삼가여 침을 놓아야 한다.

鍼シテ誤シ時、刺直スヘキ事 침을 잘못 놓았을 때 다시 침을 놓아야 하는 경우

一. 水分ノ誤ハ足ノ無名ノ穴.

- 수분에 침을 잘못 놓은 경우에는 다리의 무명혈에 침을 놓는다.

一. 章門ノ誤ハ絶骨.

- 장문에 침을 잘못 놓은 경우에는 절골에 침을 놓는다.

一. 血海ノ誤ハ足ノ三里.

- 혈해에 침을 잘못 놓은 경우에는 족삼리에 침을 놓는다.

一. 肩ノ誤ハ肩井、曲池.

- 어깨에 침을 잘못 놓은 경우에는 견정·곡지에 침을 놓는다.

一. 足ノ三里、絶骨ノ誤ハ肩井.

- 족삼리와 절골에 침을 잘못 놓은 경우에는 견정에 침을 놓는다.

一. 腹中ノ誤ハ絶骨.

- 배에 침을 잘못 놓은 경우에는 절골에 침을 놓는다.

一. 承山ノ誤ハ絶骨.

- 승산에 침을 잘못 놓은 경우에는 절골에 침을 놓는다.

一. 鍼口ヨリ血出テ止ラヌ時、巨骨ヲ可刺.

- 침구멍에서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경우에는 거골에 침을 놓으면 좋다.

右若シ誤則併ノ穴ニテ刺直スヘシ.若セサレハ或ハ絶スルコアリ.慎ヘシ.

이상과 같이 침을 잘못 놓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혈에 다시 침을 놓아야 한다. 다시 침을 놓지 못하는 경우나 졸도할 경우도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補瀉迎隨直亂ノ事 보사영수(補瀉迎隨)와 직란(直亂)에 대하여

一. 其經ノ流レ、上ヨリ始ルカ、下ヨリ上ルカヲ能常ニ譜記シテ迎隨ノ法ヲアヤマルヘカラス.

- 그 경(經)의 흐름이 위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가를 항상 잘 암기해두어 영수법(迎隨法)을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

一. 七十八難ニ曰、見病人鍼ヲ行ハント思フ時、其針スヘキ穴ヲ左ノ手ニテ少シモミテ氣ヲ至ラセテ刺ヘシ、ト。此法亦守リテ行フヘシ。

- 칠십팔난(七十八難)에 말하였다. "환자를 살펴보고 침을 놓으려고 할 때, 침놓을 혈을 왼손으로 조금 문질러서 기가 이르게 한 뒤 자침해야 한다."¹ 이 방법 역시 지켜야한다.

一. 鍼ヲ入ルヽ、其病人ノ呼ニ隨テ少シ手ヲ緩ムレハ、腹中ニテ針先ノ動クヤウニ覺ル氣味ノ時、亦一段針ヲ按シ入ルヽ也。是ヲ補ト云ナリ。扱病人ノ引ク息ニ隨テ針ヲ抜クナリ。

- 침을 찌를 때, 그 환자의 날숨에 따라서 찌르고 침을 쥔 손을 약간 느슨하게 하면 마음속에 침끝이 움직이는 듯한 것이 느껴지는 기미가 있는데, 이 때 한 층 더 침을 눌러서 찔러넣는다. 이것을 보법(補法)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자의 들숨에 따라 침을 뽑는다.

一. 鍼ヲ入ルヽ、其病人ノ吸ニ隨テ入テ少シ手ヲユルメテ見レハ、鍼先ノ動クヤウニ覺ル時ニ針ヲ動シフルハシテ、ツク息ニ隨テ針ヲ抜ナリ。是瀉法ナリ。

- 침을 찌를 때, 그 환자의 들숨에 따라서 찌르고 침을 쥔 손을 약간 느슨하게 해보면 침끝이 움직이는 듯한 것이 느껴지는데, 이때 침을 떨면서 움직이고 날숨에 따라서 뽑는다. 이것을 사법(瀉法)이라고 한다.

一. 迎トハ其針先ヲ其經絡ノ流レニ向フテ刺ヲ云ナリ.

- 영(迎)은 침끝을 경락의 흐름에 거슬러 찌르는 것을 이른다.

一. 隨トハ其針先ヲ其經絡ニ順ツテ刺ヲ云ナリ.

- 수(隨)는 침끝을 경락의 흐름에 따라 찌르는 것을 이른다.

一. 直トハ其經絡ノ順逆ニヨラズ眞直ニ針ヲヲロスナリ.

- 직(直)은 경락의 흐름에 따르거나 거스르거나에 관계없이 곧추 세워 침을 찌른다.

一. 亂トハ捻ル「早クヒ子リテ、扱フルハシテ抜ナリ.是大瀉法ナリ.

- 란(亂)은 비트는 것이다. 빠르게 비튼 뒤 흔들면서 뽑는다. 이것을 대사법(大瀉法)이라 한다.

1. "환자를 살펴보고 침을 놓으려고 할 때, 침놓을 혈을 왼손으로 조금 문질러서 기가 이르게 한 뒤 자침해야 한다." : "..., 當刺之時, 先以左手厭按所榮俞之處, 彈而努之, 爪而下之, 其氣之來, 如動脈之狀, 順鍼而刺之,"

※《難經、第七十八難》←

別傳 별전

一. 水分、中腕、下腕、氣海、關元、鳩尾.右腹部六穴ニ別傳アリ.鷄足ノ傳ト云.

- . 수분·중완·하완·기해·관원·구미. 이상 복부 6개 혈에 대해서는 별전(別傳)을 둔다. 이것을 계족(鷄足)에 관한 가르침(鷄足傳)이라고 한다.

先一寸刺シテ五分拔上テ五分ハ拔殘シテ、夫ヨリ上エ向テ一寸許リヒ子リ、又拔殘シテ左エ向テ一寸許リヒ子リテ、亦拔殘シテ右エ向テ一寸許ヒ子リテ、亦拔殘テ正直ニ刺テ拔.此ヲ鷄足ト云.

먼저 1치를 찌르고 5푼을 뽑아서 5푼을 남겨둔 뒤, 거기에서 위쪽을 향해 1치 가량 비틀어 찌른다. 또 뽑다 남겨둔 상태에서 왼쪽을 향해 1치 가량 비틀어 찌르고, 또 뽑다 남겨둔 상태에서 오른쪽을 향해 1치 가량 비틀어 찌르며, 또 뽑다 남겨둔 상태에서 곧추 세워 찌른 뒤 뽑아낸다. 이것을 계족(鷄足)이라고 한다.

一. 頭中手足等肉ノウスキ所ハ皆針ヲ仆テ刺ヘシ.

- . 머리·손·발처럼 살이 얇은 곳은 모두 침을 뉘어서 찔러야 한다.

一. 大椎ハ針先上エ向テ刺.

- . 대추는 침끝을 위쪽을 향하게 해서 찌른다.

一. 承山ハ何時モ迎ニ刺ヘシ.

- . 승산은 언제나 영법(迎法)으로 찔러야 한다.

一. 天突ハ針先下エ向テ刺.

- . 천돌은 침끝을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찌른다.

一. 委中ハ何時モ隨法ニ刺ヘシ.

- 위중은 언제나 수법(隨法)으로 찔러야 한다.

一.鳩尾ハ下エト、或上エトヘシ。

- 구미는 아래쪽을 향해 눌어서 짜르거나 위쪽을 향해 눌어서 찔러야 한다.

一.瘧門ヲ誤レハ人ヲ瘧ニスル也。

- 아문에 침을 잘못 놓으면 병어리가 된다.

不食ヲ治スル傳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가르침

食ハ人ノ天ナリ.故別此條ヲ出スナリ

음식은 사람에게 하늘과 같다. 때문에 따로 이 조문을 제시한다

不食スル證ニハ先ツ陰都二穴、次ニ下腕(補法)、其次ニ通谷(隨)、又其次ニ中
腕、天樞ヲ刺ヘシ.如此スルヲ三日ニ及テ效ナキ則火氣ヲ入ヘシ.臍中ニ燒鹽ヲウ
ツミテ、其上ヨリ灸七壯或十四壯スヘシ.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에는 우선 음도 2혈, 다음으로 하완(보법(補法)), 그
다음으로 통곡(수법(隨法)), 그 다음으로 중완·천추를 찔러야 한다. 이렇게 3
일 동안 해도 효험이 없다면, 화기(火氣)를 넣어야 한다. 배꼽을 구운 소금으로
메우고 그 위에 7장 혹은 14장 뜰을 떠야 한다.

阿是問答ノ穴ト云事 아시 문답의 혈에 대하여

凡其病人背、或腹、或手足ニテモ、其骨肉ヲ按テミテヨク答ルト云所ヲ灸針ハ
ニ施スナリ。或ハ腹ノ病ニ背ヨリ行ヒ、背ノ病ニ腹ヨリモ脅ヨリモ刺スカナリ。時
ノ宜キニ隨フヘシ。

환자의 등 혹은 배, 혹은 수족에도 그 골육을 눌러 보아 거기가 맞다고 대답하는 곳에 침과 뜸을 함께 시술하는 것이다. 혹 배의 병에는 등에서부터 자침하고, 등의 병에는 배에서부터 하기도 하고 어깨에서부터 하기도 한다. 시의적절하게 시술해야 한다.

中腕ハ妙穴タルコト心得ヘキ事 중완은 묘혈(妙穴)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夫中腕ハ胃ノ募、榮衛ノ始末也.故ニ萬病ニ用.但胃虛之人ト血色ナキ人ト凡虛人ニハ深ク刺コト忌ナリ.誤ツテ胃虛之人ヲ刺、則一身之根本タル榮衛ヲ失スルナリ.君子是ヲ思ヘ.

중완은 위경(胃經)의 모혈(募穴)이며 영위(榮衛)의 시말(始末)이다. 때문에 만 병에 이곳을 쓴다. 다만 위(胃)가 허한 사람이나 혈색이 없는 사람, 그리고 허 한 사람에게는 깊게 자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위가 허한 사람에게 잘못 자 침하면 일신(一身)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영위(榮衛)를 잃게 된다. 군자는 이 것을 명심해야 한다.

中ニモ中腕ハ一切ノ吐血、翻胃、嘔吐、噯氣、久瀉、諸熱等ヲ治スル也.然レハ胃虛ノ人ヲ刺テアヤマルコ勿レ.能心ヲヒソメテ胃ノ虛實ヲワカツヘシ、慎之く.

특히 중완은 온갖 토혈·번위·구토·애기·오랜 설사·제반 열증 등을 치료 한다. 그렇지만 위가 허한 사람을 잘못 자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잘 명 심하여 위의 허실을 가려내되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秘傳之條條(1) 비전의 조목들(1)

氣附鍼(氣つけのはり) 기절한 사람을 깨우는 침

隱白(一分) 足ノ三里(五分)

은백(1푼) 족삼리(5푼)

日睡¹ 일종

はやけんへき.いきのならぬハ即卒厥病なり.甚大切の症なり.一時半時の間に死するなり

속현벽(速痃癖)이다. 숨을 쉴 수 없는 것은 곧 출궐병(卒厥病)이다. 매우 위중한 증세이다. 2시간 혹은 1시간 내에 죽는다

腹痛、煩悶、人事ヲカヘリミズ、或肩強、胸工引テ痛ミ、死セントスルナリ。又腫物ヲ發スルニアリ。又前髪際ノホトリニ腫ヲ發スル者ハ朝ニ發シテタニ死スルナリ。

복통(腹痛)、번민(煩悶)이 있고 의식이 흐리거나 혹은 어깨가 뻣뻣하면서 가슴으로 땅기고 아파서 죽을 것만 같다. 또 종기가 나는 경우도 있다. 또 전발제(前髪際) 부근에 종기가 나는 경우는 아침에 병들면 저녁이면 죽는다.

治方：肩井(四分)曲池(七分)尺澤(三分)此三穴ヨリ血ヲ取テヨシ。但ランセツタニテハ子切テ血ヲ出スヘシ。

치방(治方): 견정(4푼) 곡지(7푼) 척택(3푼) 이상 3혈에서 피를 뽑으면 좋다.
다만 랜싯(lancetta)으로 찌어서 피를 뽑아야 한다.

又甚重キ症ハ肩或ハ二椎三椎ノアタリヲ、小刀或カミソリニテ一寸許切サキテ
血ヲ出スヘシ.如此セザレハ即死スルモノナリ.

| 또 몹시 위중한 증세에는 어깨 혹은 2추·3추 부근을 작은 칼이나 면도칼로 1
치 가량 찢어서 피를 내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죽게 된다.

喉痺 후비

にわかにのんどのはれふさがる.

| 갑자기 목구멍이 부어서 막히는 것이다.

溫溜(三分) 天突(一分) 合谷(五分) 可刺.

| 온류(3푼) 천돌(1푼) 합곡(5푼)에 자침한다.

鬼當 少商(各一分) 血ヲ取.

| 귀당 소상(각 1푼)에서 피를 뽑는다.

癱瘓(てんかん) 전간

鳩尾(五分、下エフセテ) 百會(三分) 中腕(八分)

| 구미(5푼.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자침한다) 백회(3푼) 중완(8푼)

卒中風、不知人事、牙關緊急(そつちう風、正たいなく、はをくひしめたる人)
갑작스런 중풍으로 인사불성이 되어 이를 악다문 경우.

人中(二三分) 臨泣(二分) 合谷(三分五分)

| 인중(2-3푼) 임읍(2푼) 합곡(3-5푼)

中魚毒(うのどくにあたる) 생선 독에 중독된 경우.

中腕(八分) 梁門(一寸)

중완(8푼) 양문(1치)

河豚毒(ふくのどくにあたる) 복어 독에 중독된 경우.

尺澤(三分) 少商(一分) 鬼當(一分) 以上血ヲ取.

척택(3푼) 소상(1푼) 귀당(1푼) 이상의 혈에서 피를 뽑는다.

痰厥、昏昧卒倒(たんつまりて急にたおれたる) 담궐로 정신이 흔미해져 졸도한 경우.

關元(一寸) 氣海(八分) 臨泣(二分) 涌泉(五分)

관원(1치) 기해(8푼) 임읍(2푼) 용천(5푼)

小兒驚風(きやうふう) 소아경풍

風門 脾俞(各十四壯灸スヘシ) 甚妙ナリ.

풍문 신수(각각 14장 뜸을 뜯다) 신묘한 효험이 있다.

心腹卒痛、自汗出者(むねはら急にいたみ、あせのいつるに) 명치가 갑자기 아프고 자한(自汗)이 나는 경우.

間使(五分) 神門(四分) 列缺(三分) 甚者大敦ノ血ヲ出スヘシ.

간사(5푼) 신문(4푼) 열결(3푼) 심한 경우에는 대돈에서 피를 뽑는다.

喘促急迫(ぜんそく、かたにていきする人) 숨이 가쁜 경우.

湧泉(五分) 勞宮(二分) 甚妙なり.

용천(5푼) 노궁(2푼) 신묘한 효험이 있다.

灸肺俞.

폐수에 뜸을 뜯다.

轉筋脚氣(かつけ、すじのつまる人に) 근이 뒤틀리는 경우와 각기.

承山(直五分)

승산(5푼 깊이로 직자한다)

中風足麻痺痿弱、不覺痛痒 중풍으로 다리가 마비되고 힘이 없으며 통증이나 가려움을 모르는 경우.

中風、手足しびれ、なへたる人

중풍으로 팔다리가 마비되고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

風市ノ外二寸、亦上エニ寸ノ處、足ノ三里ノ外二寸ノ處.

풍시에서 바깥으로 2치, 위쪽으로 2치 떨어진 곳과 족삼리에서 바깥으로 2치 떨어진 곳.

慢驚風、搐搦反張、熱少者(まんきやうふうそりがへりたる小兒) 만경풍으로 경련이 일고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나 열이 적은 소아의 경우.

中腕(五分) 委中(三分) 泉生足(二分)

증완(5푼) 위중(3푼) 천생족(2푼)

省目 작목

日くれかたより目のみへぬもの

해질녘부터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

少商 血ヲ出ス.但ランセツタニテハ子切テヨシ.

소상에서 피를 뽑는다. 다만 랜싯(lancetta)으로 찍으면 좋다.

疗 정(疔)

面の内、手足にせつの出もの

얼굴이나 손발에 부스럼이 난 것

大事ノ症ナリ.手足或鼻ノ下ニ小ク出テ初カユク、サティタミテ一日ノ中ニモ死スルモノアリ.急ナルモノナリ.

심각한 증상이다. 손발이나 코 아래에 조그마하게 나는데 처음에는 가렵다가 나중에는 아프며 하루 안에 죽는 경우도 있다. 위급한 증상이다.

頸項ヨリ上ミ及手ハ、先其發スル所ニ針シテ血ヲトリ、列缺ノ上ミ三寸陷中ニ灸三五壯.妙ナリ.

목 위쪽과 손에 생긴 경우에는, 우선 정(疔)이 생긴 곳에 침을 놓아 피를 뽑고, 열결에서 위쪽으로 3치 떨어져 움푹한 곳에 3-5장 뜸을 뜯다. 신묘한 효험이 있다.

金瘡氣附鍼(刀にてきられし人のきつけ) 칼에 베어 기절한 경우에 깨어나게 하는 침.

勞宮(二分或一寸) 百會(二分) 關衝(二分)

노궁(2푼 혹은 1치) 백회(2푼) 관충(2푼)

金瘡瘀血、逆上攻心狂氣者(きりきずの悪血せめのぼり、氣のちがう人) 칼에 베어 생긴 어혈이 위로 거슬러 올라 심을 치받아 미친 경우.

百會(二分) 足三里(五分) 合谷(三分或五分)

백회(2푼) 족삼리(5푼) 합곡(3푼 혹은 5푼)

陰丸打撲絶氣者(きん玉を打て氣を失う人) 음낭을 얻어맞아 기절한 경우

必ス陰囊ニ赤筋アルナリ.其集リタル根ニ唐茴香ヲ粉ニシテ、ツワニテ堅メ敷テ
、其上ニ灸三五壯、關元七壯.

반드시 음낭에 적근(赤筋)이 생긴다. 그것이 모여 있는 뿌리 부분에 회향을 가루 내어 침으로 반죽하여 단단히 붙이고 그 위에 3-5장 뜸을 뜨고, 관원에 7장 뜸을 뜬다.

小便閉悶絶者(小便つまりの人) 소변이 막혀 답답하여 기절한 경우

先鹽一二舛湯ニ煎シテ大ダライニ入テ腰湯ヲサセテ、サテ蒲團ニ寐サセテ四滿



ノ穴(但臍下二寸ノ傍五分ノ處ナリ)鍼先ヲ兩方ヨリ内ニテ
ルヤウニ刺ヘシ.但深ク刺テヨシ.其後委陽(尻ノヨコ文ヨリ六寸下ナリ)五分可刺.
如此ニナ

(若孕婦ハ委陽ノ穴ハカリ刺ヘシ)

소금 1-2되를 끓는 물에 달여 큰 대야에 넣고 반신욕을 시킨다. 그리고 이불에 눕힌 뒤 사만혈(배꼽에서 아래쪽으로 2치 떨어진 곳에서 양옆으로 5푼 떨어진 곳이다)에 침끝을 양쪽에서 안쪽으로 그림과 같이 하여 찌르는데, 깊게 찔러야 좋다. 그 후에 위양혈(엉덩이 횡문에서 아래쪽으로 6치 떨어져 있다²)에 5푼 찌른다.(임산부의 경우에는 위양혈만 찔러야 한다)

香酸刺心(むねのやく人) 신물이 올라와 가슴을 자극하는 경우.

泉生足(一分、足ノ中指ノ兩フシノ正中、若甚則灸スヘシ.)

천생족(1푼, 가운데 발가락의 두 관절의 가운데이다. 심할 경우에는 뜸을 뜨는 것이 좋다.)

惡痘瘡血熱甚者 악증의 두창으로 혈열(血熱)이 심한 경우

あしきとうさうに血をとるべきこと

악증의 두창으로 피를 뽑아야 하는 경우

其小兒ノ中指ノ中ノ折一折ヲ取、夫ヲ三折分委中ノ横文ニアテヽ盡ル所ヲランセツタニテハ子切テ血ヲ取ヘシ.但痘瘡コヽカシコニ出ル時分ニ行フテヨシ.遲ケレハ益ナシ.

소아의 가운데 손가락의 가운데 마디를 1마디로 삼는다. 그 3마디 길이를 위증의 횡문에 대었을 때 끝나는 곳을 랜싯(lancetta)으로 찔어서 피를 낸다. 다만, 이 치법은 두창이 여기저기 날 무렵에 시술하는 것이 좋으며, 늦게 시술하면 이익 될 것이 없다.

登高落絶氣者(高き所より落て氣を失ふ) 높은 곳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은 경우

廉泉(五分) 勞宮(八分) 但此時許八分刺ヘシ. 常ニハ深ク刺ヘカラス.

염천(5푼) 노궁(8푼) 다만 이러한 경우에만 8푼을 자침할 수 있다. 평소에는 깊게 자침해서는 안 된다.

休息痢 휴식리

けりひやう

만성 이질

氣海(八分) 天樞(五分) 甚者灸スヘシ.

기해(8푼) 천추(5푼) 심한 경우에는 뜰을 띠야 한다.

胸痛口噤者(むねいたみてとりつめたる人) 가슴이 아파 이를 악다문 경우

大陵(八分) 神門(三分) 期門(四分) 各刺ヘシ.

대릉(8푼) 신문(3푼) 기문(4푼) 각각 이상과 같이 자침한다.

鵝掌風 아장풍

うらむしにて手のひらの皮のむけ、さけなとするに

내부의 충(蟲)으로 손바닥이 벗겨지고 갈라지는 경우

間使(灸七壯)

간사(7장 뜰을 뜯다)

腹痛(はらのいたみ) 복통

建里(八分) 三陰交 大衝(三分) 大白 大淵(二分) 大陵(八分)

건리(8푼) 삼음교 태충(3푼) 태백 태연(2푼) 대릉(8푼)

又阿是問答ノ法ヲ用ヘシ.

또 아시문답의 방법을 쓸 만하다.

又方(はらのいたみ) 복통의 또 다른 처방

臍上痛者 中腕(八分) 豐隆(五分)

배꼽 위쪽이 아픈 경우 중완(8푼) 풍룡(5푼)

臍下ハ 三陰交(三分) 階陵泉(五分)

배꼽 아래쪽이 아픈 경우 삼음교(3푼) 음릉천(5푼)

食傷(しょくあたり) 식상

中腕 天樞(八分) 梁門(一寸) 公孫(四分)

중완 천추(8푼) 양문(1치) 공손(4푼)

欲吐 中腕(八分)

토하려 하는 경우 중완(8푼)

灸脾俞(十一) 三里

비수에 11장 뜸을 뜨고 삼리에 뜸을 뜯다.

積聚(しゃくつかへ) 적취

章門 期門(六分) 關元(一寸或二寸)

장문 기문(6푼) 관원(1치 혹은 2치)

灸肺俞 禺俞 七 脾俞 三 焦俞 十三

폐수 격수에 7장, 비수 삼초수에 13장 뜸을 뜯다.

又方(しゃくつかへ) 적취의 또 다른 처방

天樞 中脘(一寸)

천추 중완(1치)

凡積ノ正中ヲ刺ヘカラス.其動スル物ヲ除テ其傍ヲ刺ヘシ.

적취의 한가운데를 찔러서는 안 된다. 그 움직이는 것을 제거하고 그 옆에 자침해야 한다.

胃脘痛 위완통

むねよりへその上いたむ人

가슴부터 배꼽 위까지가 아픈 경우

肝俞(三分) 脾俞(三分) 足三里(五分)

간수(3푼) 비수(3푼) 족삼리(5푼)

心下痞悶不食(むねの下つかへてふしょくする人) 가슴이 막히고 답답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湧泉(五分) 大白(三分) 大陵(八分) 神門(三分)

용천(5푼) 태백(3푼) 대릉(8푼) 신문(3푼)

胸痛(むねのいたみ) 胸통

中腕 巨闕(八分) 章門(六分) 但シ吐法ヲ以テ痰ヲ吐スヘシ.

| 중완 거궐(8푼) 장문(6푼) 단 토법을 써서 담을 퇴해내야 한다.

齶胃 번위

食物をはくやまひ

| 음식을 퇴해내는 병

下腕(八分) 足三里(五分) 胃俞(三分) 脊俞(三分)

| 하완(8푼) 족삼리(5푼) 위수(3푼) 격수(3푼)

腹脹硬或小腹堅(ふかみかたく、おしてはらはりたる人) 배가 딴딴히 불러오거나
아랫배가 딴딴해지는 경우

中腕(八分) 三陰交 大谿(三分) 脾俞(三分)

| 중완(8푼) 삼음교 태계(3푼) 비수(3푼)

背痛(せのいたみ) 등이 아픈 경우

委中(五分) 承山(七分) 崑論(三分五分)

| 위중(5푼) 승산(7푼) 곤륜(3-5푼)

肩痛 견통

かたのいたみ

어깨가 아픈 경우

肩髃(手ヲアケテクホム所) 曲池(各一寸) 合谷(三分五分)

견우(손을 들었을 때 움푹한 곳) 곡지(각 1치) 합곡(3-5푼)

臂痛 비통

ひじのいたみ

팔꿈치가 아픈 경우

肩髃(一寸) 手ノ三里(五分)

견우(1치) 수삼리(5푼)

腕痛 완통

うてのいたみ

팔이 아픈 경우

陽池(手ノ甲ノ横文ノクボミ、三分) 腕骨(手ノ外クロフシノ骨ノキワ、三分) 手ノ三里(五分)

양지(손등 횡문의 움푹한 곳. 3푼) 완골(바깥쪽 손목뼈의 가장자리 부분. 3푼)
수삼리(5푼)

頸項攣痛(くびすしひきつりいたみ) 목이 땅기면서 아픈 경우

風池(三分) 風府(三分)

풍지(3푼) 풍부(3푼)

痢病 이질

赤なめ、白なめ、しぶりはら

적리(赤痢)나 백리(白痢)로 뱃속이 무지근한 경우

中腕(八分) 天樞(五分) 關元(一寸)

중완(8푼) 천추(5푼) 관원(1치)

又以燒鹽填臍中、灸一二百壯.

또 구운 소금으로 배꼽을 메우고 100-200장 뜸을 뜯다.

又極效ノ方 효험이 몹시 좋은 또 다른 이질 처방

中腕(一寸) 天樞(一寸五分) 腰眼(五分) 痢根(一寸二分)

중완(1치) 천추(1치 5푼) 요안(5푼) 비근(1치 2푼)

泄瀉 설사

石門(五分) 四滿(四分) 中腕(八分) 天樞(五分)

석문(5푼) 사만(4푼) 중완(8푼) 천추(5푼)

裏急後重 뱃속이 땅기고 뒤가 무지근한 경우

しぶりはら、いきみでも通ぜぬ人

뱃속이 무지근하며 배에 힘을 주어도 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氣海(八分、臍下一寸五分ノ所) 關元(臍下三寸ノ所、一寸)

기해(8푼. 배꼽에서 아래쪽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관원(배꼽에서 아래쪽으로 3치 떨어진 곳. 1치)

嘔逆(からえづき) 구역

內關(五分) 關元(一寸)

내관(5푼) 관원(1치)

灸胃俞(十二) 三里

위수(12장) 삼리

頭痛(ずつう) 두통

百會 通天(二分) 印堂(三分.針ヲ下エフセテ刺ヘシ) 風池(三分) 風府(三分) 足ノ
三里(五分)

백회 통천(2푼) 인당(3푼. 침끝을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자침해야 한다) 풍지
(3푼) 풍부(3푼) 족삼리(5푼)

腰痛(こしのいたみ) 요통

委中(五分) 膀胱俞(三分.背十九椎開二寸)

위중(5푼) 방광수(3푼. 제19추에서 양옆으로 2치 떨어진 곳에 있다)

咳嗽(せき、しわぶき) 해수

前谷(一分) 曲澤(三分) 育膏(五分)

전곡(1푼) 곡택(3푼) 고황(5푼)

灸肺俞三 肝俞 九

폐수에 3장, 간수에 9장 뜸을 뜯다.

咳血 해혈

せきに血のましる人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風門(三分) 尺澤(三分) 足ノ三里(五分)

풍문(3푼) 척택(3푼) 족삼리(5푼)

吐血 토혈

血をはく人

피를 토하는 경우

神門(三分) 中脘(一寸) 關元(一寸三分) 三里(五分)

신문(3푼) 중완(1치) 관원(1치 3푼) 삼리(5푼)

衄血 육혈

はな血いつる人

코피가 나는 경우

齒門(四分) 尺澤(三分) 足三里(五分) 合谷(三分五分)

아문(4푼) 척택(3푼) 족삼리(5푼) 합곡(3-5푼)

下血(血のくたる人) 하혈

石門(五分) 天樞(八分) 百會(二分) 委中(五分) 三陰交 隱白(三分)

석문(5푼) 천추(8푼) 백회(2푼) 위중(5푼) 삼음교 은백(3푼)

口舌生瘡(口中又したにかさいつる人) 입속과 혀에 창(瘡)이 생기는 경우

勞宮(二分) 合谷(三五分) 甚則血ヲ取テ甚妙ナリ.

노궁(2푼) 합곡(3-5푼) 심한 경우에는 피를 뽑으면 매우 좋다.

黃疸(おうたん) 황달

中脘(八分) 梁門(一寸)

중완(8푼) 양문(1치)

腰痛 요통

せんきのこしのいたみ

산증(疝症)에 의한 요통

委中(五分) 膀胱(三分)

위중(5푼) 방광수(3푼)

又八竅ノ穴ヲ灸スヘシ.

또 팔료혈에 뜸을 뜯다.

瘧疾 학질

ぎやく、おこり、舊わらはやみと云

예전에는 동자병(童子病)이라 불렀다

章門(六分) 京門(一寸)

장문(6푼) 경문(1치)

若シ二日ニ一發ノ人ニハ加後谿(一分)申脉(三分)三里(五分)也.

이틀거리의 경우에는 후계(1푼) 신맥(3푼) 삼리(5푼)을 더해준다.

截瘻 학질을 끊는 법

おこりをきるにさすへき妙術

학질이 끊을 때 자침할만한 묘술이다

隱白(一分) 少商(一分) 章門(七分) 大椎(正中、五分) 各各平旦ニ刺スベシ.

은백(1푼) 소상(1푼) 장문(7푼) 대추(한가운데. 5푼) 각각 동 트기 전에 자침 해야 한다.

眩暈 현훈

めまひ

어지럼증

上星 風池 天柱(三分) 足三里(五分)

상성 풍지 천주(3푼) 족삼리(5푼)

淋病(りんひやう) 임병

膀胱(三分) 關元(一寸) 腎俞(三分) 小腸俞(三分)

방광수(3푼) 관원(1치) 신수(3푼) 소장수(3푼)

遺精 유정

路せつする人

유정의 양이 많은 경우

十四椎背骨ヲ去ルコト三行通リヲ灸スルコトニニ二七壯或三七壯.

제14추와 그곳에서 떨어진 양옆이 가로로 1열이 되도록 한 뒤, 이 3곳에 14장 혹은 21장 뜰을 뜯다.

脚氣(かつけ) 각기

風池(三分) 風市 陰市(四分) 三里(五分) 絶骨 陽陵(各六分)

풍지(3푼) 풍시 음시(4푼) 삼리(5푼) 절골 양릉(각 6푼)

水腫 수종

しゆき、はれやまひ

종기. 붓는 병

臍ノ傍四穴.
○ ▲ ○
○ ○

배꼽 옆의 4혈.

同身寸二寸二分ツヽ臍ヲ去テ四穴ナリ.可刺、或灸スヘシ.

배꼽으로부터 동신촌으로 2치 2푼씩 떨어져 있는 4혈이다. 이곳에 침을 놓아
도 좋고 뜰을 띠도 좋다.

關元(一寸) 三陰交(三分) 但シ腫ノ多少ニ依テ刺ニ淺深アリ.

관원(1치) 삼음교(3푼). 다만 종기의 다소에 따라 자침의 깊이에 차이를 둔다.

又灸鬲俞 肝俞 脾俞.

또 격수 간수 비수에 뜰을 뜯다.

水腫遍身滿者(水しゆ總身はれたる) 수종(水腫)으로 온몸이 부은 경우

天樞(五分) 梁門(一寸) 關元(一寸五分)

천추(5푼) 양문(1치) 관원(1치 5푼)

眼目(めのやまひ) 눈병

凡眼或ハ腫テ 赤ク痛、亦赤肉眼中ニ出テ目ヤニ多爛ル等ノ症ハ、血ヲトリハリ
シテヨシ.其外ハ血ヲ取ルカレ.

눈이 혹 부어서 눈꺼풀이 벌겋게 되어 아프고, 벌건 살이 눈 속에 생겨 눈곱이
많아 짓무르는 등의 증상에는, 피를 뽑고 침을 놓으면 좋다. 이외의 증상에는
피를 뽑아서는 안 된다.

灸肝俞 脾俞 三里.

간수 비수 삼리에 뜰을 뜯다.

眼中血多痛或爛眩者(目の内血の多き人、又ただれ目) 눈 속에 피가 많이 몰려서
아프거나 짓무르고 어지러운 경우

百會 瞳子竅(二分) 上星(四分.後へフセテ) 臨泣(二分) 合谷(三五分)

백회 동자료(2푼) 상성(4푼. 뒤쪽을 향하게 하여 자침한다) 임읍(2푼) 합곡
(3-5푼)

陰丸腫、便毒、下疳、玉莖腫(よこね、かんそう、くきのはれたる人) 음환종、
변독、하감、음경종

橫骨(一寸.臍下四寸ノ傍相去ノ一寸五分ツヽノ處)

횡골(1치. 배꼽에서 아래쪽으로 4치 떨어진 곳에서 양옆으로 각각 1치 5푼 떨어진 곳에 있다)

面瘡(かおの内のもの) 면창

勞宮(二分) 或少血ヲトルヘシ.

노궁(2푼) 혹은 피를 약간 뽑아낸다.

溺死(水におぼれたる人) 익사

先醋ヲ口中エ入テ置、鳩尾深ク刺テ水ヲ吐サスレハ生ルナリ.常ニハ鳩尾ヲ深刺ノナカレ.鍼ヲ仆テスヘシ.

우선 식초를 입속에 부어 넣고 구미를 깊게 자침하여 물을 토해내게 하면 살아난다. 평소 때에는 구미를 깊게 자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침은 뉘어서 놓아야 한다.

難產 난산

なんさん甚妙なり.必ずくうへし

난산에 신묘한 효험이 있다. 이 치법을 쓰면 반드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關元(臍下三寸) 如此深二寸或三寸、人ノ肥ヤセニヨリテ可刺.必ウム
ナリ.

관원(배꼽에서 아래쪽으로 3치 떨어진 곳) 관원을 중심으로 그림과
같이 자리를 잡아서 2치 혹은 3치의 깊이로 자침하되, 환자가 살쪘는지 마른지
에 따라 침의 깊이를 정한다. 이 치법을 쓰면 반드시 아이를 낳는다.

又方 난산을 치료하는 또 다른 처방

是を陽龍の傳という.人をすくう事たびくなり、必ずくうへし

이것을 '양용(陽龍)'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
니 반드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十四椎開(二行通り)二穴 十五椎開(同)二穴、可刺、妙也.

제14추에서 횡으로 나란한 양옆의 2혈과 제15추에서 횡으로 나란한 양옆의 2
혈에 침을 놓는다. 신묘하다.

阿蘭陀人口授秘藥 네덜란드인에게서 전수된 묘약

甚妙劑なり、まことに日本の寶とおもふなり

신묘한 약이다. 진정 일본의 보배로 여길 만하다

サフラン(五分細末) 肉桂(一耄) 右二味細末、別ニ白ユリノ花ヲ二匁、如常煎シ
テカスヲ去、右ノ細末ヲカキ立、茶碗八分目用ヘシ.即時ニウムナリ.

사프란³ (5푼. 곱게 가루 낸 것) 육계(1돈) 이상의 2가지 약재를 곱게 가루 낸다. 따로 백합의 꽃 2돈을 준비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달인 뒤 찌꺼기를 제거하고, 앞의 2가지 약재 가루를 넣고 거품이 나도록 휘저어 찻잔으로 8할을 담아서 먹인다. 그러면 바로 아이를 낳게 된다.

治例 : 死胎ヲ下シ、難產ヲ下シ、胞衣ヲ下ス.

치험례 : 사태(死胎)를 나오게 하고, 난산을 해결하고, 포의를 나오게 한다.

產後血暈氣附 산후의 혈흔에 정신을 들게 하는 방법

さんこのむりしたる時

산후에 무리를 한 경우

湧泉(五分) 中衝(二分) 勞宮(二分三分)

용천(5푼) 중충(2푼) 노궁(2-3푼)

又方、血暈及因瘀血狂氣者(おけつの症、氣のちかう人) 또 다른 처방. 혈흔이나 어혈로 인해 미친 경우

合谷(四分) 三里(五分) 百會(二分.後エ仆テ) 三陰交(三分)

합곡(4푼) 삼리(5푼) 백회(2푼. 뒤쪽을 향하게 하여 뉘어서 놓는다.) 삼음교(3푼)

產後惡露不下胸腹痛妨悶者(おけつよく下りかねて、むねはらいたむ人) 산후에 오로가 나오지 않아 가슴과 배가 아프고 막히면서 답답한 경우

關元(一寸或一寸五分) 三陰交(三分)

관원(1치 혹은 1치 5푼) 삼음교(3푼)

臍下結塊如伏杯者 배꼽 아래에 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덩어리가 진 경우

へその下のかたまり、手にあたる事こぶし入ることし

배꼽 아래에 덩어리가 지되 손으로 만져보면 주먹을 넣은 것 같은 경우

間使(五分.或灸) 大谿(灸三壯.ハリ三分) 三陰交(三分.灸三壯)

간사(5푼. 혹은 뜰을 뜯다) 태계(3장 뜰을 뜯다. 침을 놓을 경우는 3푼) 삼음
교(3푼. 뜰을 뚫 경우는 3장)

婦人腰痛甚小便澁者(女こしいたみて小へんしふる人) 부인이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胞肓(背十九椎開三寸ノ處.鍼五分) 或灸五十壯.

포황(제19추에서 양옆으로 3치 떨어진 곳. 침을 5푼 깊이로 놓는다.) 혹은 50
장 뜰을 뜯다.

經閉作塊者(月やくととこおりてかたまりになる人) 월경이 막혀 덩어리가 진 경우

關元(一寸.若久不愈者、灸三十壯、一ヶ年三度)

관원(1치. 오랫동안 낫지 않은 경우에는 1년에 3차례 30장씩 뜰을 뜯다)

霍亂嘔吐者 곽란구토

かくらん、はくことしけく、からえづきある人

곽란으로 심하게 토하며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

支溝(五分)

지구(5푼)

霍亂吐瀉者
각란토사

かくらん、はきたり下したりする人

각란으로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

支溝(五分) 尺澤(三分) 三里(五分) 大白(三分)

지구(5푼) 척택(3푼) 삼리(5푼) 태백(5푼)

乾霍亂無吐瀉而唯悶絕者
(かくらん、吐も瀉もなく、もんせつする人)
건각란으로 토하거나 설사를 하지는 않지만 답답하여 기절하는 경우

委中(五分.刺テ早ク血ヲ出スヘシ)

위중(5푼. 자침하여 빨리 피를 내야 한다)

加鍼 脍上痛者加三里(五分) 脍下ハ加陰陵泉(五分) 俠臍痛者加上廉(三分) 引腰痛ハ加大白(三分) 心腹脹滿ハ加內庭 絶骨(各三分) 轉筋ニハ加至陰(一分)

배꼽 위쪽이 아픈 경우에는 삼리(5푼)에 추가로 자침하고, 배꼽 아래가 아픈 경우에는 음릉천(5푼)에 추가로 자침하고, 배꼽을 둘러싸고 아픈 경우에는 상령(3푼)에 추가로 자침하고, 허리가 땅기면서 아픈 경우에는 태백(3푼)에 추가로 자침하고, 명치가 창만한 경우에는 내정·절골(각 3푼)에 추가로 자침하고, 근이 뒤틀리는 경우에는 지음(1푼)에 추가로 자침한다.

霍亂以取吐爲先
(かくらんは、はやくはきてよき事)
건각란(乾霍亂)에는 우선 토하게 해야 한다

湯ト水ト等分ニシテ溫キ塩湯ニシテ、椀モ三ワンモ用吐シテヨシ.是上策ナリ.其後症ニ隨テ可藥治也.

끓인 물과 찬 물을 같은 비율로 해서 따뜻한 소금물을 만들어 찻잔으로 3잔을 먹여 토하게 하면 좋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이후에는 증상에 따라 약으로 다스려야 한다.

陰煩者一曰離魂病 이혼병(離魂病, 혼이 떠나간 병)이라고도 하는 음번(陰煩)

何となくもたえて死せんとする人

이유없이 갑갑하여 죽을 것만 같은 경우

大椎(正中.五分、ハリサキ上へ向テ)

대추(한가운데, 5푼 깊이로 침끝이 위쪽을 향하게 하여 놓는다)

縊死者(くひをくくりて死する人) 목매달아 죽은 경우

先ソロソロト抱キヲロシテ介抱、人三四人ニテ抱テ、能床ニ臥サセテ後、陽陵泉ヲ刺(瀉法)、其次ニ間使 陽池ヲ刺.

우선 서서히 그 사람을 껴안아서 내리고 부축한 다음, 3-4인이 안고서 침상에 잘 눕힌다. 다음으로 양릉천에 자침(사법)하고, 그 다음으로 간사 양지에 자침 한다.

盜汗 도한

ねあせいつる人

자면서 식은땀이 나는 경우

腰ヨリ上汗アル者ハ陰都 間使.腰ヨリ下汗アル者關元 天樞(各一寸).

허리보다 위쪽에서 땀이 나는 경우에는 음도 간사에 자침한다. 허리보다 아래 쪽에 땀이 나는 경우에는 관원 천추(각 1치)에 자침한다.

筋急 근급

あしの筋引つる人

다리의 근이 땅기는 경우

陽陵泉(六分) 三陰交(三分) 公孫(五分) 崑崙(三分)

양릉천(6푼) 삼음교(3푼) 공손(5푼) 곤륜(3푼)

膝下痛 公孫(三分) 崑崙(三分)

무릎 아래가 아픈 경우. 공손(3푼) 곤륜(3푼)

膝上痛 陽陵泉(六分) 三陰交(四分)

무릎 위가 아픈 경우. 양릉천(6푼) 삼음교(4푼)

諸病欲取吐則可刺事〔諸病吐せたく おもふ時〕 온갖 병에 토하려고 할 때의 자침

中腕(一寸) 大祖(ハリ先上エ向テ三分) 陽谷(一分) 若不效則三里(足) 鳩尾.

중완(1치) 태조(침끝을 위쪽을 향하게 하여 3푼) 양곡(1푼) 이렇게 하여 효험 이 없다면, 족삼리 구미에 자침한다.

嘔吐 구토

からゑづき、或は物をはく人

헛구역질하거나 무언가를 토하는 경우

鳩尾(針ヲ下ヘフセテ) 關元(一寸) 三里(五分)

구미(침끝을 아래쪽을 향하게 한다) 관원(1치) 삼리(5푼)

不效ハ下腕 胃俞ヲ刺ヘシ.又不效ハ中腕ヲ刺ナリ.

이렇게 하여 효험이 없다면, 하완 위수에 자침한다. 이렇게 하여도 효험이 없다면, 중완에 자침한다.

痰厥欲絶、痰胸膈塞昏迷者(なんのはりて死なんとする人) 담궐로 혼절하려고 하거나 담이 흉격을 막아 정신이 혼미한 경우

中府(五六分.甚者一寸半) 但シ能其俞ヲ揉テヨシ.禁穴ノ故也.

중부(5-6푼.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1치 반) 다만 그 수혈을 잘 문질러 자침해야 한다. 금혈(禁穴)에 속하기 때문이다.

大便閉 대변폐

大へんつまりて、又久しくせぬ人

대변이 막히고 또 오랫동안 대변을 보지 못한 경우

關元(二寸) 痛根(一寸二分)

관원(2치) 비근(1치 2푼)

遺尿 유뇨

ねしやうべん、又さしきにてもらす人

자면서 소변이 나오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변이 세는 경우

先診其腹、腹偏ニノ不平モノナリ.其高方ノ天樞 梁門 陰都ヲ刺ヘシ.兩方 **天**ニ平
ナラハ中極ノ穴ヲ灸七壯.若不治モノハ復灸之.又氣海(八分)大敦(三分)灸針ト
モニヨシ.

우선 환자의 배를 진단하면 배 한 쪽이 평평하지 않다. 배에서 높이 올라온 쪽
에서 천추 양문 음도를 자침한다. 배의 양쪽 모두 평평하다면 중극혈에 7장 뜸
을 뜯다. 만약 낫지 않는다면, 다시 그곳에 뜸을 뜨고, 또 기해(8푼) 대돈(3푼)
에 뜸을 뜨거나 침을 놓는다.

早瘡 조창

はやくさとて、大せつの症なり

창(瘡)이 갑자기 생겨나 위중한 증상이다

手足或頭面、胸背ニ發シテ煩悶、腹張、其熱火ノ如ク、痛不可忍.毒氣入裏則小
腹、陰丸脹、又黒色面上ニ生スル者ハ死.早ク横ニ切サキテ血ヲトルヘシ.

창이 손발이나 머리와 얼굴, 가슴과 등에 나서 갑갑하고 배가 창만해지며 불처
럼 열이 나고 아파서 참을 수 없다. 독기가 속으로 들어가면 아랫배와 고환이
창만해지는데, 또 얼굴에 검은색이 나는 경우에는 죽게 된다. 급히 창(瘡)을 가
로로 절개하여 피를 내야 한다.

子癇 자간

母のはらの内にて子が狂ふて氣を失ふなり

뱃속의 태아가 미쳐서 산모가 정신을 잃는 경우

巨闕(六分) 合谷(補法、四分) 三陰交(瀉法、四分)

거궐(6푼) 합곡(보법으로 4푼) 삼음교(사법으로 4푼)

陰臭 음취

女のまえのくさきはたびたびさしてよし

| 여자의 음부에서 악취가 날 경우에는 자주 침을 놓으면 좋다

大敦(三分) 大陵(八分) 中衝(二分) 行間(三分)

| 대돈(3푼) 대릉(8푼) 중총(2푼) 행간(3푼)

內下疳、壘中痛 음부의 하감창으로 음경이 아픈 경우

ウミ出ルなり。りんびやうとハちかふなり

| 고름이 나온다. 임병(淋病)과는 다른 것이다

石門(五分) 關元(一寸) 氣海(八分) 曲骨(六分) 大敦(二分.血ヲ出ス) 僕參(灸三壯)

| 석문(5푼) 관원(1치) 기해(8푼) 곡골(6푼) 대돈(2푼. 피를 낸다) 복삼(뜸을 3장 뜯다)

癩病(さんびやう、かつたいともいふ) 나병

人中(二三分) 肩井(四分) 尺澤(各三陵針ヲ以テ血ヲトル.三分)、又加委中。

| 인중(2-3푼) 견경(4푼) 척택(3푼. 각각 삼릉침으로 피를 낸다). 위중을 추가 하기도 한다.

或面部手足 ~~ニ~~ニフシダチタル所ハ皆刺テ血ヲトルナリ。

| 혹은 얼굴과 손발의 울퉁불퉁해진 곳은 모두 자침하여 피를 낸다.

積聚腹張如石、坐臥不安、二便澁、上氣、遍身腫〔しやくしゅうにありて石のことく、小便つふせず、總身はれる人〕 적취로 복부가 돌처럼 창만하여 앓거나 눕는 것이 편안하지 않고 대소변이 막혀 상기되고 온 몸이 붓는 경우

復溜(三分) 三里(五分) 陰陵泉(五分) 上脘(八分) 承滿(三分)

부류(3푼) 삼리(5푼) 음릉천(5푼) 상완(8푼) 승만(3푼)

中寒身無熱、吐瀉腹痛、厥冷如過肘者〔甚しく寒毒にあたりてひへあがりて吐瀉、はらいたむ人〕 중한(中寒)으로 몸에 열이 없고, 토하고 설사하며 배가 아프고, 손 끝에서 팔꿈치 지나서까지 골랭(厥冷)한 경우

咽不渴 陰交 氣海〔各灸スヘシ〕 引衣以身可溫之.

목이 마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교 기해에 뜰을 뜨고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 준다.

中暑口渴或吐瀉〔暑氣にあたりて口かわき、はきくたしする人〕 중서(中暑)로 갈증이 나며, 혹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內關(五分) 三里(五分) 大白(三分) 魚際(一分)

내관(5푼) 삼리(5푼) 태백(3푼) 어제(1푼)

中暑卒倒、角弓反張、手足搐搦〔しよにあたりてそりかへりたる人〕 중서(中暑)로 졸도하고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며 손발에 경련이 이는 경우

風池(三分) 百會(二分) 長強(十一椎下也.三分) 崑崙(三分) 三里(五分)

풍지(3푼) 백회(2푼) 장강(제21추 아래에 있다. 3푼) 곤륜(3푼) 삼리(5푼)

崩血 봉혈

にはかに血かくたりて死んとする人

갑자기 하혈하여 죽을 것 같은 경우

大衝(三分) 氣海(八分) 三陰交(四分) 中極(六分) 大敦(二分)

태충(3푼) 기해(8푼) 삼음교(4푼) 중극(6푼) 대돈(2푼)

瘀血心腹痛不可忍者(ふる血にてむねはらいたむ人) 어혈로 가슴과 배가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경우

委中(血ヲ取) 阿是(但正中ヲ不刺、塊ノ際ヲ可刺)

위중(피를 낸다) 아시혈(단, 한가운데를 찔러서는 안 되고 덩어리진 곳의 가
장자리를 찔러야 한다)

小兒舌瘡 소아설창

子とものしたにかさ出つ時

어린아이의 혀에 창(瘡)이 난 경우

手小指ノ表爪ノキワヨリ血ヲトルヘシ.

새끼손가락의 손톱 끝 가장자리에서 피를 낸다.

小兒夜啼 소아야제

小兒のよなきに

어린 아이가 자다가 우는 경우

中關(二分三分.其兒ノ小大ヲハカリテ刺ヘシ.又灸スヘシ)

| 중관(2-3푼. 그 아이의 크기를 헤아려 자침해야 한다. 또 뜸을 뜯다)

急驚風 급경풍

きうきやう風、目を引つけたるに

| 급경풍으로 눈을 치켜뜨는 경우

中脘(八分) 印堂(二分.仆テ) 幽門(一寸) 章門(六分)

| 중완(8푼) 인당(2푼. 침끝을 뉘어서 놓는다) 유문(1치) 장문(6푼)

死胎, 必脉沈而小腹冷也 사태(死胎)가 있으면 반드시 맥이 침(沈)하고 아랫배가 차갑다

なんさん、死胎をくたすに

| 난산. 사태를 내리는 경우

合谷(三分) 三陰交(五分) 足ノ小ユヒノトカリ灸ハリ  ニヨシ.

| 합곡(3푼) 삼음교(5푼) 새끼발가락의 끝부분에 뜸을 떠도 좋고 침을 놓아도 좋다.

乳腫痛(ちゝのはれたる人) 젖이 붓고 아픈 경우

臨泣(二分) 三里(五分) 神門(三分) 三陰交(四分)

| 임읍(2푼) 삼리(5푼) 신문(3푼) 삼음교(4푼)

吐乳不止(小兒ちゝをはく時) 어린아이가 젖을 계속해서 토하는 경우

中腕(五六分)

중완(5-6푼)

中濕腰背拘急、脚重疼痛〔しつにあたりてこし、せなか、あし引きつりいたむ人〕

중습(中濕)으로 허리와 등이 땅기고 다리가 무거우며 붓고 아픈 경우

風池(三分) 中腕(八分) 絶骨(六分) 風市(四分)

풍지(3푼) 중완(8푼) 절골(6푼) 풍시(4푼)

注夏病 주하병

なつのちびゆう もち

여름에 생기는 병이다

春末夏初、頭眩眼花、腿酸脚軟、五心煩熱、口苦口乾、無力好眠、食少、胸膈不利。

늦봄이나 초여름에 머리가 어지럽고 눈 앞에 꽃 같은 것이 보이며, 다리가 시큰하고 힘이 없으며, 오심번열이 있고 입이 쓰면서 마르며, 기운이 없어 졸고, 식욕이 없어지며 가슴이 시원하지 않다.

膏肓(三分) 肺俞(三分) 患門(三分)

고황(3푼) 폐수(3푼) 환문(3푼)

咽喉塞、三日水穀不通 인후가 막혀 3일 동안 물이나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こうひ二三日薬水ともに通らぬ人

후비(喉痺)로 2-3일 동안 약이나 물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鬼當(一分) 少商 各血ヲトル.

귀당(1푼) 소상 각각에서 피를 낸다.

赤白帶下妙灸(しら血、長血の妙灸) 적대하와 백대하에 좋은 뜸법

患人ヲ竹馬ニ乗セ、督脉ヲ上ルノ五寸ノ所ニ一点、又其開一寸五分ニ
如是取テ、亦其下ニ 如此ニ取り、都六穴ナリ。体虛之人ハ七壯ツヽ、
体實之人ハ十一壯或ハ十四壯。

환자를 죽마(竹馬)에 태우고 독맥 시작점으로부터 5치 되는 곳에 점 하나를 찍고 또 그곳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에 그림과 같이 점을 찍는다. 또 그 아래에 는다. 또 그 아래에 그림과 같이 점을 찍으니, 이렇게 하면 모두 6혈이 된다. 몸이 허한 사람은 7장씩 뜸을 뜨고, 몸이 실한 사람은 11장씩이나 14장씩 뜸을 뜬다.

痢病、脱肛、五痔、下血(しふりはら、でぢ、すべてのぢ、はしりぢ) 이병、탈항、오치、하혈

十二推ノ下灸.甚妙ナリ.

제12추 아래에 뜸을 뜬다. 매우 신묘하다.

瘡腫、雁瘡、諸瘡之事 창종、안창、제창

何ノ處發スルヲ問ハス、凡痒ミアル瘡腫ハ皆ランセツタヲ以テ刺テ血ヲ出スノ
三五度ニ及テ治スルナリ。或ハ三稜鍼ヲ以テ血ヲトリテヨシ。尤ス子クサノルイハ
瘡ノ中或ハ回リヲ亂ニ淺ク刺テ血ヲ出スニシクノナシ。但シカユミ有ルノミニカ
キラズ痛ム瘡モ刺テヨシ。

어디에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가려운 창종은 모두 랜싯(lancetta)으로 찔러서 3-5차례 피를 내면 낫는다. 혹은 삼릉침으로 피를 내도 좋다. 특히 정강이에 나는 창(瘡)의 종류는, 창의 가운데 혹은 그 주위를 얕게 난자하여 피를 내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다만 가려운 것에만 한정하지 말고 통증이 있는 창도 자침하는 것이 좋다.

又打身ノ惡血ノヨリタル所モサシテヨシ.又ウテノ痛ハ尺澤ヲ刺テ血ヲ出シテヨシ.或股其外脚部ノ痛ハ委中ヲ刺テ血ヲトルヘシ.

또 타박상으로 악혈이 모인 곳도 자침하는 것이 좋다. 또 팔이 아픈 경우에는 척택에 자침하여 피를 내는 것이 좋다. 정강이 혹은 그 이외 다리 부위가 아픈 경우에는 위중에 자침하여 피를 내야 한다.

¹. 日腫 : 일본 민간의 속칭으로, 早痃癖, 速痃癖, 內肩, 早打肩(痃癖卒痛), 青筋, 豆クイ 등으로 불렸다. 그 증후는 心痛(厥心痛과 真心痛이 있다)과 유사하며 졸도하거나 어깨와 등이 무겁고 뻣뻣하고 뭉치며, 胸痛, 痫癖卒痛 등의 급작스런 증상을 보인다. 卒厥病, 尸厥, 胸絞發作 혹은 胸絞證(Angina Pectoris)에 비견된다. ↪

². 엉덩이 횡문에서 아래쪽으로 6치 떨어져 있다 :: 《갑을경》에서 "扶承下六寸"이라고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은문(殷門)에 대한 내용이 착간(錯簡)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혈도해략(俞穴圖解略)〉을 보면 위중(委中) 바깥쪽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

³. 사프란 : 붓꽃과(Iridaceae) 사프란(Crocus sativus Linné)의 암술머리 ↪

秘傳之條條(2)俞穴解 비전의 조목들(2)수혈해

尺澤 척택

肘ノ内ノヨコ文ノ中ナリ.圖アリ.

| 팔 안쪽 횡문의 한가운데이다. 그림에 보인다.

少商 소상

手ノ大指ノ内角¹ヲ去ルノ一分.

| 엄지손가락의 안쪽 손톱 모서리에서 1푼 떨어진 곳.

中府 중부

天突ノ下二寸ノ開六寸ノ處.

| 천돌에서 아래로 2치 떨어진 곳에서 양옆으로 6치 떨어진 곳.

二間 이간

圖アリ.

| 그림에 보인다.

三間 삼간

圖アリ.

| 그림에 보인다.

商陽 상양

圖アリ.

그림에 보인다.

合谷 합곡

圖アリ.

그림에 보인다.

手三里 수삼리

曲池ノ下二寸.

곡지에서 아래로 2치 떨어진 곳.

曲池 곡지

手ヲ折テ肘ノヨコ文ノハシ.

팔을 접었을 때 팔의 횡문 끝부분.

肩髃 견우

肩ノツケ根、手ヲ上レハクホム所ナリ.

어깻죽지 부분으로, 팔을 올렸을 때 움푹한 곳이다.

神門 신문

掌後ノ際、中指ト無名指ノ間ノ通リナリ。

손바닥 아래 부분으로, /가운데손가락:〈수혈도해략(俞穴圖解略)〉에는 '새끼손
가락'으로 되어 있다./ 및 약손가락 사이와 나란한 곳이다.

少衝 소충

手ノ小指ノ内ノ角爪²キワサルノ一分。

새끼손가락의 안쪽 모서리의 손톱 끝에서 1푼 떨어진 곳.

前谷 전곡

圖ニミヘタリ。

그림에 보인다.

後谿 후계

圖アリ。

그림에 보인다.

陽谷 양곡

圖アリ。

그림에 보인다.

腕骨 완골

圖アリ。

그림에 보인다.

曲澤 곡택

圖ニミヘタリ.

그림에 보인다.

間使 간사

掌後三寸、兩筋ノ間陷中.

손바닥에서 아래로 3치 떨어진 곳으로, 두 근(筋) 사이의 움푹한 곳.

內關 내관

掌後二寸、兩筋ノ間.

손바닥에서 아래로 2치 떨어진 곳으로, 두 근(筋)의 사이.

勞宮 노궁

圖ニアリ.

그림에 보인다.

中衝 중충

手ノ中指外爪角去一分.

가운데손가락의 바깥쪽 손톱 모서리에서 1푼 떨어진 곳.

關衝 관총

手無名指外爪角一分.

약손가락의 바깥쪽³ 손톱 모서리에서 1푼 떨어진 곳.

關元 관원

丹田  云.臍下三寸.

단전이라고도 한다. 배꼽에서 아래로 3치 떨어진 곳.

中極 증극

臍下四寸.

배꼽에서 아래로 4치 떨어진 곳.

會陰 회음

兩陰ノ間 .

전음과 후음 사이이다.

曲骨 곡골

橫骨上毛際陷中、有動脈.

횡골 위쪽의 털이 난 경계 부위 움푹한 곳 한가운데로, 맥이 뛰는 곳이다.

大杼 대저

一椎下開一寸五分.

제1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風門 풍문

二ノ下.

제2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肺俞 폐수

三.

제3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厥陰⁴ 궤음수

四.

제4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心俞 심수

五.

제5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膈俞 격수

七.

제7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肝俞 간수

九.

제9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膽俞 담수

十.

제10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脾俞 비수

十一.

제11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胃俞 위수

十二.

제12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三焦俞 삼초수

十三.

제13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臀俞 신수

十四.

제14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大腸俞 대장수

十六.

제16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小腸俞 소장수

十八.

제18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旁光俞 방광수

十九.

제19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委陽 위양

臀下大ヨコ紋ヨリ六寸下ニ.

볼기 아래 대횡문에서 아래로 6치 내려간 곳이다.⁵

印堂 인당

兩眉ノ間ノ正中.

| 양미간의 정중앙이다.

鬼當 귀당

手大指ヲ屈、内ノ紋ノ端.

| 엄지손가락을 굽혔을 때 안쪽 횡문의 끝.

魚尾 어미

目尻ノ尽ル處.

| 눈초리의 끝부분.

鼻準 비준

鼻柱ノ曲骨ノ下キワ.

| 콧대의 휙어지는 뼈 아래 부분.

膝膕 슬빈

膝皿大骨ノ下キワ.

| 종지뼈 큰뼈의 아래 부분.

大祖 태조

大椎ノ上ノ小椎.

대추 위의 작은 척추뼈이다.

祕根 비근(痞根)

章門ノ外ノクホミナリ.

장문 바깥쪽의 움푹한 곳이다.

鬼眼⁶ 귀안

圖アリ.

그림에 보인다.

鬼哭 귀곡

手ノ法ノ如シ.

손에 자침하는 방법과 같다.

水目 수목

陰市ノ前一寸.

음시에서 앞쪽으로 1치 떨어져 있다.

氣海⁷ 기해수

十五推下開一寸五分.

15추 아래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져 있다.

大陽 태양

紫脉目尻一分許.

| 눈초리에서 1푼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보라색 핏줄이다.

申脉 신맥

足外クロフシノ下五分.

| 발 가쪽복사에서 아래로 5푼 떨어진 곳.

僕參 복삼

足ノ外クルフシノ下際.

| 발 가쪽복사의 아래 부분.

崑崙 곤륜

足外クロフシウシロノ下キワ.

| 발 가쪽복사 뒤쪽의 아래 부분.

承山 승산

地ヲ去ヘ一尺ノ處.

| 땅에서 1자 떨어진 곳.

委中 위중

ヒカヽミノ中央.

오금의 중앙.

胞肓 포황

十九椎ノ開三寸.

제19추에서 양옆으로 3치 떨어진 곳.

素窈 소료(素髎)

鼻柱ノ上ノ端.

콧대의 위쪽 끝.

人中 인중

鼻柱ノ下二分.

콧대에서 아래로 2푼 떨어진 곳.

神庭 신정

頭ノ中行前ノハエキワヲ入ノ五分.

머리의 한가운데 전발제에서 5푼 들어간 곳.

上星 상성

前ノハエキワヲ入ノ一寸.

전발제에서 1치 들어간 곳.

百會 백회

圖ニアリ.

그림에 보인다.

前頂 전정

上星ノ後二寸.

상성에서 뒤쪽으로 2치⁸ 떨어진 곳.

風府 풍부

後ノハエギハヲ入々一寸.

후발제에서 1치 들어간 곳.

強間 강간

百會ノ後三寸.

백회에서 뒤로 3치 떨어진 곳.

瘡門 아문

後ノハエキワヲ入々五寸⁹.

후발제에서 5푼 들어간 곳.

承漿 승장

唇ノ下ノクボミ.

| 입술 아래의 움푹한 곳.

廉泉 염천

ヲトカイノ下、結喉ノ上.

| 턱의 아래쪽이며 결후의 위쪽.

天突 천돌

咽喉ノ骨ノカケメ.

| 인후에 뼈가 비어있는 부분이다.

膻中 전중

兩乳ノ正中.

| 양쪽 젖의 정중앙.

中庭 중정

膻中ノ下一寸六分.

| 전중에서 아래로 1치 6푼 떨어진 곳.

陰交 음교

臍ノ下一寸.

배꼽에서 아래로 1치 떨어진 곳.

鳩尾 구미

ムナサキ岐骨下五分.

칼돌기¹⁰에서 아래로 5푼 떨어진 곳.

石門 석문

臍下二寸.

배꼽에서 아래로 2치 떨어진 곳.

氣海 기해

臍下一寸五分.

배꼽에서 아래로 1치 5푼 떨어진 곳.

期門 기문

巨闕ノ傍四寸五分.

거궐에서 양옆으로 4치 5푼 떨어진 곳.

俠谿 협계

足ノ小ユヒト藥ユヒノ間岐骨ノ先ノクホミノ中.

새끼발가락과 넷째발가락 사이의 기골 앞쪽 움푹한 곳 가운데.

臨泣 임읍

俠谿ノ前一寸五分.

협계에서 앞쪽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丘墟 구허

臨泣ノ前三寸.

임읍에서 앞쪽으로 3치 떨어진 곳.

懸鐘 현종

足ノ外ケルフシノ上三寸動脈ノ中.

발의 가쪽복사에서 위로 3치 떨어진 곳으로 맥이 뛰는곳.

陽輔 양보

足外踝ノ上四寸、即絶骨ナリ.

발의 가쪽복사에서 위쪽으로 4치 떨어진 곳이니, 곧 절골이다.

陽陵泉 양릉천

足膝ヲ折テ外ノ折目ニ印ヲシテ夫ヨリ一寸下ニ.

무릎을 굽혀서 바깥쪽 횡문에 표식을 하고, 그곳에서 아래로 1치 떨어진 곳이다.

五樞 오추

臍下五寸ノ開三寸五分.

| 배꼽에서 아래로 5치 떨어진 곳에서 양옆으로 3치 5푼 떨어진 곳.

帶脉 대맥

章門下一寸八分.

| 장문에서 아래로 1치 8푼 떨어진 곳.

京門 경문

臍ノ上五寸ノ開九寸五分.

| 배꼽에서 위로 5치 떨어진 곳에서 양옆으로 9치 5푼 떨어진 곳.

肩井 견경

深刻ノナカレ.氣ヲ失フ.若誤則三里ヲサスヘシ.

| 깊게 자침해서는 안 되니, 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자침을 잘못 했다면 삼리에 자침해야 한다.

風池 풍지

耳ノ陰ノ陷ミヲシテコタユル所.

| 귀 뒤쪽의 움푹하게 눌러지는 곳.

瞳子窍 동자료

目ジリヲ去々五分.

| 눈초리에서 5푼 떨어진 곳.

涌泉 용천

足ノヒラ然谷ニ并フ.圖ニアリ.

| 발바닥의 연곡과 나란한 곳이다. 그림에 보인다.

然谷 연곡

足ノヒラ.圖ニアリ.

| 발바닥. 그림에 보인다.

大谿 태계

足内クルフシノ下大骨ノ下ノクボミ動脈ノ中.

| 발 안쪽복사 아래에 있는 큰 뼈 아래의 움푹한 곳으로 맥이 뛰는 한가운데.

四滿 사만

臍ノ下二寸ノ開五分.

| 배꼽에서 아래로 2치 떨어진 곳에서 양옆으로 5푼 떨어진 곳.

陰谷 음곡

曲泉 卜委中ノ正中^ノ~.

곡천과 위중의 한가운데이다.

陰都 음도

中腕ノ旁五分.

중완에서 옆으로 5푼 떨어진 곳.

幽門 유문

巨闕ノ開五分.

거궐에서 양옆으로 5푼 떨어진 곳.

中柱 증주

四滿ノ上一寸、卽臍ノ旁五分ノ下一寸ノ處.

사만에서 위로 1치 떨어진 곳이니, 곧 배꼽에서 양옆으로 5푼 떨어진 곳에서 아래로 1치 떨어진 곳이다.

至陰 지음

足ノ小ユビノ外爪角ヲ去^フ一分.

새끼발가락 바깥쪽 발톱 모서리에서 1푼 떨어진 곳.

束骨 속골

足ノ小ユビノ外本フシノ後際.

새끼발가락의 바깥쪽 본절의 뒤쪽.

京骨 경골

束骨ニナラフ.

속골과 나란한 곳.

外關 외관

圖ニアリ.

그림에 보인다.

陽池 양지

手背橫文ノ內ノクボミ、小ユビト藥ユヒトノ間、本フシノマヘニ.

손등 횡문 안쪽의 움푹한 곳으로, 새끼손가락과 약손가락 사이이며 본절의 앞
이다.

支溝 지구

圖ニアリ.

그림에 보인다.

隱白 은백

足大ユビノ内ノ爪ノ角一分.

엄지발가락 안쪽 발톱 모서리에서 1푼 떨어진 곳.

大都 대도

隱白 ノ後.

은백의 뒤.

大白 태백

大都 ノ後.

대도의 뒤.

公孫 공손

足大ユヒ ノ本フシ ノ前一寸.

엄지발가락 본절에서 앞으로 1치 떨어진 곳.

三陰交 삼음교

圖ニアリ.

그림에 보인다.

乳中 유중

乳中

유중

乳根 유근

乳根

유근

頬車 협거

耳タフヨリ五分下.

귓불에서 아래로 5푼 떨어진 곳.

承滿 승만

上腕ヲ二寸開キ.

상완에서 양옆으로 2치 떨어진 곳이다.

天樞 천추

ホソノ正中ヨリ二寸開.

배꼽 정중앙에서 양옆으로 2치 떨어진 곳.

氣衝 기충

天樞ノ下八寸則歸來ノ下一寸.

천추에서 아래로 8치 떨어진 곳이니, 곧 귀래에서 아래로 1치 떨어진 곳이다.

陰市 음시

ヒサノ前三寸.兩ヒサヲ合テトルナリ.

무릎에서 앞쪽으로 3치 떨어진 곳. 양 무릎을 굽히고¹¹ 취혈(取穴)한다.

豐隆 풍룡

足ノ外踝ノ上八寸.

발의 가쪽복사에서 위로 8치 떨어진 곳.

解谿 해계

圖ニアリ.

그림에 보인다.

衝陽 충양

卽趺陽ナリ.

곧 부양이다.

內庭 내정

足次指ト中指ノ間、本フシノ先ノ陷ミノ中.

둘째발가락과 가운데발가락 사이, 본절 앞의 움푹한 곳 가운데.

大敦 대돈

足ノ大ユビノ外爪角ヲ去ノ一分.

엄지발가락의 바깥쪽 발톱 모서리에서 1푼 떨어진 곳.

行間 행간

足ノ大ユビノ本フシノ前、動脈ノアル所ナリ。

엄지발가락의 본절 앞에서 맥이 뛰는 곳이다.

太衝 태총

足ノ大ユビ本フシノ後、動脈ノ中。

엄지발가락 본절의 뒤에서 맥이 뛰는 곳이다.

曲泉 곡천

膝内輔骨ノ下陷中、横文ノ頭ナリ。

무릎의 **내보골(內輔骨)**¹² 아래 움푹한 곳 가운데로, 횡문의 끝부분이다.

章門 장문

ホソノ上二寸ノ開九寸五分。

배꼽에서 위로 2치 떨어진 곳에서 양옆으로 9치 5푼 떨어진 곳.

1. 内角 : '内爪角'의 의미이다. ↵

2. 角爪 : 爪角 ↵

3. 바깥쪽 : <수혈도해략(俞穴圖解略)>에는 '안쪽'으로 되어 있다. ↵

4. 글자없음 : *俞 ↵

5. 볼기 아래 대횡문에서 아래로 6치 내려간 곳이다. : 《갑을경》에서 "扶承下

六寸"이라고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은문(殷門)에 대한 내용이 착간(錯簡)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혈도해략(俞穴圖解略)>을 보면 위중(委中) 바깥 쪽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

6. 鬼眼 :俞穴圖解略에는 足鬼眼으로 되어 있다. [←](#)

7. 글자없음 : *俞 [←](#)

8. 2치 : <수혈도해략(俞穴圖解略)>에는 2.5치로 되어 있다. [←](#)

9. 寸 : *分 [←](#)

10. 칼돌기 : 의서에서는 '갈우(骨)', '심폐골(心蔽骨)', '폐심골(蔽心骨)' 등으로 표현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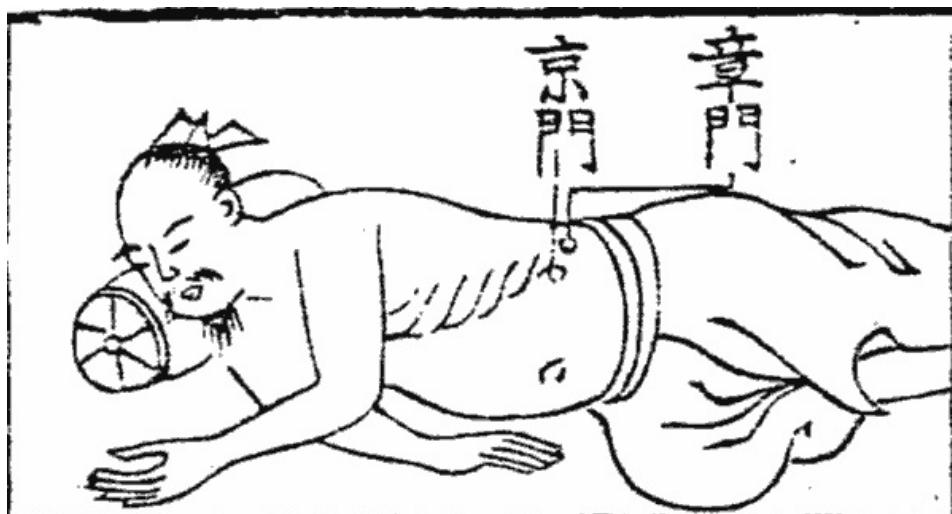
11. 양 무릎을 굽히고 : "拜而取之"의 의미이다. ※《침구자생경》 [←](#)

12. 내보골(內輔骨) : 정강뼈의 안쪽관절용기 [←](#)

1. 瘦穴圖解畧¹ 수혈도해략

¹. 瘦穴圖解畧 : 본래 '瘦穴圖解畧'은 서문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임의로 위치를 마지막 장으로 옮겨 싣기로 한다. ※역자주 ↵

章門 京門 장문 경문



<章門 京門 장문 경문>

還跳 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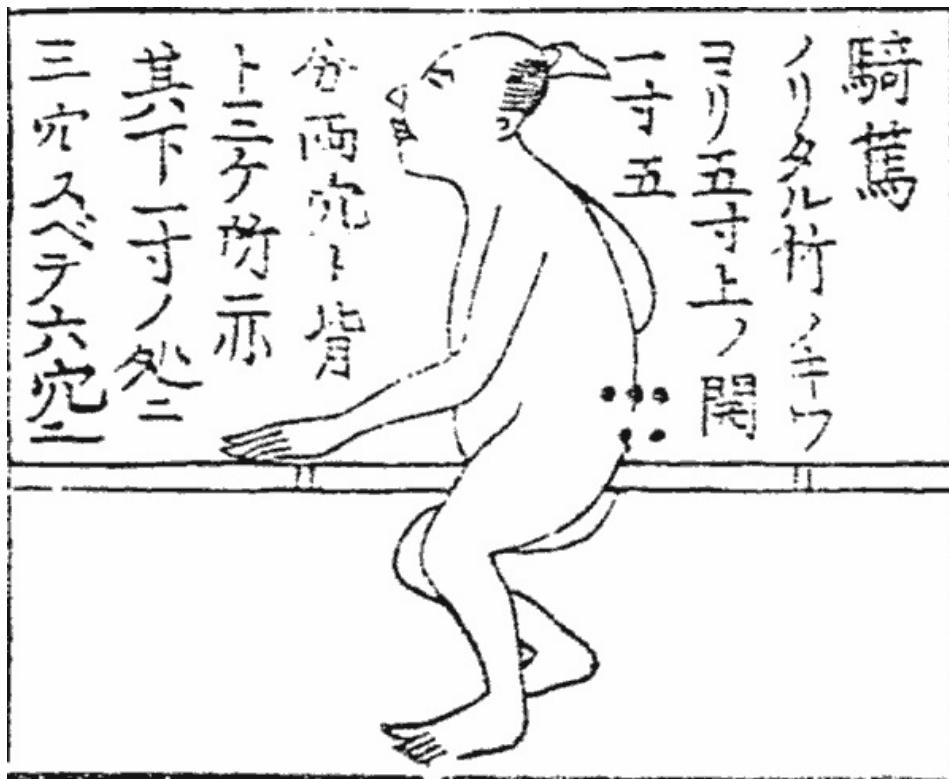


<還跳 환도>

還跳、モハノ折目ノカシラナリ。

환도, 넓적다리를 접었을 때의 첫부분이다.

騎竹馬 기죽마



<騎竹馬 기죽마>

騎竹馬、ノリタル竹ノキワヨリ五寸上ノ開一寸五分兩穴ト背ト三ヶ所、亦其下一寸ノ處ニ三穴、スペテ六穴ニ.

기죽마, 걸터앉은 대나무의 가장자리에서 위쪽으로 5치 떨어진 등의 혈과 양 옆으로 5푼 떨어진 2혈, 이렇게 3곳이다. 그리고 그 아래로 1치 떨어진 곳의 3 혈이다. 이렇게 도합 6혈이다.

膏肓 고황



<膏肓 고황>

四椎下五椎ニトヲシ.

제4추、제5추와 나란한 옆.

天突 천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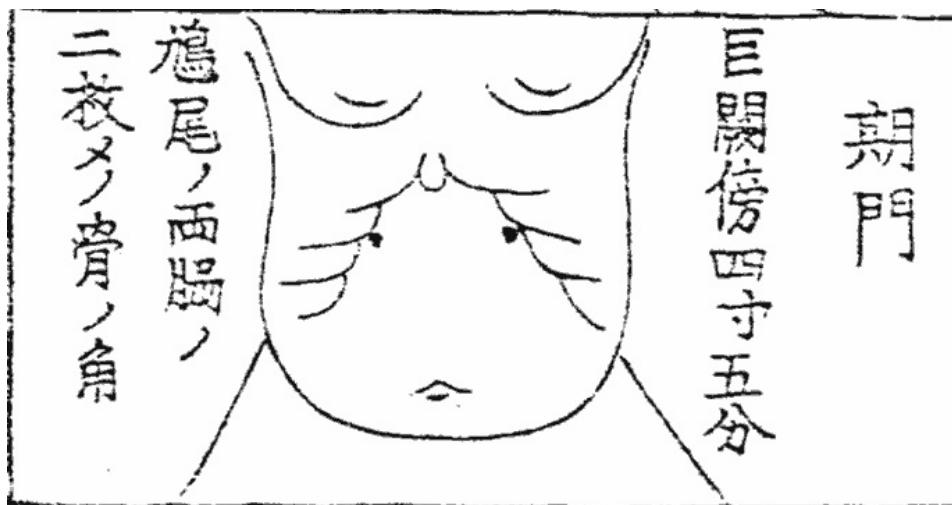


<天突 천돌>

喉ノ下大骨ノカケタル所.

목 아래 큰 뼈에서 비어있는 부분.

期門 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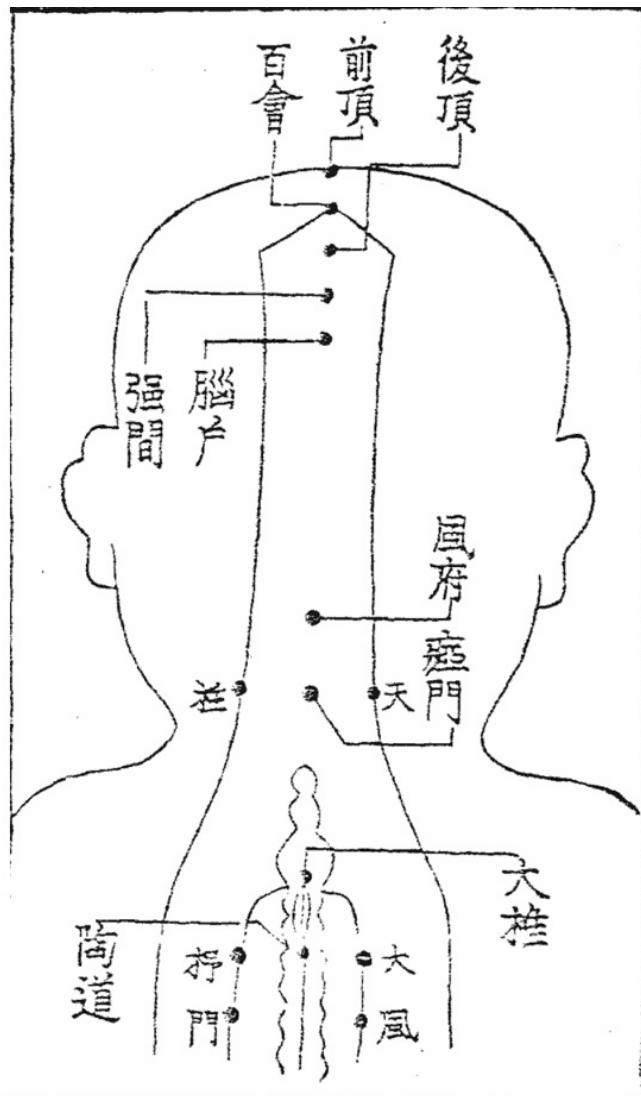


<期門 기문>

巨闕傍四寸五分.鳩尾ノ兩脇ノ二枚メノ骨ノ角.

거궐에서 양옆으로 4촌 5푼 떨어진 곳. 구미 양쪽 옆의 두 번째 갈비뼈의 모서리.

後頂-風門 后正-風門



<後頂-風門 后正-風門>

後頂 前頂 百會 強間 腦戶 風府 瘡門 天柱 大椎 陶道 大杼 風門.

후정 전정 백회 강간 뇌호 풍부 아문 천주 대추 요도 대저 풍문.

風府-腦戶 풍부-뇌호



<風府-腦戶 풍부-뇌호>

風府 腦戶 強間 後頂 百會 前頂 神庭 上星 顙會.神庭、前髮際入五分.上星、同入
「一寸五分.顙會、同入「二寸五分.前頂、同入「三寸五分.百會、同入「五寸.後
頂 強間 腦戶.

풍부 뇌호 강간 후정 백회 전정 신정 상성 신회. 신정, 전발제에서 5푼 들어간
곳. 상성, 전발제에서 1치 5푼 들어간 곳. 신회, 전발제에서 2치 5푼 들어간 곳.
전정, 전발제에서 3치 5푼 들어간 곳. 백회, 전발제에서 5치 들어간 곳. 후정, 강
간 뇌호

風池 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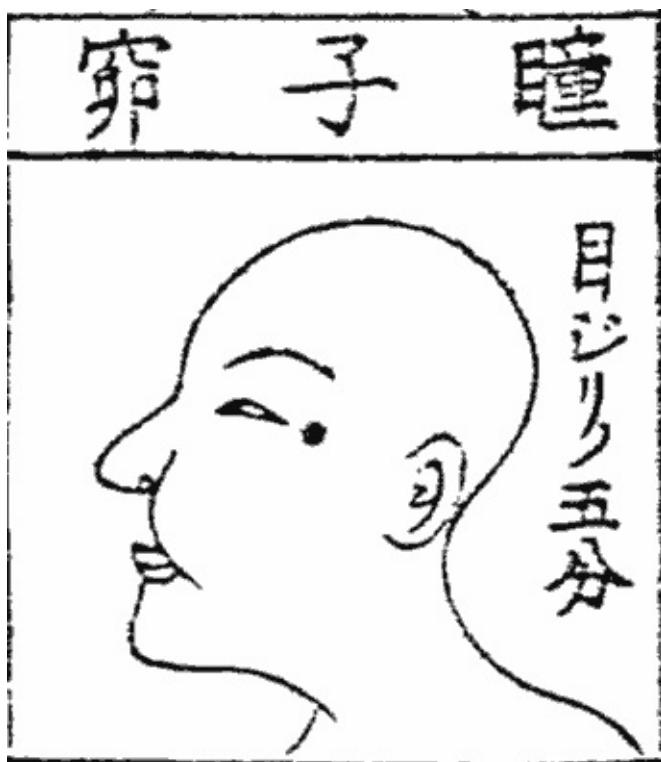


<風池 풍지>

耳ノ外ノハエキワノ内ヲシテコタユルクボミノ所.

| 귀 바깥쪽의 발제 안쪽을 눌렀을 때 움푹한 곳.

瞳子竅 동자료



<瞳子竅 동자료>

目ジリノ五分.

눈초리에서 5푼 떨어진 곳.

頰車 협거



<頰車 협거>

耳ノ下五分、口ヲ開テ骨ノトケメ.

귀에서 아래로 5푼 떨어져 있고 입을 열었을 때 뼈가 풀리는 곳.

印道¹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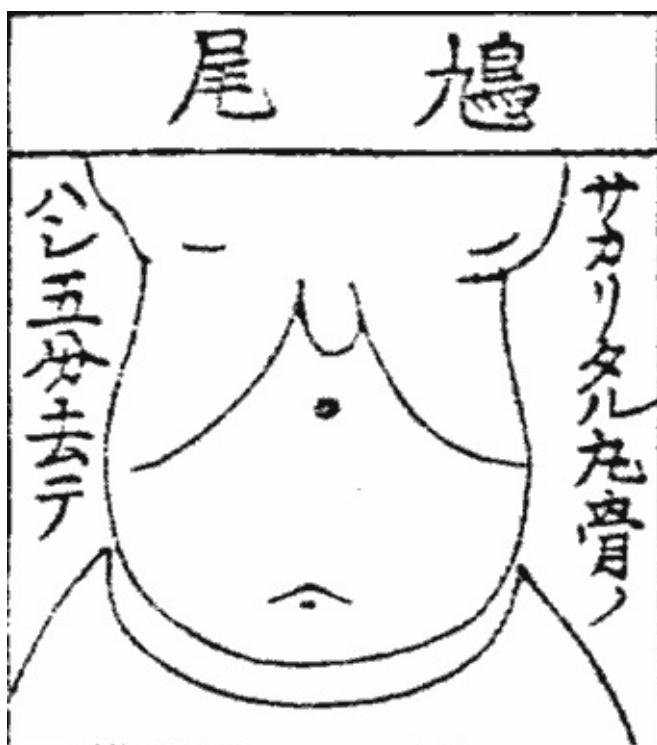
<印道 인도>

兩マユノ正中承漿.

양쪽 눈썹의 정중앙. 승장.

¹. 印道 : '인당(印堂)'의 오기로 보인다. ※수혈해(俞穴解) ↵

鳩尾 구미



<鳩尾 구미>

サカリタル丸骨ノハシ五分去テ.

뒤집혀진 등근 뼈¹ 끝에서 5푼 떨어진 곳.

¹. 뒤집혀진 등근 뼈 : '칼돌기'에 해당한다. ↪

廉泉 염천



<廉泉 염천>

ヲトガイノ下ノ陷ミ.

턱 아래 움푹한 곳.

天柱 瘰門 천주 아문



<天柱 瘰門 천주 아문>

天柱、瘻門ノ傍一寸五分。瘻門、後ノハエキワヲ入ル五分。

천주, 아문에서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진 곳. 아문, 후발제에서 5푼 들어간 곳.

絲竹空 사죽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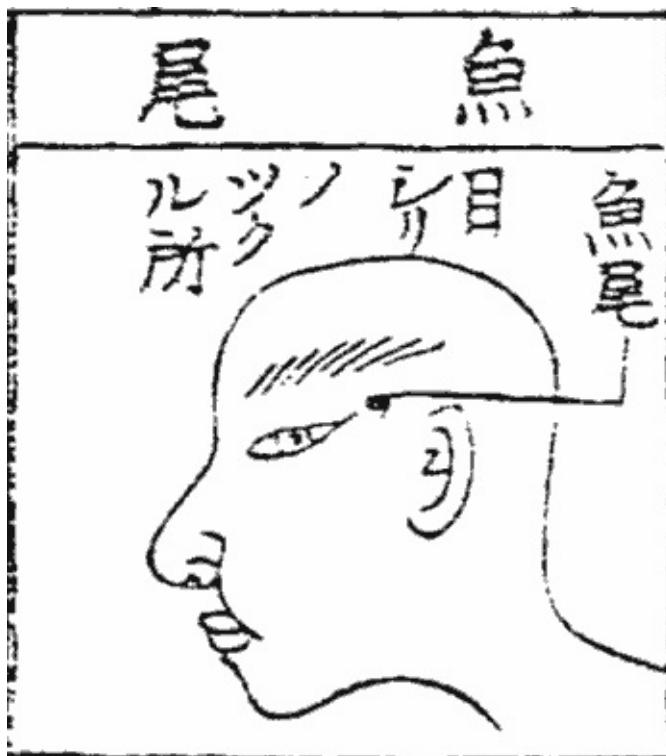


<絲竹空 사죽공>

絲竹空、眉毛ノ尽ル所。

사죽공, 눈썹이 끝나는 곳.

魚尾 어미



<魚尾 어미>

魚尾、目シリノツクル所.

어미, 눈초리가 끝나는 곳.

風府 풍부



<風府 풍부>

後ノハエキワヲ入一寸.

후발제에서 1치 들어간 곳.

神庭 신정 상성



<神庭 上星 신정 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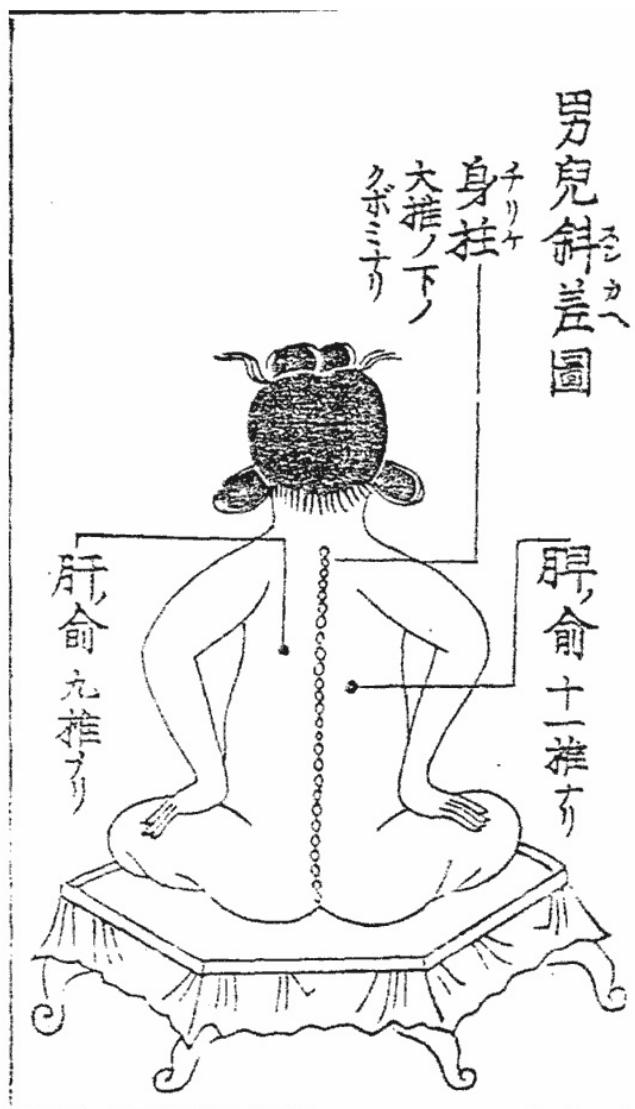
上星、前ノ髮際ヲ入五分.神庭、前ノ髮際ヲ入一寸五分.

상성, 전발제에서 5푼¹ 들어간 곳. 신정, 전발제에서 1치² 들어간 곳.

1. 5푼 : <수혈해(俞穴解)>에는 '1치'로 되어 있다. ↵

2. 1치 : <수혈해(俞穴解)>에는 '5푼'으로 되어 있다. ↵

男兒斜差圖 남아사차도



<男兒斜差圖 남아사차도>

身柱・大椎ノ下ノクボミナリ.肝俞・九椎ナリ.脾俞・十一椎ナリ.

신주, 대추 아래 움푹한 곳이다. 간수, 제9추이다. 비수, 제11추이다.



<女兒斜差 여아사차>

肝俞.脾俞.

| 간수.비수.

手陽明大腸經 수양명대장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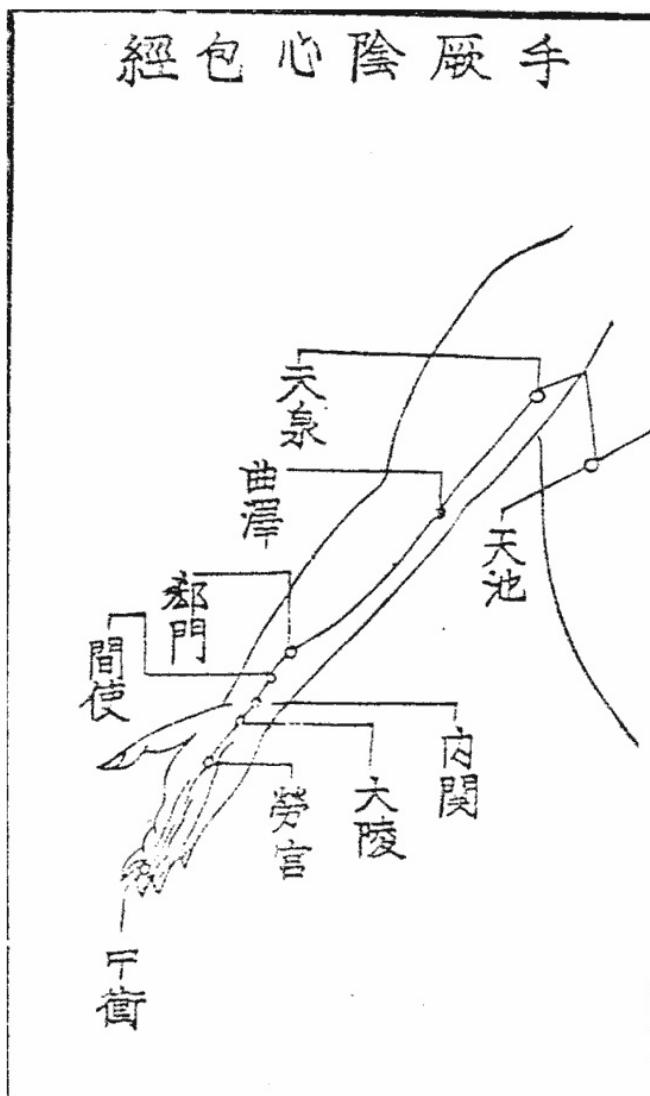
<手陽明大腸經 수양명대장경>

出柱骨之會上.巨骨 肩髃 肘臑 五里 肘膠 曲池 三里 上廉 下廉 溫溜 偏歷 陽谿 合谷
三間 二間 商陽.

주골이 모이는 곳¹ 위로 나온다. 거골 견우 비노 오리 주로 곡지 삼리 상렴 하
렴 온류 편력 양계 합곡 삼간 이간 상양.

1. 주골이 모이는 곳 : 《동의보감》에서는 천정혈(天鼎穴)로 보았으나, '주골(柱骨)'을 제7경추 가시돌기로 보는 견해가 많다. ↪

手厥陰心包經 수궐음심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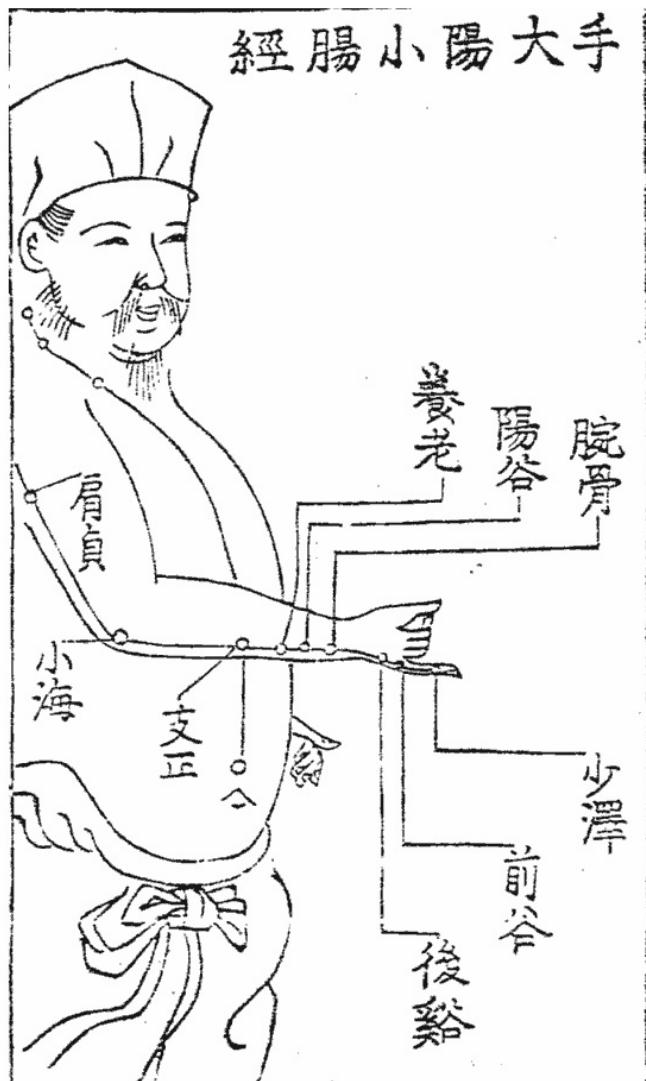


<手厥陰心包經 수궐음심포경>

天池 天泉 曲澤 郄門 間使 內關 大陵 勞宮 中衝.

천지 천천 곡택 극문 간사 내관 대릉 노궁 중충.

手大陽小腸經 수양명소장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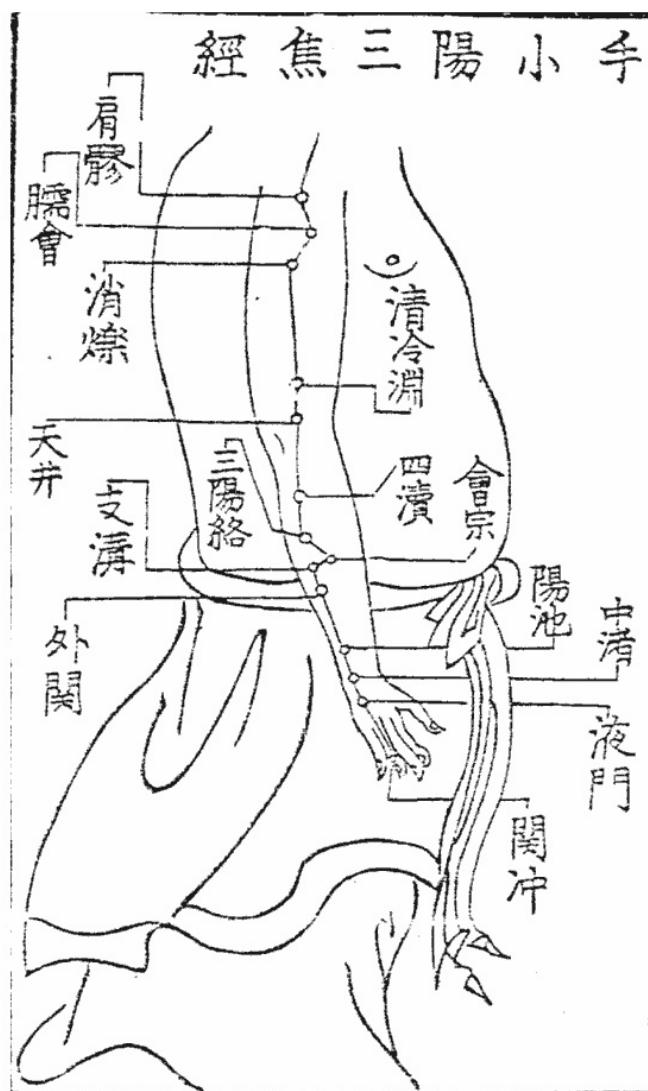


<手大陽小腸經 수태양소장경>

少澤 前谷 後谿 腕骨 陽谷 養老 支正 小海 肩貞.

| 소택 전곡 후계 완골 양곡 양로 지정 소해 견정.

手小陽三焦經 수소양삼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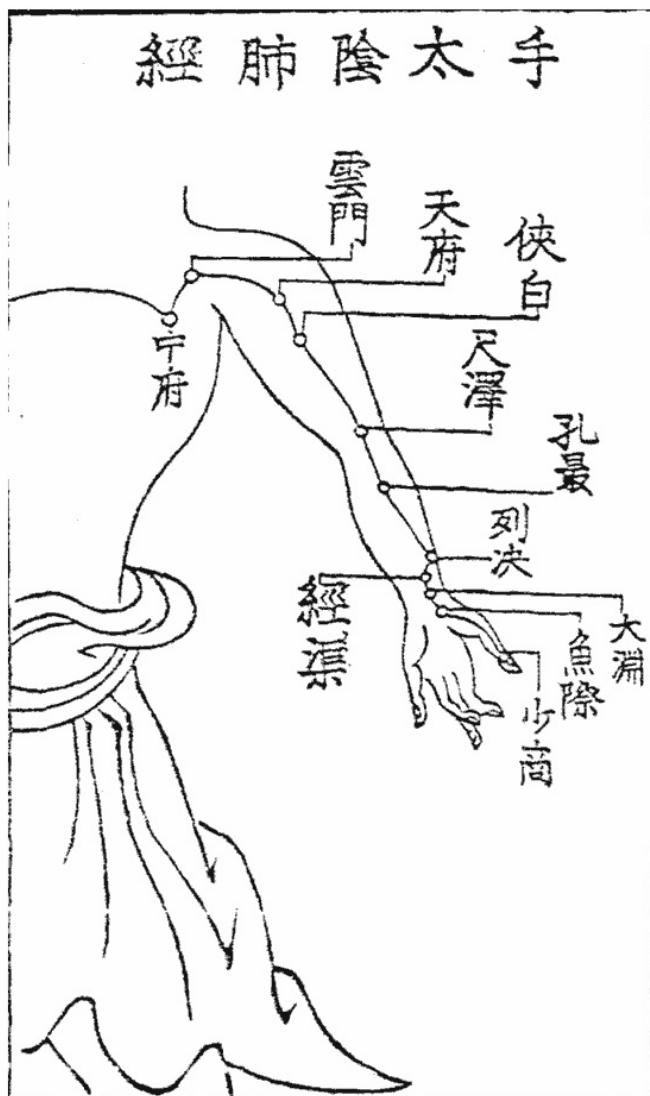


<手小陽三焦經 수소양삼초경>

肩髎 脣會 消燦 清冷淵 天井 四瀆 三陽絡 會宗 支溝 外關 陽池 中渚 液門 關沖.

| 견료 노회 소락 청랭연 천정 사독 삼양락 회종 지구 외관 양지 증저 액문 관총.

手太陰肺經 수태음폐경



<手太陰肺經 수태음폐경>

中府 雲門 天府 俠白 尺澤 孔最 列缺 經渠 大淵 魚際 少商

중부 운문 천부 협백 척택 공최 열결 경거 태연 어제 소상

手小陰心經 수소음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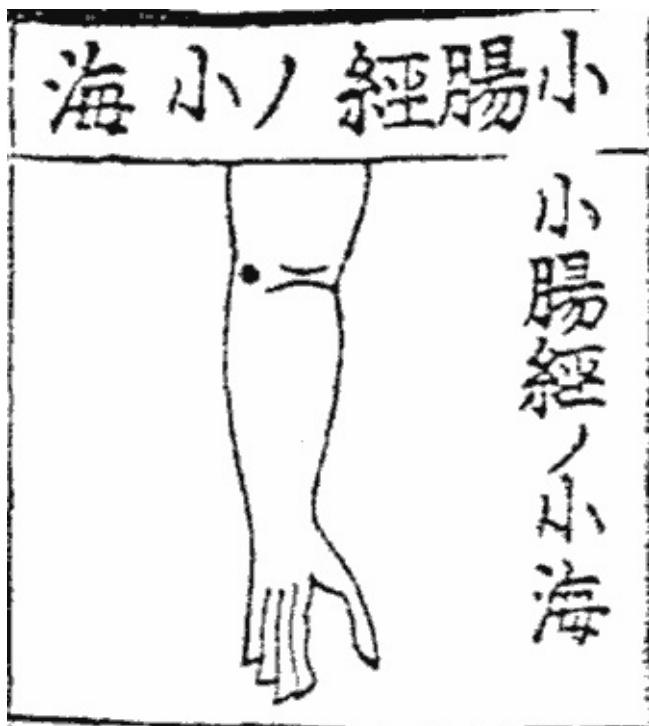


<手小陰心經 수소음심경>

少衝 少府 神門 陰郄 通里 靈道 少海 青靈

소충 소부 신문 음극 통리 영도 소해 청령

小腸經／小海 소장경의 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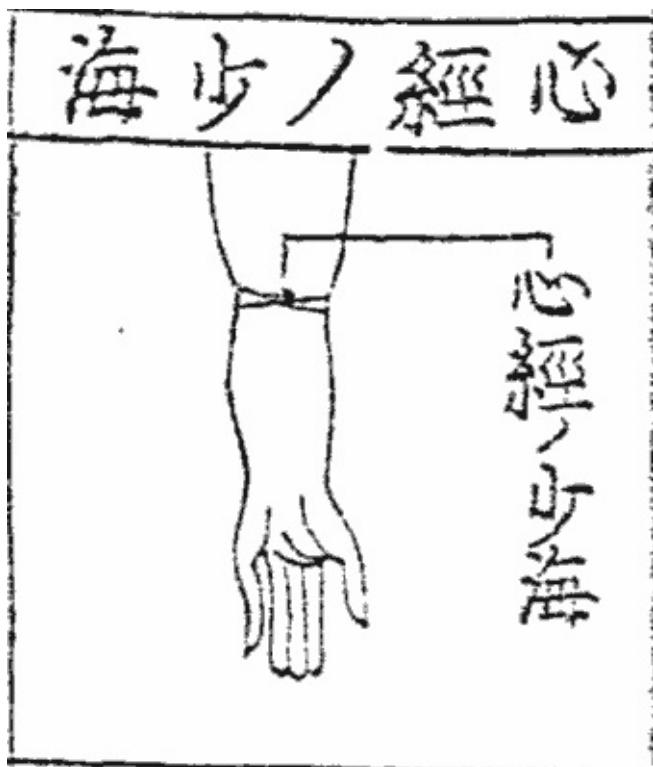


<小腸經／小海 소장경의 소해>

小腸經／小海

| 소장경의 소해

心經ノ少海 심경의 소해



<心經ノ少海 심경의 소해>

心經ノ少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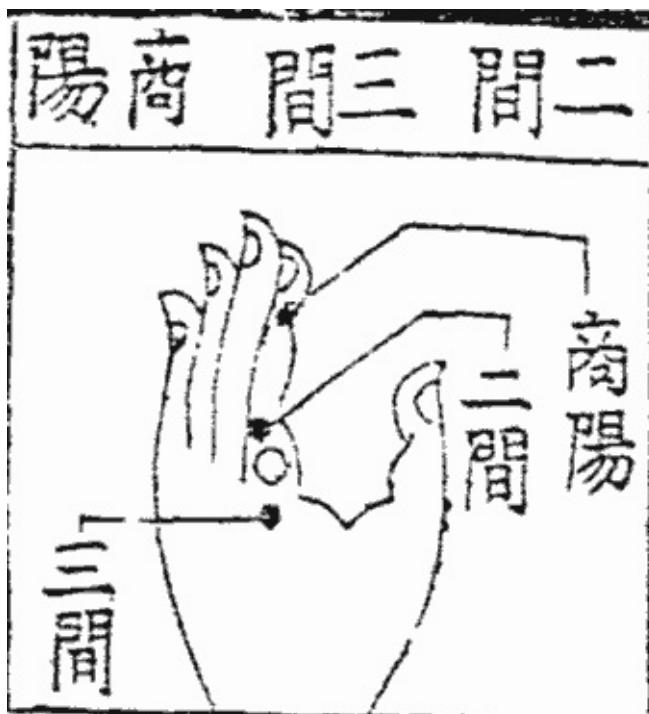
심경의 소해

肩髃 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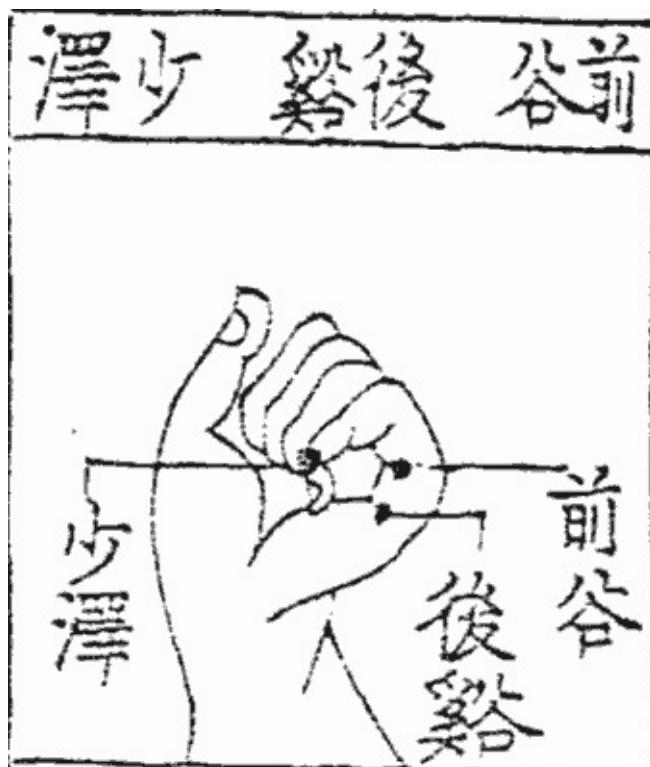
<肩髃 견우>

二間 三間 商陽 이간 삼간 상양



<二間 三間 商陽 이간 삼간 상양>

前谷 後谿 少澤 전곡 후계 소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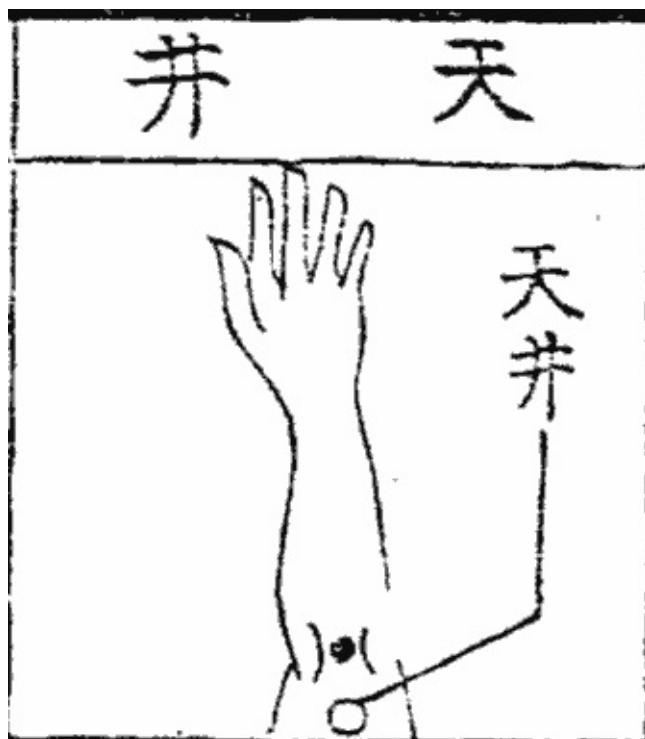
<前谷 後谿 少澤 전곡 후계 소택>

腕骨 陽谷 養老 완골 양곡 양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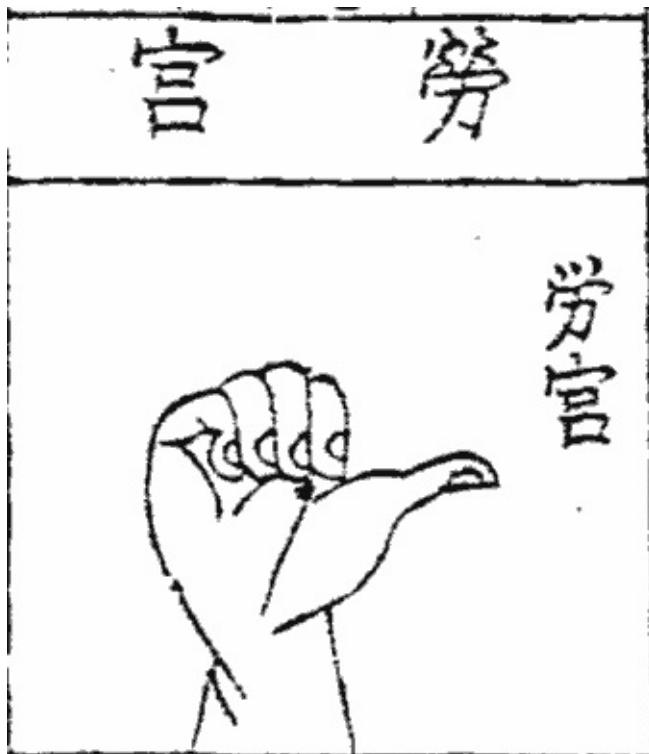
<腕骨 완골 양곡 양로>

天井 천정



<天井 천정>

勞宮 노궁



<勞宮 노궁>

商陽 合谷 上陽 합곡



<商陽 合谷 上陽 합곡>

關衝 관충



<關衝 관충>

關衝、藥ユビノ内¹ノ側爪ノ角ヲ去ル 一分.

관충, 약손가락의 안쪽 손톱 모서리에서 1푼 떨어진 곳.

1. 内 : 外 ※수혈해 ↵

少衝 少府 神門 소충 소부 신문



<少衝 少府 神門 소충 소부 신문>

少衝、小指ノ内ノ側、爪ノ角ヲ三分去テ。

소충, 새끼손가락 안쪽 손톱 모서리에서 3푼 떨어진 곳.

鬼哭 귀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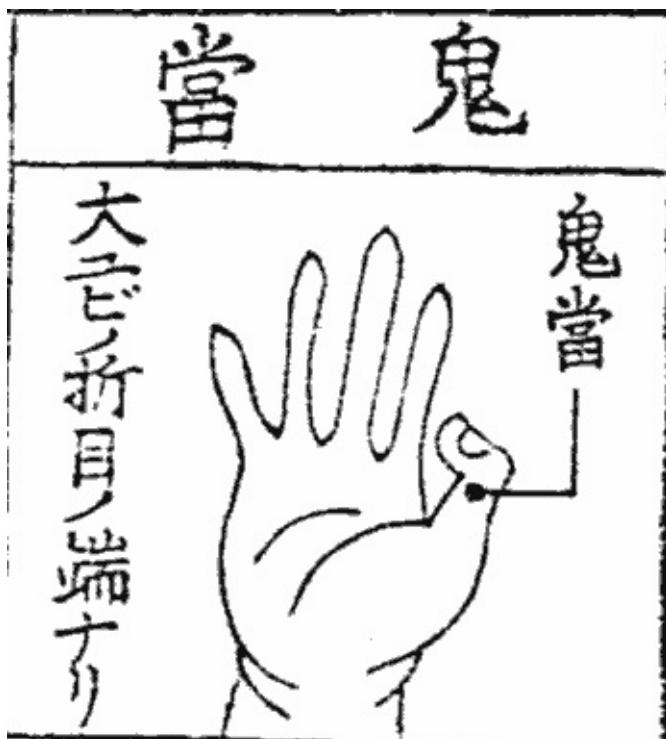


<鬼哭 귀곡>

鬼哭 足ノ鬼眼

귀곡 족귀안

鬼當 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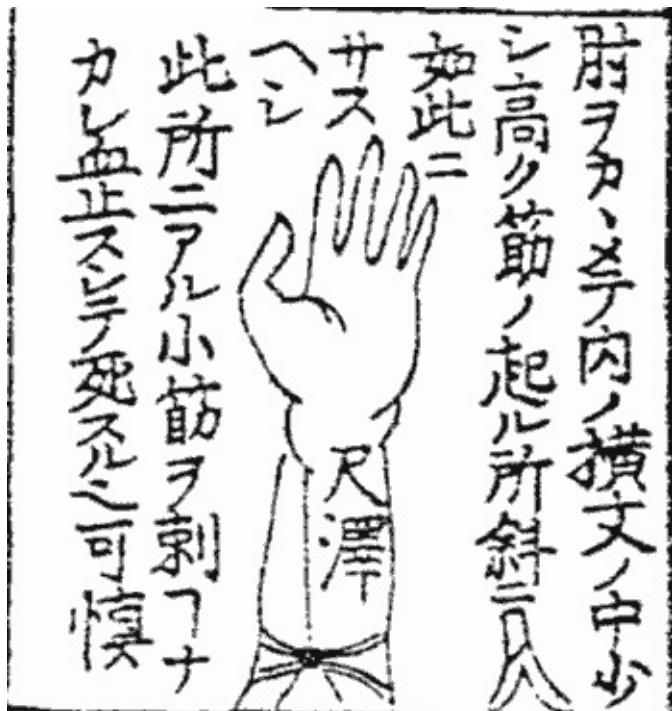


<鬼當 귀당>

鬼當、大ユビノ折目ノ端ナリ

귀당, 엄지손가락의 접히는 부분의 끝이다.

尺澤 척택



<尺澤 척택>

肘ヲカヽメテ内ノ横文ノ中少シ高ク筋ノ起ル所・斜ニ 如此ニサスベシ.
此所ニアル小筋ヲ刺ツナカレ.血止スシテ死スル可慎.

팔을 굽혔을 때 안쪽 횡문에서 근(筋)이 약간 높이 올라오는 곳에서 비스듬하게

그림과 같이 하여 자침해야 한다. 여기에 있는 작은 근(筋)을 찔러서는 안 되니, 피가 멈추지 않아 죽기 때문이다. 삼가야 한다.

神門 신문



<神門 신문>

神門、薬ユビト小ユビトノ間ノ通リクボミナリ。

신문,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에서 나란한 웁푹한 곳.

少商 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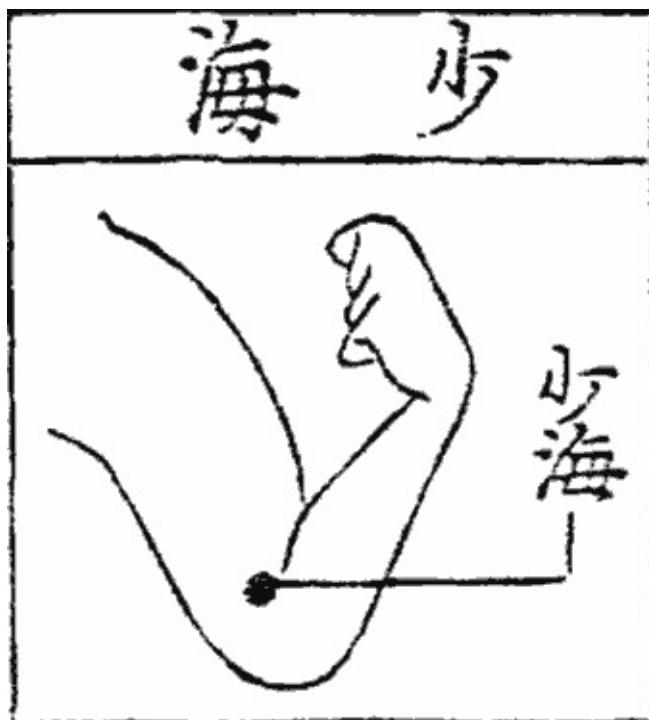


<少商 소상>

少商 魚際 大淵 經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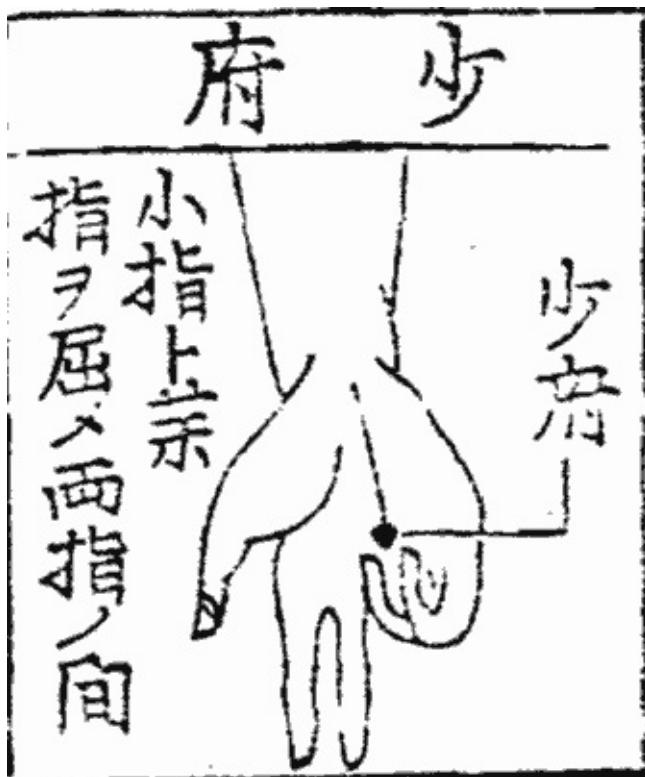
소상 어제 태연 경거

少海 소해



<少海 소해>

少府 소부



<少府 소부>

少府、小指ト藥指ヲ屈兩指ノ間.

소부, 새끼손가락과 약손가락을 굽혔을 때 두 손가락 사이.

陽谿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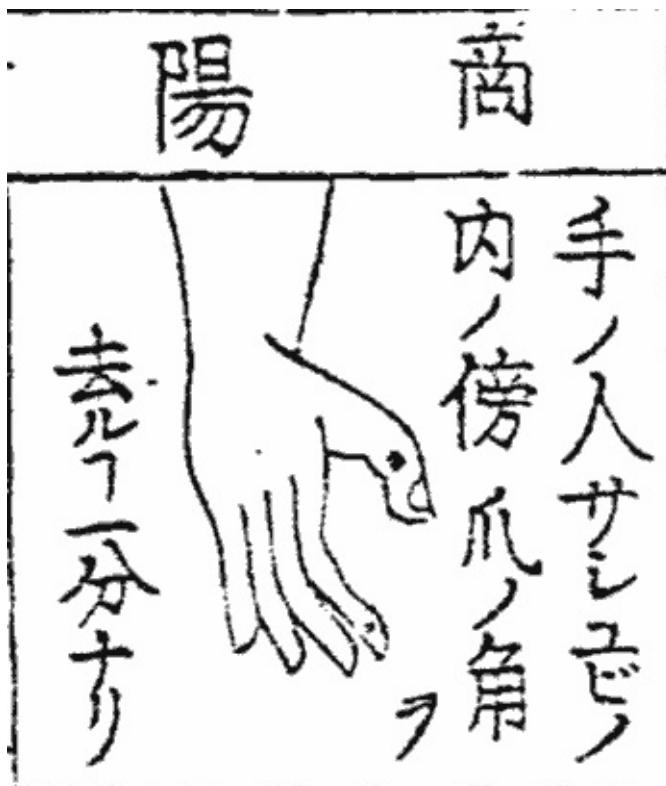


<陽谿 양계>

手ヲマシエテ大ユヒノアタル所、則合谷ノ上ノ陷キ中。

손을 교차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닿는 곳이니, 곧 합곡 위의 움푹한 곳 중앙이다.

商陽 상양



<商陽 상양>

手ノ人サシユビノ内ノ傍爪ノ角ヲ去ルコ一分ナリ.

집게손가락 안쪽 끝의 손톱 모서리에서 1푼 떨어진 곳.

列缺 열결



<列缺 열결>

手ヲマシェテ人サシユビノアタル所.

손을 교차했을 때 집개손가락이 닿는 곳.

大陵 內關 間使 대릉 내관 간사



<大陵 內關 間使 대릉 내관 간사>

間使、大陵前三寸.

간사, 대릉에서 앞으로 3치 떨어진 곳.

陽池 支溝 양지 지구



<陽池 支溝 양지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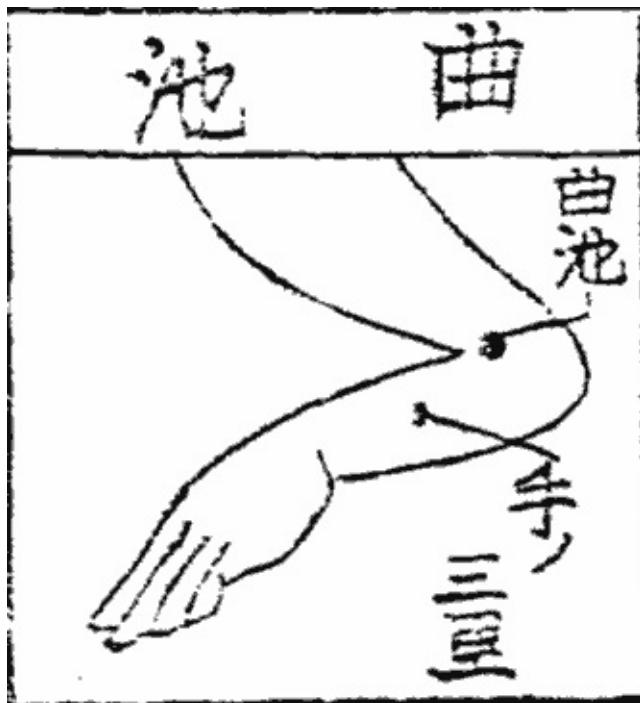
陽池 支溝

양지 지구

關衝 陽池 外關 支溝

관충 양지 외관 지구

曲池 곡지



<曲池 곡지>

曲池 手ノ三里

곡지 수삼리

足少陰腎經 족소음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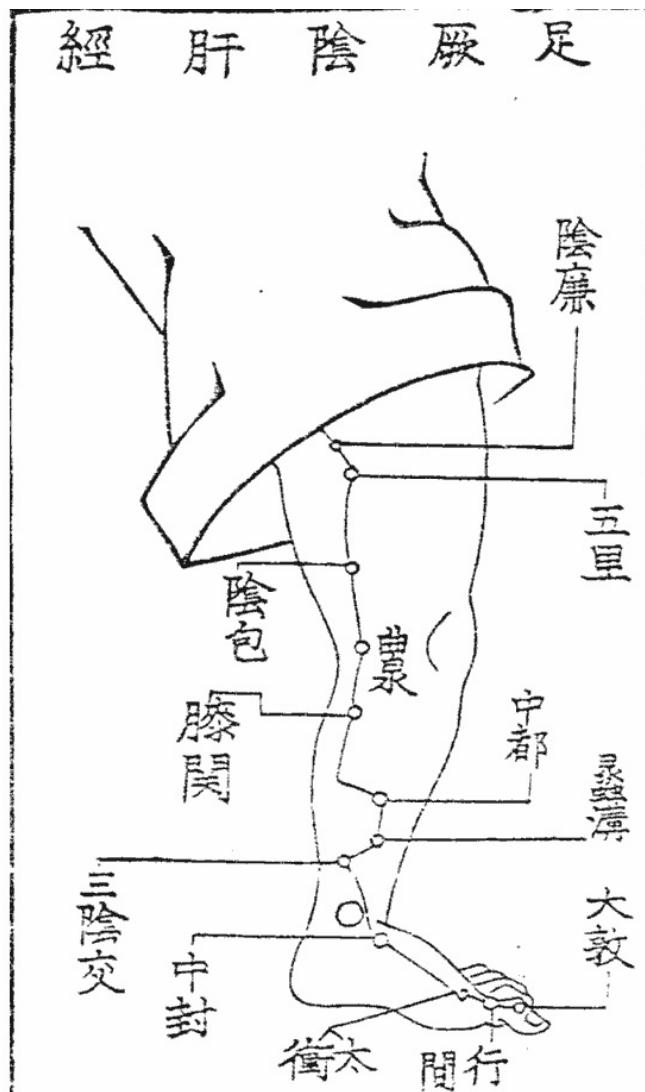


<足少陰腎經 족소음신경>

湧泉 然谷 照海 水泉 大鐘 大谿 復溜 交信 築濱 陰谷

용천 연곡 조해 수천 대종 태계 부류 교신 축빈 음곡

足厥陰肝經 족궐음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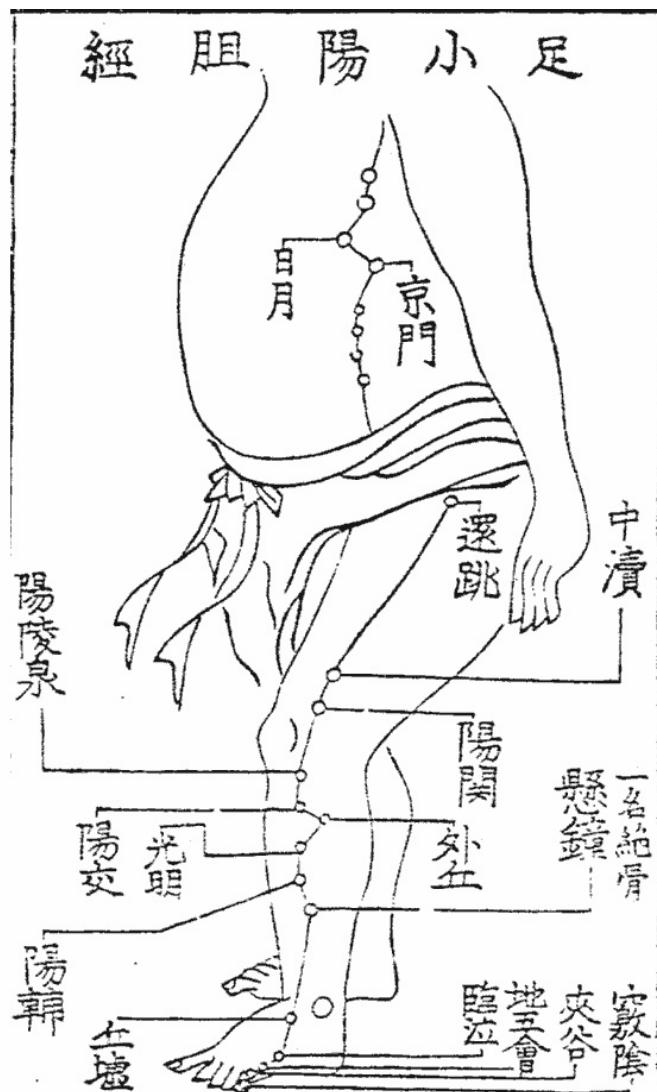


<足厥陰肝經 족궐음간경>

大敦 行間 太衝 中封 三陰交 穎溝 中都 膝關 曲泉 陰包 五里 陰廉

대둔 행간 태충 중봉 삼음교 여구 중도 슬관 곡천 음포 오리 음렴

足小陽膽經 족소양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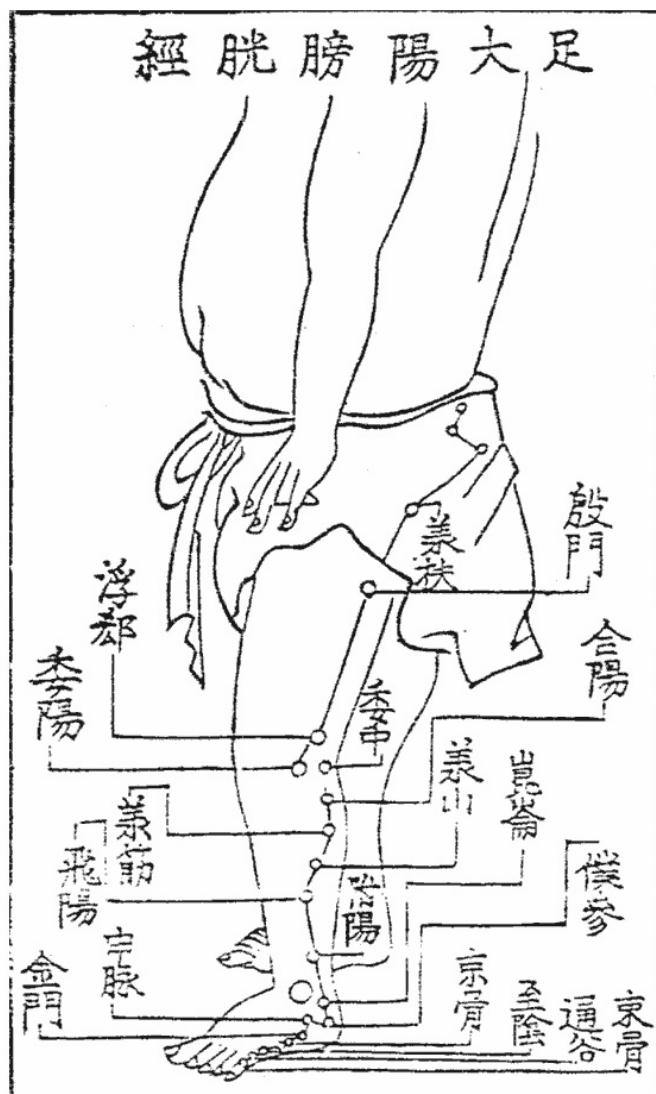


<足小陽膽經 족소양담경>

竅陰 夾谷 地五會 臨泣 丘墟 懸鐘(一名絕骨) 陽輔 光明 外丘 陽交 陽陵泉 陽關 中瀆 還跳 京門 日月

규음 협곡 지오회 임읍 구허 현종(일명 절골이다) 양보 광명 외구 양교 양릉천
양관 중독 환도 경문 일월

足大陽膀胱經 족대양방광경



<足大陽膀胱經 족대양방광경>

束骨 通谷 至陰 京骨 金門 申脉 僕參 崑崙 附陽 飛陽 承山 承筋 合陽 委中 委陽 浮
陽 浮郄 殷門 承扶

속골 통곡 지음 경골 금문 신맥 복삼 곤륜 부양 비양 승산 승근 합양 위중 위양
부극 은문 승부

足陽明胃經 족양명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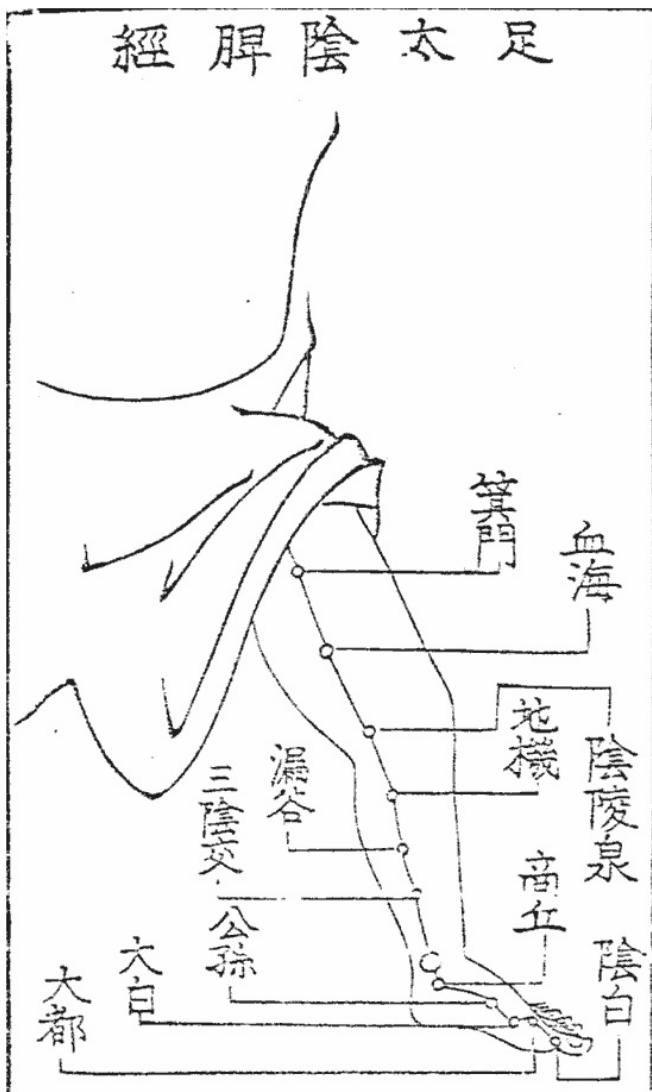


<足陽明胃經 족양명위경>

厲兌 內庭 陷谷 衝陽 解谿 豐隆 下巨虛 條口 上巨虛 三里 獄鼻 梁丘 陰市 伏免

여태 내정 함곡 충양 해계 풍릉 하거허 조구 상거허 삼리 독비 양구 음시 복토

足太陰脾經 족태음비경



<足太陰脾經 족태음비경>

陰白 大都 大白 商丘 三陰交 漏谷 地機 陰陵泉 血海 箕門

음백 대도 태백 상구 삼음교 누곡 지기 음릉천 혈해 기문

承山 승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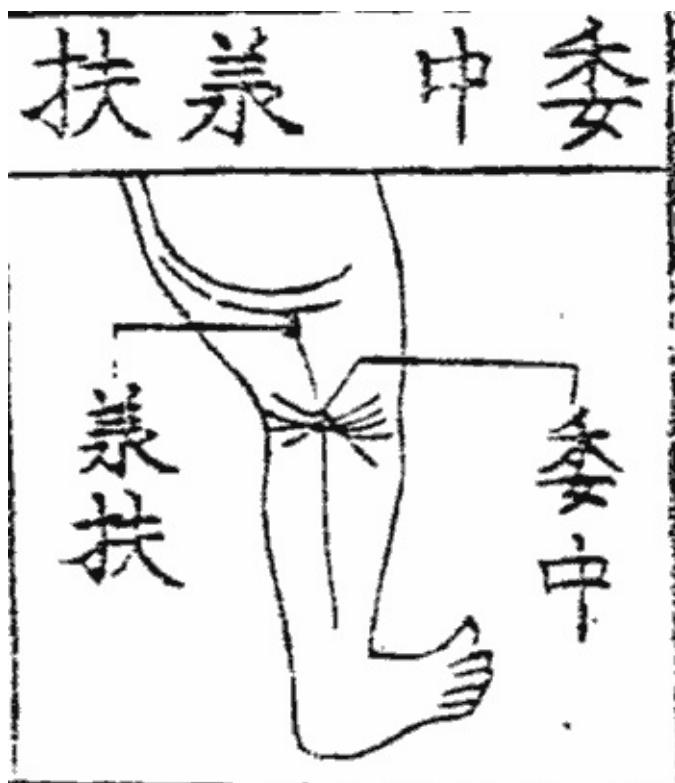


<承山 승산>

承山、フクラミノ下、ユヒノ止ル所.

승산, 종아리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눌러서 올라가면 손가락이 멈추는 곳.

委中 承扶 위중 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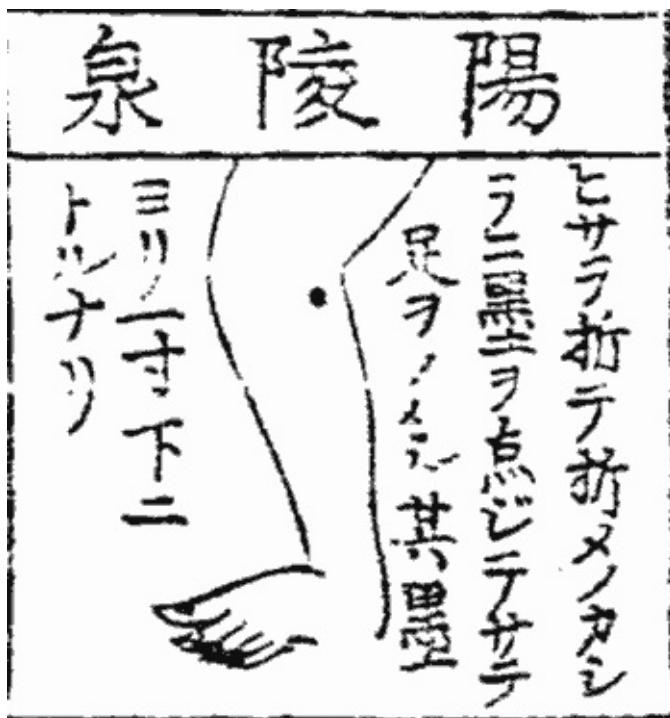


<委中 承扶 위중 승부>

委中 承扶

위중 승부

陽陵泉 양릉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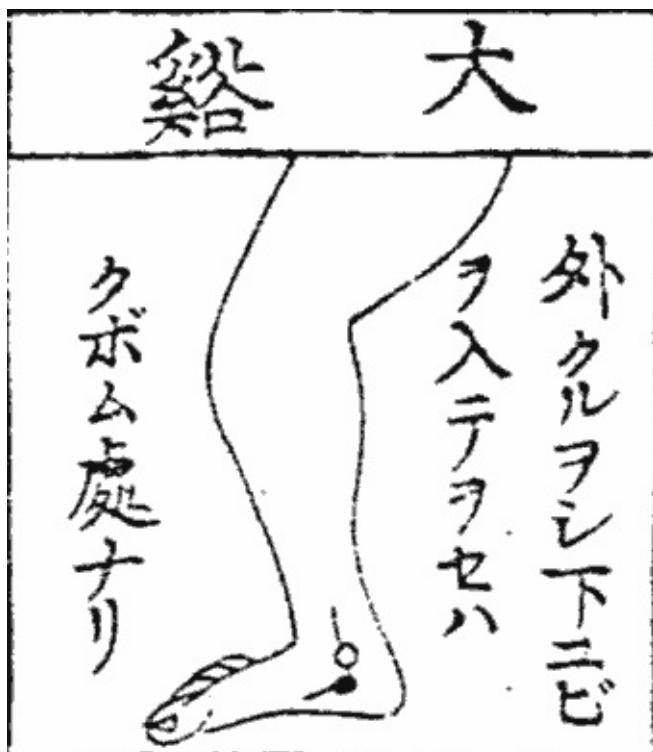


<陽陵泉 양릉천>

ヒサヲ折テ折リメノカシラニ墨ヲ点ジテ、サテ足ヲノバシ其ノ墨ヨリ一寸下ニトルナ

무릎을 접어서 접힌 곳의 끝에 먹으로 점을 찍은 뒤 다리를 평을 때 점에서 아래로 1치 떨어진 곳에 취혈(取穴)한다.

大谿 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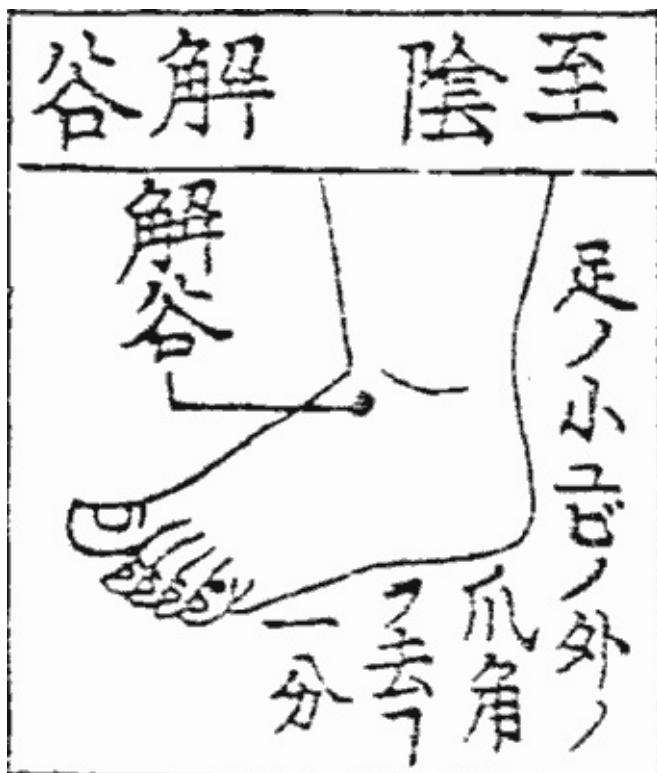
<大谿 태계>

外タルフシ下、ユビヲ入テヲセバクボム處ナリ。

안쪽복사¹ 아래에서 손가락을 넣어서 누르면 움푹 패이는 곳이다.

¹. 안쪽복사 : 원문에는 "가쪽복사"로 되어 있으나 태계의 위치를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

至陰 解谷 지음 해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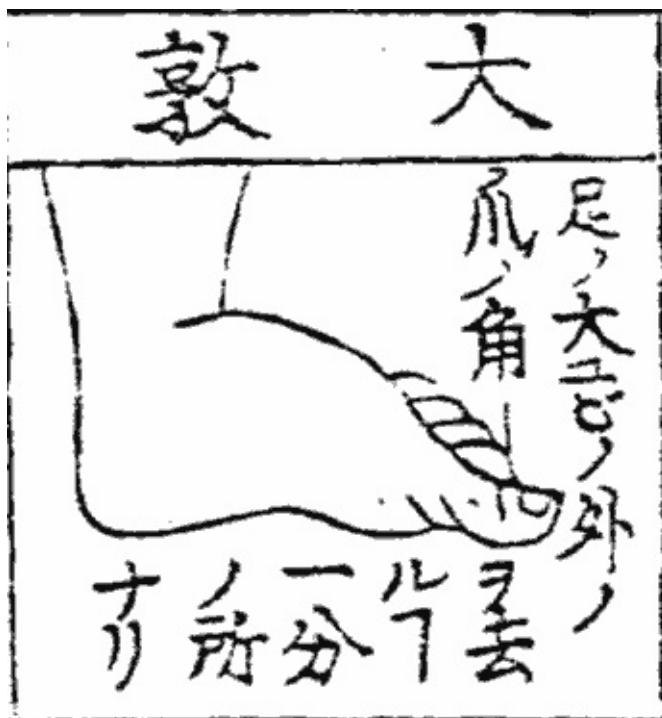


<至陰 解谷 지음 해곡>

至陰、足ノ小ユビノ外ノ爪角ヲ去一分.

지음, 새끼발가락 바깥쪽 발톱 모서리에서 1푼 떨어진 곳.

大敦 대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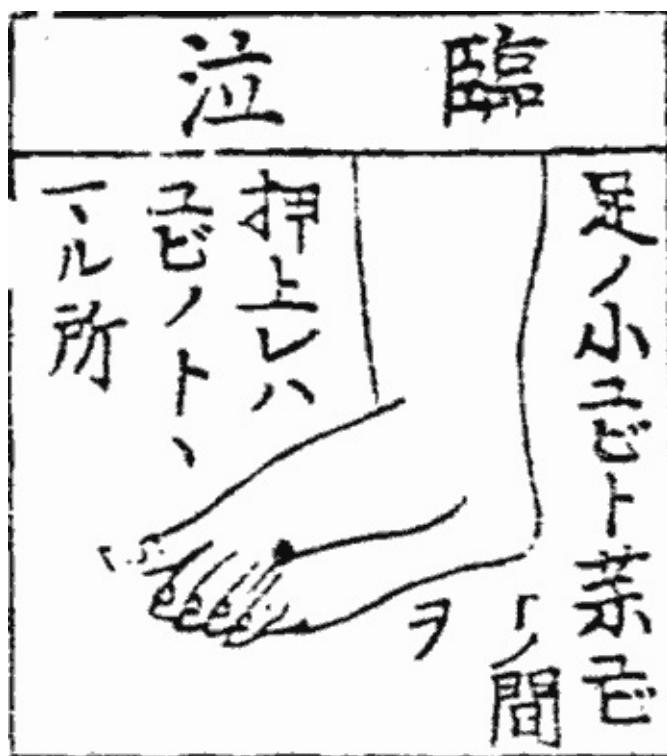


<大敦 대돈>

足ノ大ユビノ外ノ爪ノ角ヲ去ルノ一分ノ所ナリ.

엄지발가락 바깥쪽 발톱 모서리에서 1푼 떨어진 곳이다.

臨泣 임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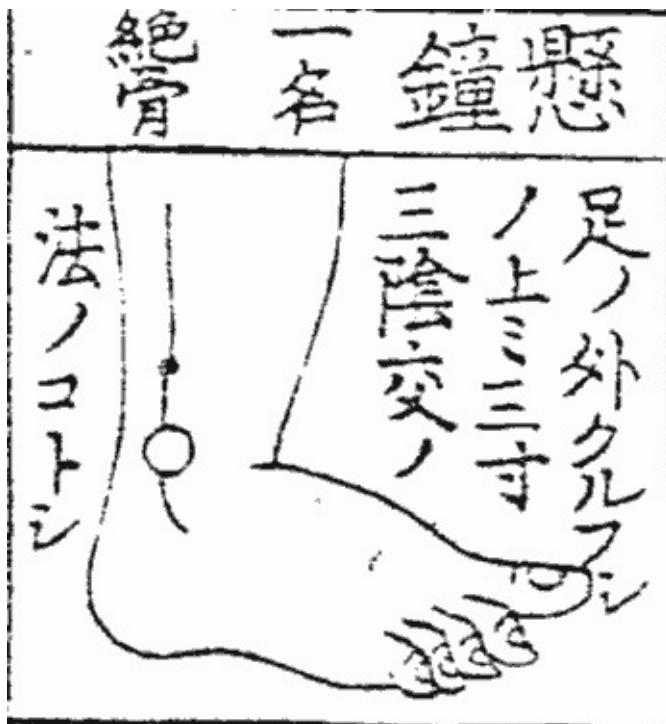


<臨泣 임읍>

足ノ小ユビト 藥ユビトノ間ヲ押上レバユビノトヽマル所.

새끼발가락과 넷째발가락 사이를 눌러서 올라가면 손가락이 멈추는 곳.

懸鐘(一名絶骨) 현종(일명 절골이다)



<懸鐘 현종>

足ノ外クルフシノ上ミ三寸.三陰交ノ法ノコト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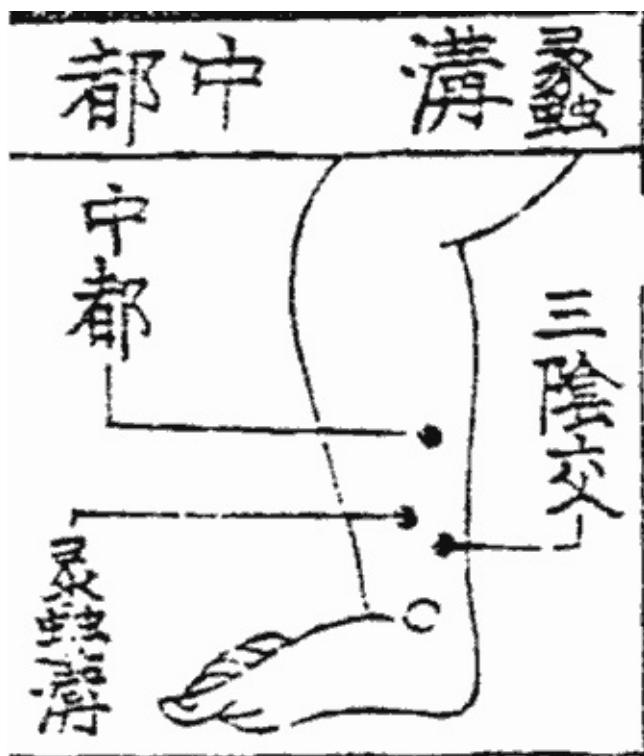
가쪽복사에서 위로 3치 떨어진 곳이다. 취혈법은 삼음교와 같다.

三陰交 삼음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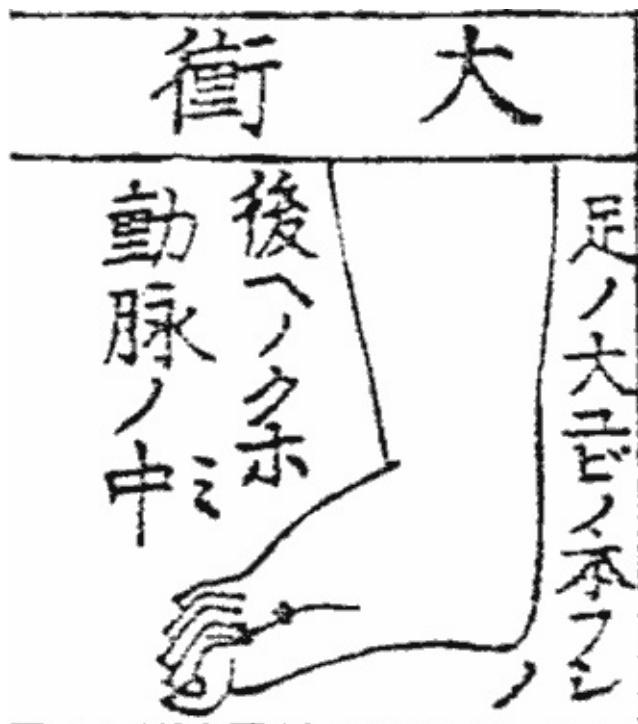
<三陰交 삼음교>

蠡溝 中都 여구 중도



<蠡溝 中都 여구 중도>

大衝 태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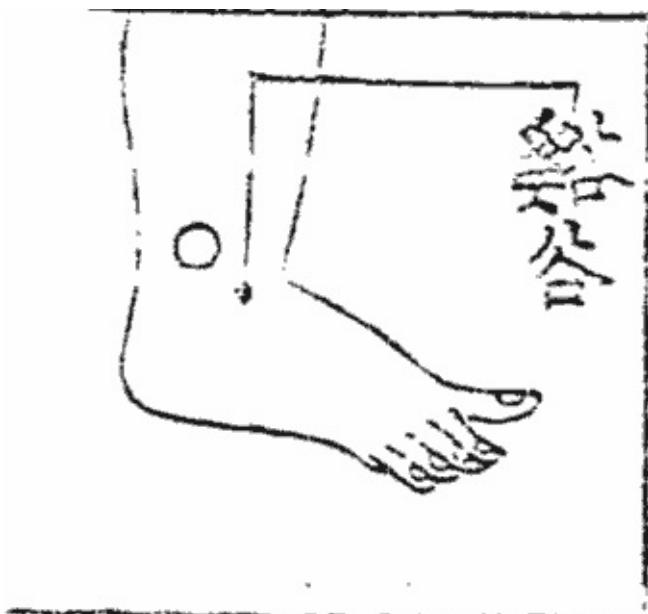


<大衝 태충>

足ノ大ユビノ本フシノ後ヘノクホミ、動脈ノ中.

엄지발가락 본절 뒤의 움푹한 곳으로, 맥이 뛰는 곳이다.

谿谷 계곡



<谿谷 계곡>

陰陵泉 음릉천



<陰陵泉 음릉천>

陽陵泉ノ法ト同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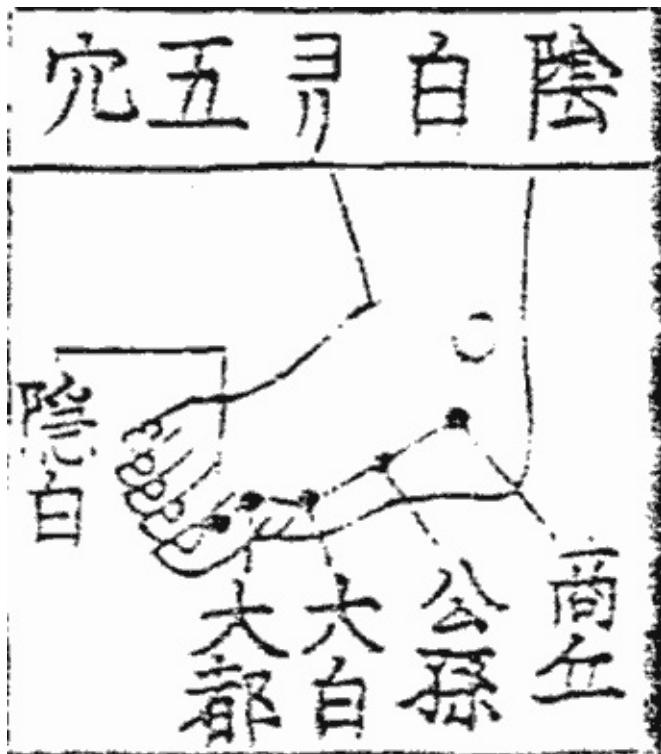
취혈법은 양릉천과 같다.

湧泉 然谷 용천 연곡



<湧泉 然谷 용천 연곡>

隱白ヨリ五穴 은백에서 시작하는 5혈



<隱白ヨリ五穴 은백에서 시작하는 5혈>

隱白 大都 大白 公孫 商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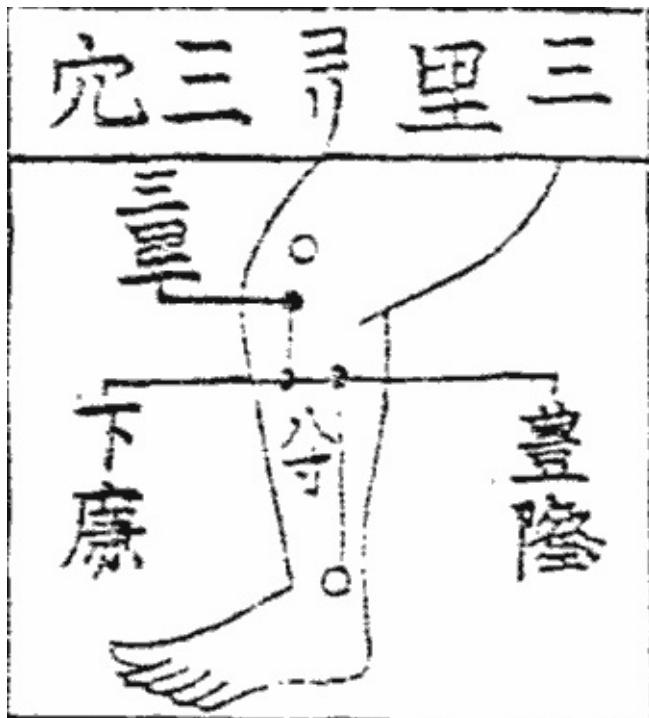
은백 대도 태백 공손 상구

陰谷 曲泉 음곡 곡천



<陰谷 曲泉 음곡 곡천>

足三里ヨリ三穴 족삼리에서 시작하는 3혈



<足三里ヨリ三穴 족삼리에서 시작하는 3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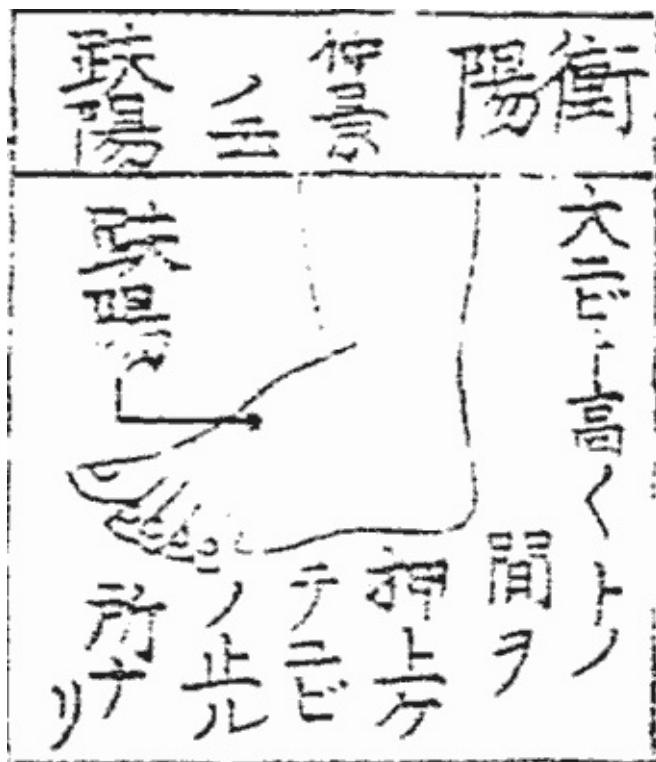
足三里ヨリ三穴

족삼리에서 시작하는 3혈

三里 下廉 豊隆

 삼리 하廉 풍룡

충양(仲景ノ云趺陽) 충양(중경이 말한 부양이다)



<충양(仲景ノ云趺陽) 충양>

趺陽、大ユビト 高くトノ間ヲ押上ケテユビノ止ル所ナリ。

부양,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눌러 올라가면 손가락이
멈추는 곳이다.

内庭 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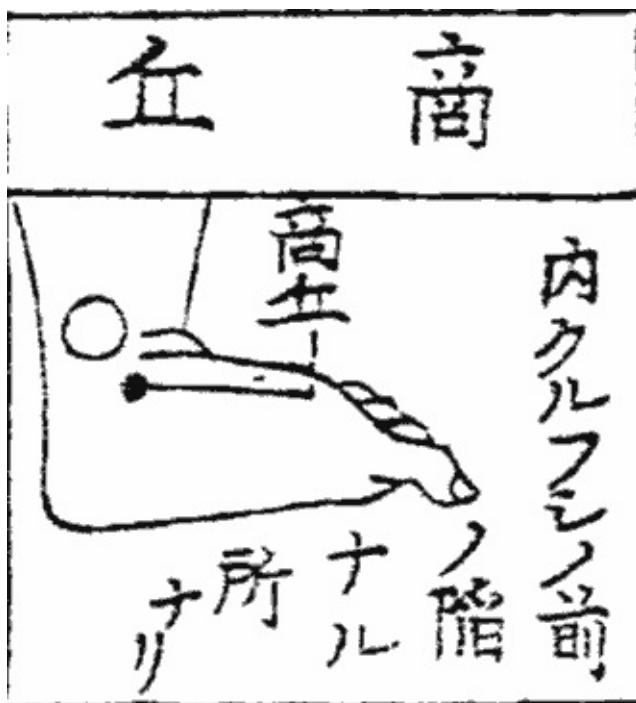
<内庭 내정>

内庭、中指、薬指ノ間、本指シノ後ナリ。

내정, 셋째발가락과 넷째발가락¹ 사이로, 본절의 뒤쪽이다.

1. 넷째발가락 : 둘째발가락 ※〈수혈해(俞穴解)〉 ←

商丘 상구



<商丘 상구>

内クルフシノ前ノ陷ナル所ナリ.

안쪽복사 앞의 움푹한 곳이다.

至陰ヨリ八穴 지음에서 시작하는 8혈



<至陰ヨリ八穴 지음에서 시작하는 8혈>

至陰 通谷 束骨 京骨 申脉 金門 僕參 崑崙

지음 통곡 속골 경골 신맥 금문 복삼 곤륜

泉生足 천생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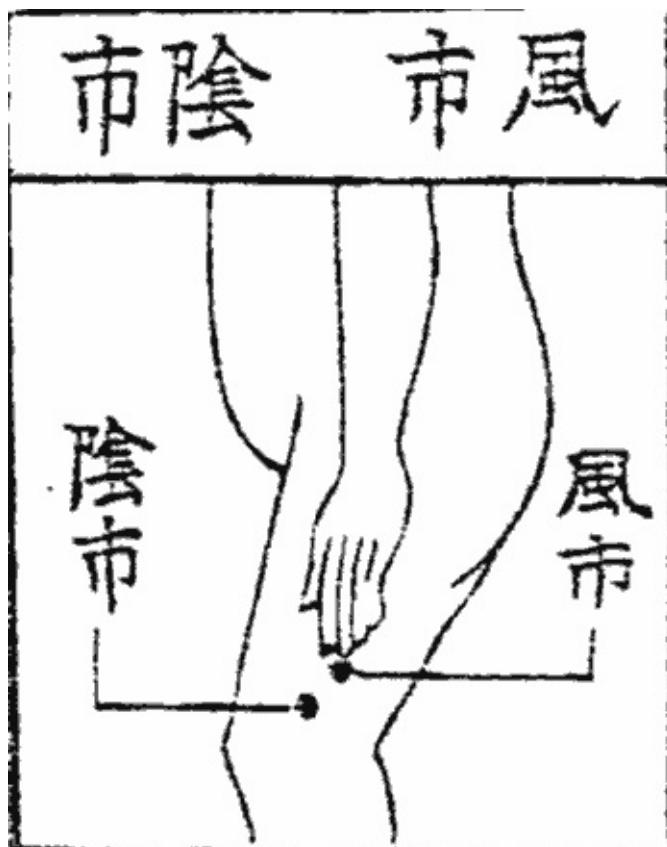


<泉生足 천생족>

高々ユビ兩ヨコ文ノ正中.

둘째발가락 두 횡문의 정중앙.

風市 陰市 풍시 음시



<風市 陰市 풍시 음시>

해제

서 론

壬辰倭亂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정치 질서가 재편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문물, 문화, 인력이 일본으로 대량 유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조차 우리나라 名醫가 일본으로 건너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 정황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金德邦이라는 인물은 일본 자료에 經東, 金德, 金德邦, 金德許, 金德許德原, 金得拜, 金得許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전해지는 인물로, 이 인물의 일본 내 계보 자체가 하나의 논문으로 둑여질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²⁷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龜巖 許浚과 비견되는 일본의 전설적인 名醫 知足齋 長田德本²⁸ [永田德本이라고도 한다]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金德邦의 의술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하는 《鍼灸極秘抄》²⁹에 대해 소개하고 그 주요 부분에 대한 번역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논의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론

《鍼灸極秘抄》에 대하여

이 한 권의 책은 옛날 慶長 年間(1596-1615) 甲斐國의 良醫인 長田德本이라는 사람【《매화무진장》의 작가이다】이 朝鮮의 醫官 金德邦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침술이다. 그 후 田中知新에게 전수된 이후에는 그 집안에서 대대로 秘傳되어 전수될 때에는 구술에 의하거나 혹은 그 문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점만을 메모로 전수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침술의 전체를 익히 아는 사람은 이 드물었다. 내가 京師에서 유학할 때에 이 침술을 大坂의 原泰庵 선생에게

배웠는데 완전히 이해하게 해 주셨다. 그 후 매번 시험할 때마다 진실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여러 번이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금이라고 해도 산에 숨겨져 있거나 진주라고 해도 연못에 가라앉아 있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물며 의술은 천하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집안에서 썩히는 것은 의술을 업으로 삼는 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전수받은 구결의 각 조목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서 세상에 公刊하는 것이다. 이 책에 潛心하게 되면 간명하면서도 얻는 것은 몹시 클 것이다. 세상의 의술에 뜻 둔 사람들이 이 침법을 널리 세상에 베풀게 하는 것이 내가 속으로 바라는 바이다. 陸奧福島 木邨太仲元貞 쓰다.³⁰

이상은 《鍼灸極秘抄》을 세상에 公刊한 木邨元貞의 〈自序〉全文이다. 《鍼灸極秘抄》은 분량이 아주 적은 袖珍本의 서적으로, 의학적 이론 등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한 정보만 있으며 처음부터 일관되게 병증 대 치법으로 이루어진, 몹시 실용성이 강조된 서적이다. 〈自序〉의 내용처럼 田中知新 집안에서 대대로 秘傳되면서 구술과 메모 등에 의해 전해진 것에 연유된 탓인지 치법을 다룬 부분이 일관적인 체계 하에 묶여 있지 않아 임상에서 적극 사용했음을 누구나 간파할 수 있다. 〈自序〉에서 살필 수 있듯이 이 책은 甲斐德本翁이라는 존칭으로 불렸던 長田德本이 우리나라에서 건너 간 김덕방에게서 전수 받은 침법으로 구성된 서적으로, 長田德本 이후 田中知新 → 原恭庵 → 木邨元貞을 거치며 오늘날의 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木邨元貞은 김덕방 침술의 전체를 꿰뚫은 이후, “전수받은 구결의 각 조목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서 세상에 公刊”하게 되었던 것이다.

《鍼灸極秘抄》의 체제

본서는 〈序〉(荻野元凱)와 〈自序〉[木邨太仲], 그리고 〈跋〉(藤昆明)이 붙어 있으며, 서발을 제외한 중심 되는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부분은 침을 놓는 경우의 금기사항이나 침법의 대의에 대한 부분으로 모두 7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다음과 같다. 〈鍼治大意〉, 〈先禁忌ヲ心得ヘキ事[먼저 명심해야 할 금기사항]〉,

〈鍼シテ誤シ時刺直スヘキ事[침을 잘못 놓았을 때 다시 침을 놓아야 하는 사항]〉, 〈補瀉迎隨直亂ノ事[補瀉迎隨와 直亂에 대하여]〉, 〈別傳〉, 〈阿是問答ノ穴ト云事[아시 문답의 혈에 대하여]〉, 〈中腕ハ妙穴タルコトヨ心得ヘキ事[중완은 묘혈(妙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부분은 〈秘傳之條條[비전의 조목들]〉로 총 114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가 ‘병증 대 처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이 본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치법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다. 세 번째 부분은 〈俞穴解[수혈해]〉로, 수혈의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수혈의 위치를 쉽게 익힐 수 있게 하였다.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俞穴解 中 騎篤[騎竹馬] 부분>

騎篤[騎竹馬] 걸터앉은 대나무의 가장자리에서 위쪽으로 5치 떨어진 등의 혈과 양 옆으로 5푼 떨어진 2혈, 이렇게 3곳이다. 그리고 그 아래로 1치 떨어진 곳의 3혈이다. 이렇게 도합 6혈이다.

이상은 (112) 赤白帶下妙灸 부분과 부합되는 곳으로, (112)에서는 단지 “환자를 죽마에 태우고”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 정확한 방식을 글로서 깨우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상과 같이 자세한 取穴 관련 그림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인 〈秘傳之條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언급했다시피 이 부분에는 치법과 관련된 痘因이나 穴位가 가지는 主治, 議論 등이 일절 없으며 ‘병증 대 처방’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용성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 이 부분은 병증의 나열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일괄적인 제시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東醫寶鑑》체계에 입각하여 내용 제시를 하기로 한다. 표에 보이는 번호는 《鍼灸極秘抄》 각 조문에 본고 저자가 붙인 일련번호이다.

fig1.《東醫寶鑑》목차에 따라 분류한 《鍼灸極秘抄》(秘傳之條條)의 주치증

대 분	중 분	소 분	번 호	주치(원문)	주치(국역)
--------	--------	--------	--------	--------	--------

류	류	류	호		
内 景 篇	精	遺 精	61	遺精【路せつする 人】	유정
		氣			
	神	痰 厥	4	癲癇【てんかん】	전간
			8	痰厥、昏昧卒倒。 【たんつまりて急に たおれたる】	담궐로 정신이 혼미해져 졸도한 경우.
			89	痰厥欲絶、痰胸膈 塞昏迷者【なんのは りて死なんとする 人】	담궐로 쓰러지려고 하거 나 흉격에 담이 막혀 정신 이 혼미한 경우
	血	咳 血	50	咳血【せきに血のま じる人】	해혈【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吐 血	51	吐血【血をはく人】	피를 토하는 경우
		衄 血	52	衄血【はな血いづる 人】	코피
		下 血	53	下血【血のくだる 人】	하혈

		血 痛	102	者【ふる血にてむね はらいたむ人】	어얼도 가슴과 배가 아파 서 참을 수 없는 경우
	夢				
	聲 音				
	言 語				
津 液	盜 汗	85		盜汗【ねあせいづる 人】	도한【자면서 식은땀이 나 는 경우】
	痰 飲				
胞	經 閉	78		經閉作塊者【月やく とどこおりてかた まりになる人】	월경이 막혀 덩어리가 진 경우
	崩 血	101		崩血【小に血がくだ りて死んとする人】	붕혈【조금씩 피가 하혈되 어 죽을 것 같은 경우】
	赤 白 帶 下	112		赤白帶下妙灸【しら 血・長血の妙灸】	적대하와 백대하에 좋은 뜸법
	蟲				
小	遺	91		遺尿【ねしうべ ん、またざしきに	유뇨【자면서 소변이 나오 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小便	遺尿	91	遺尿【ねしうべん、またざしきにてもらす人】	유뇨【자면서 소변이 나오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변이 세는 경우】
		淋	60	淋病【りんひやう】	임병
		小便閉	20	小便閉悶絶者【小便つまりの人】	소변이 막혀 답답하여 기절한 경우
	大便	泄瀉	44	泄瀉	설사
		痢	24	休息痢【げりひやう】	휴식리【만성 이질】
			42	痢病【赤なめ、白なめ、しぶりはら】	이병【赤痢, 白痢, 뱃속이 무지근한 경우】
			43	又極效ノ方	효험이 몹시 좋은 또 다른 처방
		後重	45	裏急後重【しぶりはら。いきみでも通ぜぬ人】	뱃속이 땅기고 뒤가 무지근한 경우【뱃속이 무지근한 경우. 배에 힘을 주어도 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大便閉	90	大便閉【大べんつまりて、又久しくせぬ人】	대변폐【대변이 막히고 또 오랫동안 대변을 보지 못한 경우】
外					

篇	痛				
	眩 暈	59	眩暈【めまひ】	현훈【어지럼증】	
	面 瘡	68	面瘡【かおの内ので もの】	면창	
	眼 目	65	眼目【めのやまひ】 灸肝俞 脾俞 三里	눈병 간수 비수 삼리에 뜸 을 뜯다.	
	眼 痛	66	眼中血多痛或爛眩 者【目の内血の多き 人又ただれ目】	눈 속에 피가 많이 몰려서 아프거나 짓무르고 어지 러운 경우	
	雀 目	15	省[雀]目【日くれか たより目のみえぬ もの】	작목【해질녘부터 앞이 보 이지 않는 것】	
	耳				
	鼻				
	口 舌	54	口舌生瘡【口中また したにかさいづる 人】	입속과 혀에 창(瘡)이 생 기는 경우	
	牙 齒				
	咽	喉	喉瘡【にわかにのん】	후비【갑자기 목구멍이 부	

	咽喉 喉 瘻	3	喉瘻【にわかにのん どのはれふさがる】	후비【갑자기 목구멍이 부 어서 막히는 것이다.】
	咽喉 喉 閉	111	咽喉塞、三日水穀 不通【こうひ二三日 薬水ともに通らぬ 人】	인후가 막혀 3일 동안 물 이나 음식을 삼키지 못하 는 경우【후비(喉瘻)로 2~3일 동안 약이나 물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頸 項 痛	41	頸項攣痛【くびすじ ひきつりいたみ】	목과 뒷목이 땅기고 아픈 경우
	背 痛	37	背痛【せのいたみ】	등이 아픈 경우
	胸 心 痛	10	心腹卒痛、自汗出 者。【むねはち急に いたみ、あせのい つるに】	명치가 갑자기 아프고 자 한(自汗)이 나는 경우.
	胸 痛	25	胸痛口噤者【むねい たみてとりつめた る人】	가슴이 아프고 이를 악다 문 경우
		34	胸痛【むねのいた み】	흉통
	胃 脘 痛	32	胃脘痛【むねよりへ その上いたむ人】	위완통【가슴부터 배꼽 위 까지가 아픈 경우】

	心 下 痞	33	心下痞悶介食【むね の下つかえてふ しょく】	가슴이 막히고 답답하여 먹지 못하는 경우
	血 結 胸	102	瘀血心腹痛不可忍 者【ふる血にてむね はらいたむ人】	어혈로 가슴과 배가 아파 서 참을 수 없는 경우
	乳 腫 痛	107	乳腫痛【ちちのはれ たる人】	젖이 붓고 아픈 경우
	腹 痛	27	腹痛【はらのいた み】	복통
		28	又方【はらのいた み】	복통의 또 다른 처방
	腹 鳴			
	< 不 明 >	36	腹脹硬或小腹堅【ふ かみがたく、おし てはらはりたる人】	배가 딴딴히 불러오거나 아랫배가 딴딴해지는 경 우
	臍			
	腰 痛	48	腰痛【こしのいた み】	요통
		56	腰痛【せんきのこし のいたみ】	산증(疝症)에 의한 요통

			56		산증(疝症)에 의한 요통 【의타미】
	婦人腰痛		77	婦人腰痛甚小便澁者【女こしいたみて 小べんしぶる人】	부인이 심한 요통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脇				
	皮				
	肉				
	脈				
	筋	轉筋	12	轉筋脚氣【かつけ、すじのつまる人に】	근이 뒤틀리는 경우와 각기.
	筋急		86	筋急【あしの筋引つる人】	근급【다리의 근이 땅기는 경우】
	骨				
	手	鵝掌風	26	鵝掌風【うらむしにて手のひらの皮のむけ、さけなどするに】	아장풍【うらむし 때문에 손바닥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증상】
	肩痛		38	肩痛【かたのいたみ】	어깨가 아픈 경우
	臂痛		39	臂痛【ひじのいたみ】	팔꿈치가 아픈 경우

		腕痛	40	腕痛【うでのいたみ】	팔이 아픈 경우
	足	脚氣	12	轉筋脚氣【かつけ、すじのつまる人に】	근이 뒤틀리는 경우와 각기.
			62	脚氣【かつけ】	각기
		瘡證	13	中風足麻痺痿弱、不覺痛痒。【中風、手足しびれ、なえたる人】	증풍으로 다리가 마비되고 약해졌으나 통증이나 가려움이 없는 경우.
		毛髮			
	前陰	陰丸腫	67	陰丸腫.便毒.下疳. 玉莖腫【よこね、かんそう、くきのはれたる人】	음환종.변독.하감.음경종
		陰臭	94	陰臭【女のまえのくさきはたびたびさしてよし】	阴臭【여자 음부의 역한 냄새에는 자주 침을 놓으면 좋다】
		内下疳	95	内下疳、莖中痛【ウミ出ルなり。りんびやうとはちがふなり】	음부의 하감창 및 음경의 통증【틈이 생긴 것이다. 임병(淋病)과는 다른 것이다.】
	後	脫	113	痢病.脱肛.五痔.下血【しぶりはら.で	이병.탈항.오치.하혈

	後 陰	脫 肛	113	血【しぶりはら.で ち.すべてのち.はし りぢ】	이병.탈항.오치.하혈
		五 痔	113	痢病.脫肛.五痔.下 血【しぶりはら.で ち.すべてのち.はし りぢ】	이병.탈항.오치.하혈
雜 病 篇	風	卒 中 風	5	卒中風、不知人 事、牙關緊急。【そ つちう風、正体た いなく、はをくひ しめたる人】	갑작스런 중풍으로 인사 불성이 되어 이를 악다문 경우.
			13	中風足麻痺痿弱、 不覺痛痒。【中風、 手足しびれ、なえ たる人】	중풍으로 다리가 마비되 고 약해졌으나 통증이나 가려움이 없는 경우.
	寒	中 寒	98	中寒身無熱、吐瀉 腹痛、厥冷如過肘 者【寒毒にあたりて ひえあがりて吐瀉 し、はらいたむ人】	중한(中寒)으로 몸에 열 은 없으나 토하고 설사하 며 배가 아프고 궤랭(厥 冷)으로 싸늘함이 팔을 지나는 듯한 경우
	暑	中 暑	99	中暑口渴或吐瀉【暑 氣にあたりて口か わき、はきくだし する人】	더위를 먹어 갈증이 나거 나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暑 卒 倒	100	張、手足搐搦【しよ にあたりてそりか えりたる人】	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며 손발에 경련이 이는 경우
	注 夏 病	110	注夏病【なつの時 びょうもち】	주하병【여름에 생기는 병 이다】
	濕 中 濕	109	中濕腰背拘急、脚 重疼痛【しつにあた りてこし.せなか.あ し引きつりいたむ】	중습(中濕)으로 허리와 등이 땅기고 다리가 붓고 아픈 경우
	燥			
	火			
	內 傷 濕	29	食傷【しょくあた り】	식상
	燥	21	呑酸刺心【むねのや く人】	탄산(香酸)이 가슴을 찌 르는 경우
	火	110	注夏病【なつの時 びょうもち】	주하병【여름에 생기는 병 이다】
	虛 勞			
	霍 亂 嘔	79 79	霍亂嘔吐者【かくら ん、はくことしげ く、からえづきあ】	곽란구토【곽란으로 심하 게 토하며 헛구역질을 하 는 경우】

	嘔		吐	へ、かうえつさめ る人】	는 경우】
		80	80	霍亂吐瀉者【かくらん、はきたり、下したりする人】	곽란토사【곽란으로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
	乾 霍 亂	81	81	乾霍亂無吐瀉而唯 悶絶者【かくらん、 吐も瀉もなく、も んんぜつする人】	건곽란으로 토하거나 설 사를 하지는 않지만 답답 하여 기절하는 경우
		82	82	霍亂以取吐爲先【か くらんは、はやく 吐きてよき事】	곽란에는 토하게 하는 것 이 가장 낫다
	嘔 吐	嘔 吐	88	嘔吐【からえづき、 或は物をはく人】	구토【헛구역질 혹은 무언 가를 토하는 경우】
		嘔 逆	46	嘔逆【からえづき】	구역질
		翻 胃	35	翻胃【食物をはくや まひ】	번위【음식을 토해내는 병】
		欲 吐	87	諸病欲取吐則可刺 事【諸病吐せたくお もふ時】	온갖 병에 토하려고 할 때 의 자침
	咳 嗽	咳 嗽	49	咳嗽【せき、しわぶ き】	해수
				喘促急迫【ぜんそ	

				く、かたにていき する人】	
	積 聚	積 聚	30	積聚【しゃくつか え】	적취
			31	又方【しゃくつか え】	적취의 또 다른 처방
			97	積聚腹張如石、坐 臥不安、二便滯上 氣遍身腫【しゃく じゅうにありて石 のごとく、小便つ うせず、總身はれ る人】	적취로 복부가 돌처럼 땀 땀하게 창만하여 앓거나 눕는 것이 편안하지 않고 대소변이 막혀 상기되고 온 몸이 붓는 경우
	浮 腫	水 腫	63	水腫【しゅき、はれ やまひ】	수종【종기. 붓는 병】
			64	水腫遍身滿者【水 しゅ總身はれたる】	수종(水腫)이 온몸에 가 득한 경우
	脹 滿				
	消 渴				
	黃 疸	黃 疸	55	黃疸【おうだん】	황달
	疣	瘡		瘡疾【ぎやく、おこ	

	疚瘡	瘡疾	57	瘡疾【ぎやく、おこり、舊わらわやみと云】	학질
	截瘡		58	截瘡【おこりをきるに刺すべき妙術】	학질을 끊는 법【학질이 발발했을 때 자침할만한 묘술이다】
	瘧疫				
	邪祟				
	癰疽	疔	16	疔【面の内 手足にせつの出もの】	정(疔)【얼굴이나 손발에 부스럼[癰]이 난 것】
	諸瘡	瘡腫	114	瘡腫雁瘡諸瘡之事	창종.안창.제창
		雁瘡	114	瘡腫雁瘡諸瘡之事	창종.안창.제창
		諸瘡	114	瘡腫雁瘡諸瘡之事	창종.안창.제창
		早瘡	92	早瘡【はやくさとて大せつの症なり】	조창
		癰病	96	癰病【さんびやう、かったいともいう】	나병

	傷	瘡		け】	깨어나게 하는 침
			18	金瘡瘀血、逆上攻 心狂氣者。【きりき ずの惡血せめのぼ り氣のちがう人】	칼에 베어 생긴 어혈이 위 를 치받아 심을 쳐서 미친 경우
		打 撲	19	陰丸打撲絶氣者【き ん玉を打て氣を失 う人】	음낭을 얻어맞아 기절한 경우
		墜 墮	23	登高落絶氣者【高き 所より落て氣を失 ふ】	높은 곳에서 떨어져 정신 을 잃은 경우
	解 毒	中 魚 毒	6	中魚毒【うをのどく にあたる】	생선 독에 중독된 경우.
		河 豚 毒	7	河豚毒【ふくのどく にあたる】	복어독에 중독된 경우.
	救 急	氣 附 鍼	1	氣附鍼【氣つけのは り】	기절한 사람을 깨우는 침
		日 腫	2	日腫	日腫
		溺	69	溺死【水におぼれた	익사

		溺死	69	溺死【水におぼれたる人】	익사
		縊死	84	縊死者【くびをくくりて死する人】	목매달아 죽은 경우
	怪疾	陰煩	83	陰煩者一曰離魂病【何となくもだえて死せんとする人】	음번(陰煩)은 이흔병(離魂病)이라고도 한다【이유없이 갑갑하여 죽을 것만 같은 경우】
	雜方				
	婦人	子癇	93	子癇【母のはらの内にて子が狂ふて氣を失ふなり】	자간【엄마 뱃속의 태아가 미쳐서 정신을 잃는 것】
		難產	70	難產【なんざん甚妙なり。必ずすくうべし】	난산【난산에 신묘한 효험이 있다. 이 치법을 쓰면 반드시 사람을 구하게 된다.】
			71	又方【是を陽龍の傳という。人をすぐう事たびたびなり、必ずくうべし】	난산을 치료하는 또 다른 처방【이것을 양용전(陽龍傳)이라고 한다.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 반드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阿蘭陀人口授秘藥	네덜란드인에게서 전해

				とに日本の寶とお もふなり】	진정 일본의 보배로 여길 만하다.】
	死 胎	106		死胎必脈沈而小腹 冷也【なんさん、死 胎をくだすに】	사태(死胎)가 있을 경우 에는 맥이 반드시 침하고 아랫배가 차갑다.
	產 後 血 量	73		產後血暈氣附【さん このむりしたる時】	산후의 혈흔에 정신을 들 게 하는 방법【산후에 무 리를 한 경우】
		74		又方血暈及因瘀血 狂氣者【おけつの 症、氣のちがう人】	또 다른 처방. 혈흔이나 어혈로 인해 미친 경우
	後 惡 露 不 下	75		產後惡露不下胸腹 痛妨悶者【おけつよ く下りかねて、む ねはらいたむ人】	산후에 오로가 나오지 않 아 가슴과 배가 아프고 막 히고 답답한 경우
	臍 下 結 塊	76		臍下結塊如伏杯者 【へその下のかたま り、手にあたる事 こぶし入るるごと し】	배꼽 아래에 그릇을 엎어 놓은 것처럼 덩어리가 진 경우【배꼽 아래에 덩어리 가 되 손으로 만져보면 주먹을 넣은 것 같은 경 우】
小 兒	驚 風	9		小兒驚風【きやうふ う】	소아경풍

	小 兒	驚 風	9	小兒驚風【きやうふ う】	소아경풍
		急 驚 風	105	急驚風【きゅうきよ う風、目を引きつ けたるに】	급경풍【눈에 경련이 일어 나는 경우】
		慢 驚 風	14	慢驚風、搐搦反 張、熱少者。【まん きやうふうそりが りたる小兒】	만경풍으로 경련이 일고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 나 열이 적은 아이의 경 우.
		頭 瘡	22	惡痘瘡血熱甚者【あ しきとうそうに血 をとるべきこと】	두창 악증으로 피를 뽑아 야 하는 경우
		小 兒 舌 瘡	103	小兒舌瘡【子どもの したにかさ出る時】	소아설창【어린 아이의 혀 에 창(瘡)이 난 경우】
		小 兒 夜 啼	104	小兒夜啼【小兒のよ なきに】	소아야제【어린 아이가 자 다가 우는 경우】
		吐 乳	108	吐乳不止【小兒ちち をはく時】	어린 아이가 젖을 계속해 서 토하는 경우

련된 내용은 일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이 책이 임상에서 얻은 성과를 모은 것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것이 自序에서 “구술에 의하거나 혹은 그 문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점만을 메모로 전수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침술의 전체를 익히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처럼 전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의론화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鍼灸極秘抄》의 특성

이상 밝힌 바와 같이 《鍼灸極秘抄》는 애초에 소책자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일관된 이론으로 꿰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병증에 대한 처방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추상적 의론이 일절 배제되어 있는 임상 전문서이다. 이 책에 보이는 대부분의 치법은 鍼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간혹 灸法으로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으며, 鍼法과 灸法이 섞인 것도 있다. 그리고 難產에 대한 항인 (72) 阿蘭陀人口授秘藥나 瘫亂에 썼던 처방인 (82) 霍亂以取吐爲先 등 약에 의한 처방도 보인다. 이 책은 하나의 이론으로도 꿰어지지 않을 뿐더러 작은 책자 속에 온갖 치료법들이 다 온축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임상에 최적화된 임상 전문서인 셈이다. 이 외에 이 책은 매우 특기할만한 사항이 포착된다. 그것은 바로 이 책에 取血과 관련된 내용이 유난히 자주 나온다는 것이다. 다음 글을 보자.

또 침으로 取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효험이 몹시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세속에서는 몸에서 피를 뽑아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며 귀한 사람은 더욱 그것을 꺼린다. 그것은 사람은 혈과 기의 有餘不足에 의해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血實血滯의 병이 생기는 경우, 그 피를 뽑아 안정된다면 무엇을 꺼릴 것이 있겠는가?³¹

이상은 〈鍼治大意〉에 보이는 사항으로, 血實血滯의 병의 경우 取血하는 것이 효험에 있어 몹시 빠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귀한 사람일수록 取血을 꺼리는 당시 상황에서 과감하게 取血法을 채택했다는 것이 특기할 일이다. 때문에 荻野元凱가 남긴 〈序〉의 첫머리에 長田德本이 임상에서 取血로 큰 효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이상은 〈鍼治大意〉에 보이는 사항으로, 血實血滯의 병의 경우 取血하는 것이 효험에 있어 몹시 빠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귀한 사람일수록 取血을 꺼리는 당시 상황에서 과감하게 取血法을 채택했다는 것이 특기할 일이다. 때문에 荻野元凱가 남긴 〈序〉의 첫머리에 長田德本이 임상에서 取血로 큰 효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³²은 다름 아닌 임상에서 取血法이 거의 쓰이지 않던 상황에서 발견한 몹시 낯선 장면인 것이다. 그 낯선 장면이 바로 이 서적의 몹시 중요한 귀결점 중 하나인 것은, 이 책의 곳곳에 取血하는 치법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일련번호와 주치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2) 日腫

(3) 喉痺

(7) 河豚毒

(10) 心腹卒痛、自汗出者。

(15) 省[雀]目

(16) 疗

(22) 惡痘瘡血熱甚者

(54) 口舌生瘡

(65) 眼目

(68) 面瘡

(81) 乾霍亂無吐瀉而唯悶絕者

(92) 旱瘡

(95) 內下疳、莖中痛

(96) 癲病

(114) 瘡腫雁瘡諸瘡之事

114건 중 모두 18건이 나왔으니 取血法은 총 주치의 16%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 (15), (22), (114) 등에서는 랜싯(lancet, 양날의 끝이 뾰족한 의료용 칼)으로 찢어서 피를 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모든 병증에 取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取血法이 몹시 빠른 치법이기는 하나 그만큼 부작용도 많았던 듯, 예를 들면 (65) 眼目에서는 “눈꺼풀이 부어서 아픈 경우, 그리고 적육(赤肉)이 눈 속에 나서 눈꼽이 많이 짓무르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피를 뽑고 침을 놓으면 좋다. 이외의 증상에는 피를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取血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병에 따라서 取血하는 것을 꺼리는 증상이 있다. 기와 혈이 모두 허한 사람과 임신을 했거나 혹은 산후에 오랫동안 병을 앓은 뒤인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펴야 한다. 더욱이 그 증상을 살필 수 없는 의인은 아는 사람에게 일임하여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침을 써야 하는 증상과 取血해야 하는 증상은 서로 비슷하다. 뜸을 떠야 하는 증상과 침을 써야하거나 取血해야 하는 증상과는 천양지차가 난다. 그 상반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개 허한 사람에게는 뜸을 뜨고 실한 사람에게는 침을 쓰거나 取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³³

이상에서 알 수 있듯 取血에서 꺼리는 증상이 있으며 사람의 허실에 따라 침과 뜸을 쓰는 차이도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東醫寶鑑》에서 “사람마다 형색이 이미 다르면 오장육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외증이 비록 같더라도 치료법은 매우 다르다.”³⁴라고 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책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序〉의 첫머리에서 長田德本의 取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책에 흔히 보이는 取血法이 당시의 의사들에게는 몹시 낯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선 전기 이미 조선에서 많은 증상에 取血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治腫指南》과 이 책이 몹시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일러주는 사항이기도 하다³⁵.

의사들에게는 몹시 낯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선 전기 이미 조선에서 많은 증상에 取血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治腫指南』과 이 책이 몹시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일러주는 사항이기도 하다³⁵.

미키사카에가 『朝鮮醫學史』에서 이 책을 극찬한 것도 取血을 몹시 꺼리는 동양적 사고 패턴을 과감히 깨부순 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³⁶ 『治腫指南』 역시 이론을 토대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병증에 대한 처방이 나열된 서적이라는 면에서도 두 서적은 유사성을 보인다. 어쩌면 우리나라 침술의 이러한 측면이 일본으로 고스란히 넘어가 長田德本이라는 거인의 침술로 거듭난 것이 아닐까 한다.

결 론

이상 『鍼灸極秘抄』의 내용과 주요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鍼灸極秘抄』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나라의 金德邦이 남긴 의술이 長田德本 → 田中知新 → 原恭庵 → 木邨元貞 등을 거치며 완성된 서적이다. 때문에 이 서적에는 우리나라 의술의 면모와 의서의 면모가 어느 정도 간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鍼灸極秘抄』는 소책자이면서도 한 가지 한의학적 이론에 포섭되지 않을뿐더러 치법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존재하는 의학서이다. 이는 서적 성립 당시까지 임상에서 얻은 지식을 한 곳에 담은 결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임상에서 몹시 효험이 커던 임상 전문서임을 지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鍼灸極秘抄』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치법은 取血法이다. 取血法은 당시 일본에서 몹시 꺼리는 치법 가운데 하나였으나, 金德邦과 長田德本의 임상을 거치면서 효험이 몹시 빠른 치법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는 일본에서는 몹시 꺼려하는 침법이었으나 우리나라의 『治腫指南』 등의 의서에서는 많은 부분 取血法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침법의 이러한 면모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화한 것으로 사료된다.

27. 이 인물의 ... 인물이다 : 대표적으로 다음 논고들을 들 수 있다. 宋岡尙則. 山下幸一. 村崎徹, 〈文祿の役(壬辰の亂)における日本, 朝鮮, 明醫學の交わり〉, 日本醫史學會誌 제52권 제2호, 2006. 6, pp. 273-292 ; 宋岡尙則. 山下幸一. 村崎徹, 〈安土桃山時代における代用人蓼〉, 日本醫史學會誌 제52권 제3호, 2006. 9, p. 351. ←
28. 知足齋 長田徳本 : 長田徳本에 대하여는 다음 자료에 자세하다. 富士川游著, 박경. 이상권 역, 『일본의학』, 범인문화사, 2006, pp. 252-257. ←
29. 『鍼灸極秘抄』 : 본고의 저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DB <http://jisik.kiom.re.kr/>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와 텍스트이다. 한의고전명저총서 DB에는 이 책의 제목이 ‘鍼灸極秘傳’으로 실려 있다. ←
30. 이 한 권의 책은 ... 쓰다 : 木邨太仲, 『鍼灸極秘抄』, 〈自序〉 “斯一卷ハ昔慶長年間甲斐ノ國ノ良醫長田徳本ト云人【《梅花無盡藏》ノ作者也】朝鮮國ノ醫官金徳邦ト云人ヨリ授リシ術ナリ。其後田中知新ニサツケテヨリ傳來リテ、其家家ニ秘シテ傳ルニ口受ヲ以テシ、或ハ其門ニ入ルトイヘトモ切紙ヲ以テ授テ、全備スル人稀ナリ。吾京師遊學ノ頃、術ヲ大坂ノ原泰庵先生ニ學ヒテ兩端ヲ叩ク。其後每每試ニ寔ニ死ヲ活スコトシハシハ也。予思フニ、金モ山ニ藏シ珠モ淵ニ沈メ置ハ何ノ益カアラン。矧ヤ醫術ハ天下ノ民命ニカカルモノナリ。是ヲ家ニ朽サンコト醫ヲ業トスル者ノ道ニ非スト。此故ニ傳受口訣ノ條條一事モ遺サス書アラハシテ世ニ公ニスル者ナリ。能此書ニ心ヲロソメハ簡ニシテ得ル處大ナルヘシ。世ノ術ニ志ス人人此法ヲ以テ弘ク世ニ施サハ予カ本懷ナリ。陸奥福島 木邨太仲元貞 書。” ←
31. 또 침으로 ... 있겠는가? : 木邨太仲, 위와 같은 책, 『鍼治大意』] “又針ニテ血ヲ取コトアリ。甚[其]速效アルコトナリ。然レトモ近世ノ民俗、身ヨリ血ヲ出コトヲ忌テ恐ルルモノアリ。貴人ハイヨイヨ忌憚ルナリ。夫レ人ハ血ト氣トノ有余不足ニヨリテ病ヲナスコトヲ辨ヌカ故ナリ。血實血滯ノ病

31. 또 침으로 ... 있겠는가? : 木邨太仲, 위와 같은 책, 〈鍼治大意〉] “又針ニテ血ヲ取コトアリ。甚[其]速效アルコトナリ。然レトモ近世ノ民俗、身ヨリ血ヲ出コトヲ忌テ恐ルモノアリ。貴人ハイヨイヨ忌憚ルナリ。夫レ人ハ血ト氣トノ有余不足ニヨリテ病ヲナスコトヲ辨ヌカ故ナリ。血實血滯ノ病ヲナスモノ、其血ヲ取り捨テ平身ニスルコト、何カソルルニ足ンヤ。” ↪

32. 長田德本이 임상에서 ... 이야기하고 있는 것 : 木邨太仲, 위와 같은 책, 〈序〉 “河賢治者爲余言：‘我聞之故老，德本之治病，不待制齊，刺輸取絡而濟，恒居多也。’[하현치(河賢治)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내가 어르신께 들으니 덕본(德本) 선생이 병을 치료할 때는 약을 제조할 것도 없이 수혈(輸穴)에 자침하고 낙맥에 취혈(取血)하여 낫게 한 경우가 평소에도 많았다.’”

↪

33. 병에 따라서 ... 있어야 한다 : 木邨太仲, 위와 같은 책, 〈鍼治大意〉 “一。病ニヨリテ血ヲ出スコトヲ忌ム症モアリ。氣血兩虛ノ人ト冷症ト妊娠或產後長病ノ後等也。意ヲ以テ察スヘシ。尤其症ヲ察シ得サル醫人ハ識者ニユツリテ人ヲ毀コトナカレ。一。鍼スヘキ症ト血ヲ取ルヘキ症ハ相似タリ。灸スヘキ症ト針スヘキ症、血ヲ取ルヘキ症トハ雲壤ノ隔ナリ。其相反スルコトヲ知ヘシ。大槻虛者ニハ灸シ、實ニハ鍼シ、亦血ヲ取ト心得ヘシ。” ↪

34. 사람마다 ... 매우 다르다 : “形色既殊，藏府亦異，外證雖同，治法迥別”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남산당, 1998 ↪

35. 《治腫指南》과 ... 사항이기도 하다 : 《治腫指南》에는 取血하는 곳이 곳곳에 보이며 특히 효과적 取血을 위해 오늘날의 부항에 해당하는 단지를 사용한 곳이 많이 보인다. 안상우.박상영 譯, 《국역 치종지남.지종비방》, 한국한의학 연구원, 2008. 참조. ↪

36. 미키사카에가 ... 때문일 것이다 : 三木榮은 任彦國의 治腫學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明薛己의 《外科樞要》나 陳實功의 《外科正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18세기의 일

는 또 조선사람 任彥國이 지은《治腫秘方》1권이 있다. 지금 이 책에는 찬술자 의 성명을 기록해두지 않았으나《치종비방》을 살펴보건대 이것 역시 임언국 의 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임언국은 嘉靖 연간(1522~1566) 사람으로, 어떤 늙은 중에게서 침법을 전수받았는데 특히 종기 치료에 탁월하였다 하니 아마도 일반적인 針醫의 기술과는 크게 달랐던 것 같다. 天明 을사년(1785) 여름에 懷仙閣 위에서 이 책을 보고서는 마침내 빌려서 돌아와 베껴두고 집안에 보관해 두었다. 이해 10월 보름날에 丹波元簡이 기록한다.[右《治腫指南》二卷, "養安院越公藏朝鮮槧本云. 是文祿中所俘來, 最絕世之異編也. 公家又有朝鮮任彥國所著《治腫秘方》一卷, 今此書不錄撰者姓名, 而攷諸《秘方》, 知亦成任氏之手焉. 彥國, 嘉靖間人, 授鍼法一老髡, 尤長於治腫, 蓋與尋常針醫之術, 大不同矣. 天明乙巳夏, 見之懷仙閣上, 遂借歸而影鈔, 以藏弃于家云. 是歲十月之望, 丹波元簡識.] 박상영·안상우, 〈治腫指南 研究〉, 민족문화 제32집, pp.339-363. 참조. ↪

* 참고자료

- 宋岡尙則.山下幸一.村崎徹, 〈文祿の 役(壬辰の亂)における日本, 朝鮮, 明醫學の交わり〉, 日本醫史學會誌 제52권 제2호, 2006. 6, pp. 273-292.
- 宋岡尙則.山下幸一.村崎徹, 〈安土桃山時代における代用人蔘〉, 日本醫史學會誌 제52권 제3호, 2006. 9, p. 351.
- 富士川游 著, 박경·이상권 역, 《일본의학사》, 범인문화사, 2006, pp. 252-257.
- 木邨太仲, 《鍼灸極秘抄》(한의고전명저총서 DB <<http://jisik.kiom.re.kr/>>)
- 안상우·박상영 譯, 《국역 치종지남·지종비방》,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 박상영·안상우, 〈治腫指南 研究〉, 민족문화 제 32집, pp. 339-363.
- 荒木ひろし, 《鍼灸極秘抄》, 谷口書店, 1990.

* 작성자 : 박상영, 오준호

7. 荒木ひろし, 《鍼灸極秘抄》, 谷口書店, 1990.

* 작성자 : 박상영, 오준호

일러두기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졸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목차 혹은 문맥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로 제목을 추가하였다.
 - **임의제목** : 임의 제목 표시
- 글자의 오류가 있는 경우 교감기로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 로 표시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湿 => 濡, 宜 => 宜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口+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기호가 사용되었다.
 - ㊀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소주(小註)
 - {} : 양각
 - [] : 음각
 - _ : 격자(隔字)
 - **제목 설명** : 제목에 대한 설명문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 국역 침구극비전 鍼灸極秘傳

원저자 : 김덕방 金德邦

국역 : 박상영 · 오준호

해제 : 박상영 · 오준호

발행인 : 이해정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5년 12월 14일

Renewal : 2019년 7월 31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 · 수집한 이는 오준호(이)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박상영(이)며,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2015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K15670》고문현 기반 한의고전지식DB서비스 개발

침구극비전



비매품

95510

9 788959 701902
ISBN 978-89-5970-190-2 (EPUB)

비매품



9 788959 701872
ISBN 978-89-5970-187-2 (PDF)

[EPUB] 978-89-5970-190-2

[PDF] 978-89-5970-187-2